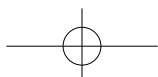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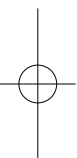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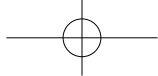


예수그리스도의 인성

The Humanity of Christ



예수그리스도의 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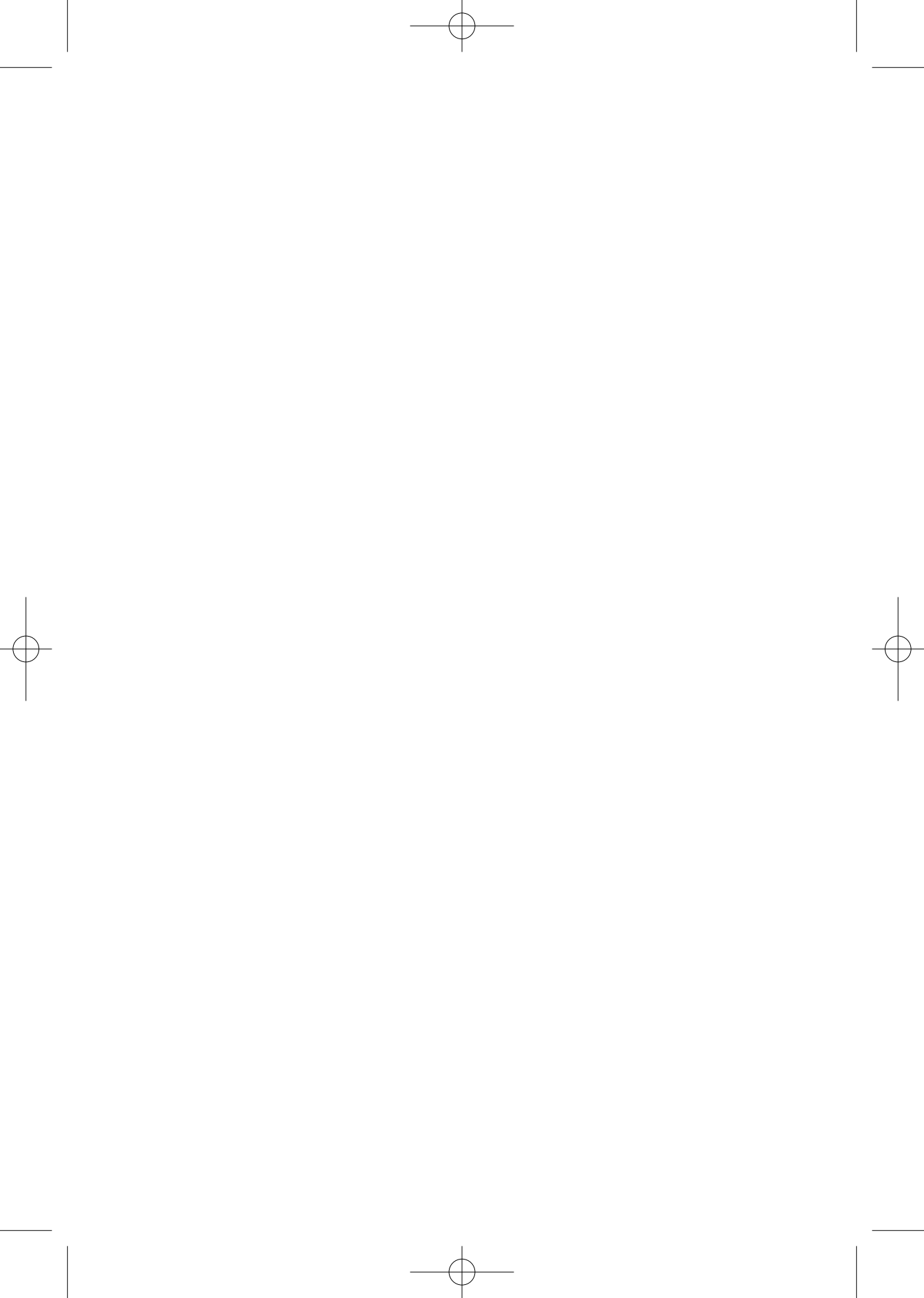
The Humanity of Christ

James W. Knox 지음

조 동 훈 옮김



KJ 도서출판 **킹제임스**
King James Publications



예수그리스도의 인성

The Humanity of Christ

©2015 by KingJames Publications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Seoul, Korea

발행처 | 도서출판 킹제임스

등록번호 | 1999. 6. 18. 제17-292호

초판발행 | 2015. 6. 10

지은이 | James W. Knox

옮긴이 | 조동훈

디자인·편집 | 김화영

표지사진 | 안성식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544-1 엘림빌딩 7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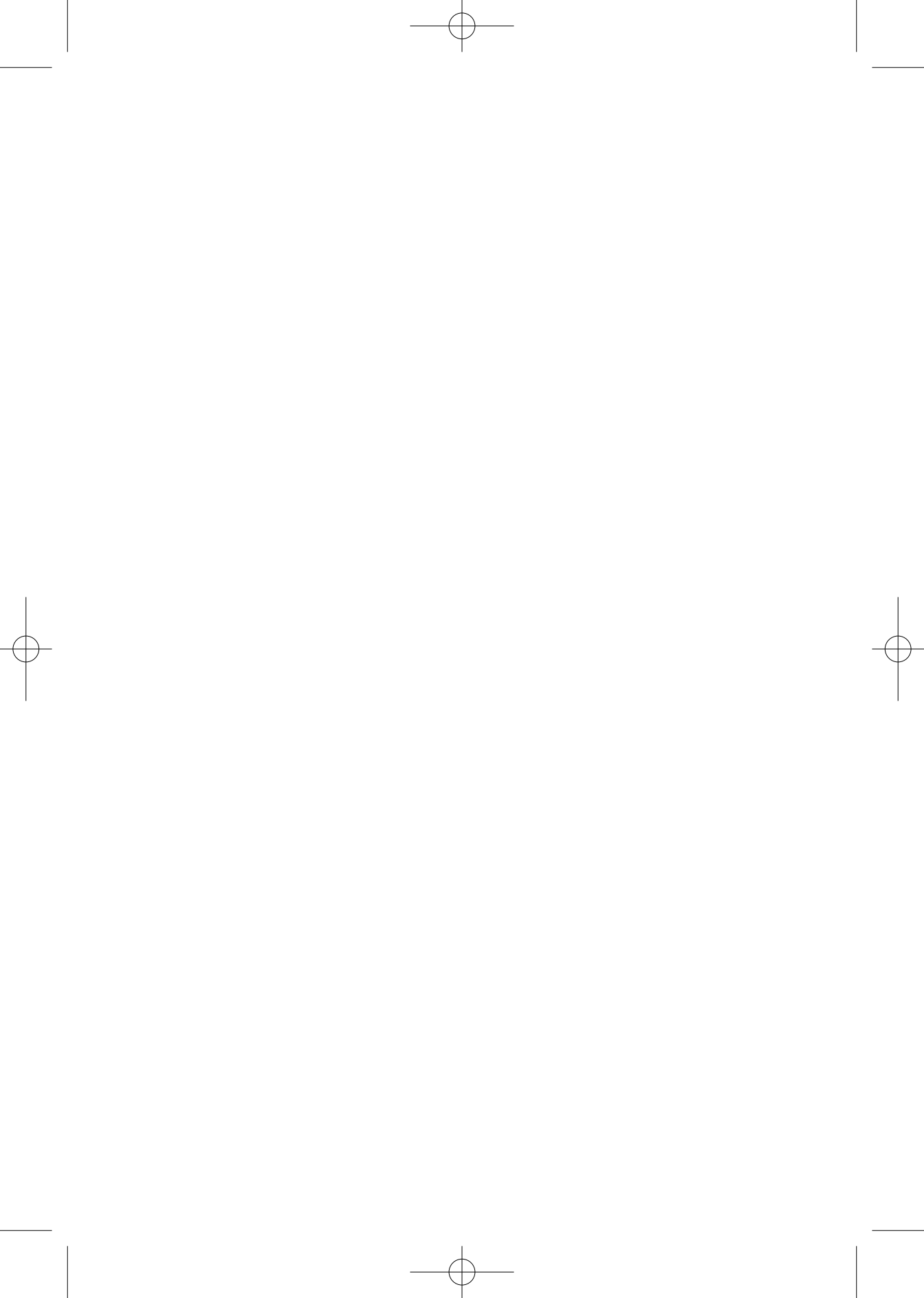
전화 | 0505-856-1997

홈페이지 | www.ilovekjb.com

■ ISBN 978-89-89741-80-0

■ 정가 8,000원

■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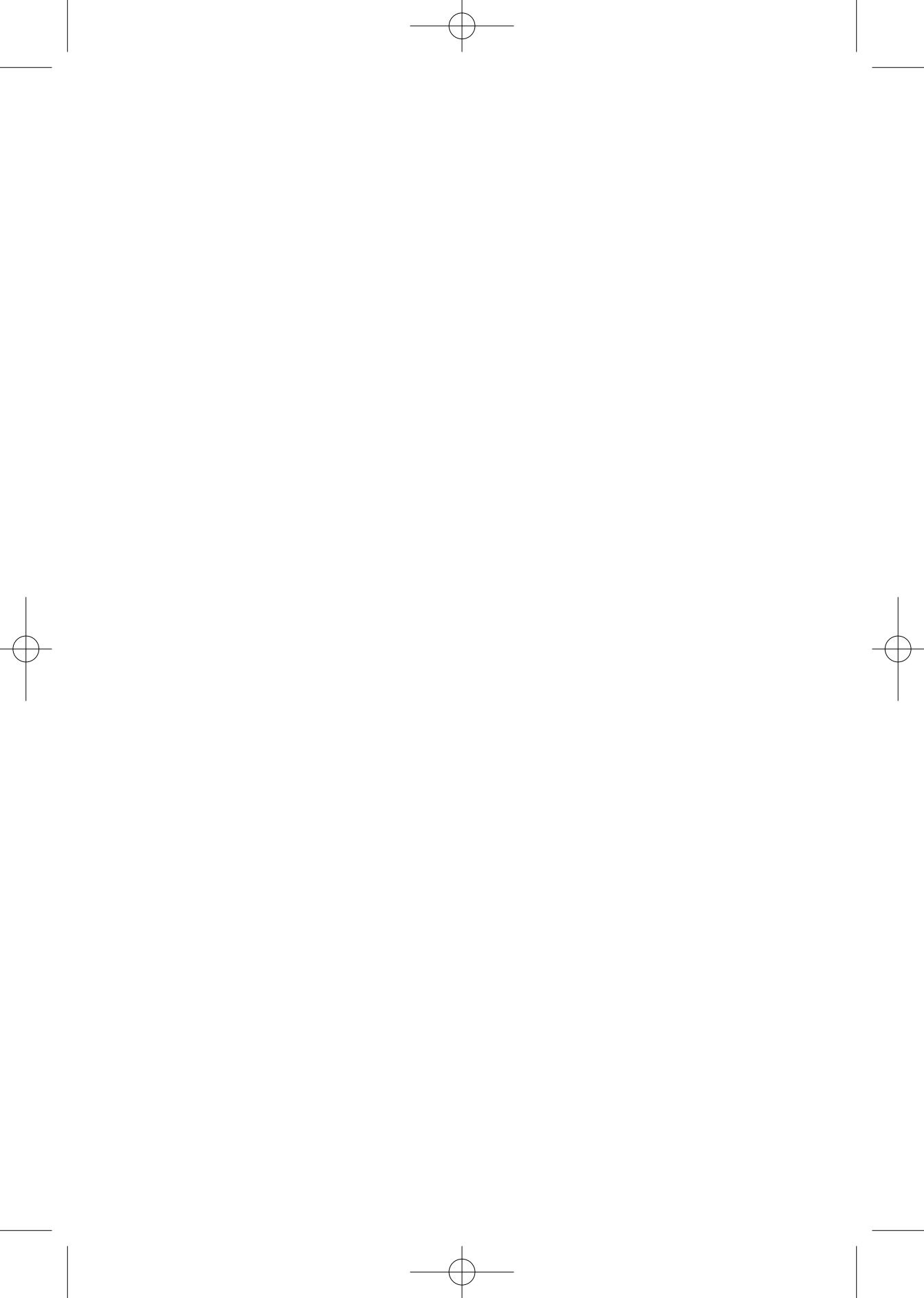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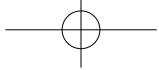
서문

1.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됨	17
2. 처녀 탄생	39
3. 영광 가운데 죽으신 사람의 아들	57
4. 예수님의 승천	75
5. 우리의 중재자	93
6. 우리의 대제사장	111
7. 인간의 삶을 경험하신 하나님	127
8. 예수님께서서 배우신 것	147
9. 몸의 머리	166
10. 우리의 상속 유업	184

부록

A: 새로운 몸인가 변화된 몸인가	221
B: 예수님은 무엇이 되신 것인가?	227
C: 진리를 왜곡시키는 현대 역본들	231
D: 사람의 아들(The Son of Man)	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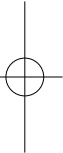


For we can do nothing against the truth,
but for the tru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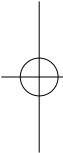
(2Corinthians 13:8)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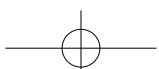
(고린도후서 13:8)



이 책에 사용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안에”에서
출간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전서”입니다.



The Scripture quotations found herein are from
the text of the Korean King James Bible
published by InChristJesus Publications.



서문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사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들은 주께서 침례자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의 하나라고 하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시니이다, 하매”(마16:13-16).

이 구절에서 제기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은 한 사람을 묘사하는 매우 다른 두 가지 형태를 보여줍니다. 첫째,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사람의 아들(the Son of Man)”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의 “인성(humanity)”을 명백히 하고 계십니다. 둘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아담의 후손 가운데 가장 위대한 분, 예언자 가운데 가장 고상한 분 그 이상이신 분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예수님보다 위대하거나 고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인 동시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시대 이후로 많은 학자와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하고 영원한 신성(deity)을 입증해 왔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근본적인 교리를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문자적 해석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매우 제한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로 인해 아들 하나님이 실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

님에 대한 성경적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 양육 그리고 영원한 축복에 관한 소중한 본질적인 진리들을 놓치게 됩니다.

본 저자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교리를 설교와 문서사역을 통해서 폭 넓게 주장해 왔음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공부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고 인간과 같이 생활하시며 우리를 위해 하늘 왕좌에서 내려오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혼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 옛날 성경구절에서, 우리와 소통할 수 있으며 인간적인 연약함을 소유한 하나님을 갈망하는 한 인간에 대한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히 4:13). 죄가 세상에 들어온 그날 “주님의 음성”(창 3:8)이 동산에서 거니신바 이는 타락한 인간에게 일시적 피난처를 제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의 임재를 떠나 세상에 오신 한 인간을 통해서 세상의 끝이 도래할 것입니다. 현재 공부하는 주제를 잠시 벗어나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신격(Godhead)을 통해 자기 자신을 친히 계시하셨기에 가인은 그분을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의해 에녹은 옮겨질 수 있었고, 노아와 아브라함은 경고를 받았으며 모세는 율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들은(신의 출현으로 알려져 있음)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킬 수 없었으며 타락한 인류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인류는 어느 정도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물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를 인간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예언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벧후1:10-12).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메시지가 제공되긴 했습니다(마1:23). 그러나 바빌론 포로 시대가 되어서야 “사람의 아들(son of man)”라는 단어가

아들하나님과 연관해서 사용되었습니다. 다니엘서 7:13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가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니라.” 이 말씀은 미래에 이 지상에 세워질 왕국에 대한 통치 그리고 영광과 관련 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네 마리 짐승으로 묘사된 왕국들의 종말, 그리고 하늘로부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왕국들을 대체할 통치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마치실 무렵, 제자들에게 다니엘의 환상에 나오는 그 제국들 중 하나에 대해 한 관리에게 말씀하신 때, 예수님은 다니엘 7장에서 제시된 예언의 주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에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마24:29-30).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이후에 너희가 보리라, 하시더라.”(마26:64).

이런 말씀에 대한 다음의 반응은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입증해 줍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우리에게 증인이 더 필요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그의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마26:65). 첫째, 히브리 사람들은 그 예언을 하나님이 신 한 인간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지상을 통치할 것이라는 사실로 해석하였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이심이라고 선포한 사실로 이해했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사람의 아들(son of man)의 의미를 살펴볼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다음의 사실을 아는 것으로 만족합시다. 우선 그들이 얼마나 정확히 이해를 했는가에 상관없이, 예전 사람들은 여자의 씨(창 3:15)가 신성한 분 일 수 있으며(사9:6-7) 이 지상이 아닌 하늘로부터 기원하는 한 인간이 통치하러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단7장).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분이 완벽한 인성을 지니셨다는 사실과 결코 모순되지 않으며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에 대한 우리의 믿음 또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한시키지 못합니다. 영원하신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요1:14) 오셨으나 죄 없는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실제로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사셨습니다(요8:40, 딤후2:5).

성경은 주님께서 진정한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자궁에서 잉태되셨고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리고 출생 후 팔일째에는 고통을 수반한 할례를 받으셨으며 시므온의 팔에 안겨 계시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음식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 성장하셨으며 열두 살 나이에 회당에서 학자들과 토론을 하셨습니다. 직업은 목수였으며 육신의 아버지와 같이 일하셨습니다.

분은 가나안 혼인잔치와 레위의 집에서 열린 잔치에 참석하셨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되어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나사로와 식사를 하셨으며 친구들과 유월절 음식을 같이 나누기도 하셨습니다. 음식과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 더 인간적인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받으신 사십일 금식 기간에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오히려 특이해 보입니다.

주님은 배고픔의 고통을 아셨으며 “나는 목마르다”라고 외치셨고 우물가에서 물을 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주무셨으며 여행 중

피곤하실 때 쉬셨습니다. 또한 육신의 찢림과 매질을 당하시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겪으셨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육신이 우리의 육신과 전혀 다르지 않음을 인정하게 합니다.

성경은 사랑스러운 주님의 인간적인 모습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님의 육체적 그리고 심리적 반응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지만 죄는 없는 분이셨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영 안에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분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으나, 그들의 성정에 따라 다르게 대하셨습니다. 화를 내기도 하였고, 장사꾼들의 상을 뒤엎기도 하셨으며, 장례식에서는 애통해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의 혼은 때로 기쁨에 찼고 때론 슬픔에 잠기기도 하셨습니다. 영 안에서 고통스러워하셨으며,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진노의 잔을 바라보셨으며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이 더 깊은 진리로 나아갈 때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인간적인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면서, 때로는 복종하면서 사셨음을 발견합니다. 말구유에서 시작해 헤롯왕의 살육을 피해 이집트로 보내진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하셨고(눅22:42)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친히 배우셨습니다(히5:8). 예수님은 또한 자신의 부모에 순종하셨고 세상 법의 통치를 받으셨습니다. 심지어는 군인들에게 체포당하셨고 악한 법정에서 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은 지혜의 화신이셨지만 인간으로서는 지혜 안에서 성장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낮과 밤을 말씀으로 존재하

도록 하신 분이 지만 새벽이 오시기 전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루시퍼를 셋째 하늘에서 내쫓으셨으나 인간으로서는 루시퍼의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아담에게 생명을 넣어주셨으나 인간으로서는 자신의 영을 아버지 품에 맡기셨습니다.

이번 서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간략히 살펴보려합니다. 이는 골로새서 1:12-22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였노라.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 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셔서 아들과 연합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피를(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보이지 아니한 것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좌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그분의 권능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지 않았으면 죽음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에 가능함)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

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바라보면 그분이 죽음을 이기신 그 육신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하셨으니”

복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적 모든 진리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수많은 공격이 있었고 동시에 그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은 가장 큰 죄로 여겨져 왔지만(빌3장, 딤후1장),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부터 존재했던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계속 존재해 계신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을 “속이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규정하고 계십니다(요일4:2-3).

교회시대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왔던 것처럼,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위대한 진리의 항해를 시작하여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오셨으며 지상에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고찰하고 이를 통해서 주님의 영원한 축복을 향유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사 우리가 당신을 보다 완벽히 이해하고 더 완전히 사랑하며 당신을 뜨겁게 경배하며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하신 주님을 곧 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1장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됨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딤후3:16).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많은 이단들과 자유주의 학자들이 제기한 비성경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교리를 지키려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서 항상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성경구절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하나님과 항상 영원히 존재한다는 성경적 진리를 반박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문자적 의미에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교회 설교와 성경공부에서 꾸준히 가르쳐 왔습

니다. 그분은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그분은 처음이며 끝인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요1:3).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교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지식은 부족한 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는 사실은 정말 위대한 신비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서 다양한 신비의 요소들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 위대한 신비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제시된 여러 신비들의 경우 설명이 곁들여져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의 경우 그 신비는 위대하고 말씀하시며 여전히 신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을까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당시에도 여전히 하나님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그 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었을까요? 그분이 하늘로 다시 돌아가셨을 때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을까요? 이런 질문들 대부분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교리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하늘과 땅보다 큰 존재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을 지라도, 이 사실에 동의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하시고 전능하다고 내가 말한다면 역시 여러분들은 큰 이견 없이 믿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어떤 위대한 능력을 말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을 연약한 존재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은 “말도 안 됩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말구유에 계셨으며, 우리 인간처럼 걸음마를 배우고, 교육을 통해 글자를 배우고 목수 일을 하셨으며 요한의 침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에 다소 의아해합니다. 심지어는 채찍질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음의 문턱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놓고 우리는 담담하게 인정하기 주저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위대한 신비인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5:7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 삼위일치 진리에 대해 우리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요1:14).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절대 말씀(Word)이 하나님으로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근본의 신성은 영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I AM THAT I AM)”라는 선언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자신이 설명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으셨다고 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절반은 하나님이고 나머지 절반은 인간인 형태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과거에도 하나님이었고, 현재까지도 하나님시시며 영원토록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라는 한 처녀의 자궁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지라도 진리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 말씀하시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태양과 달 그리고 별을 만드시고, 동산에서 첫 인간을 창조하신 사실도 거듭난 우리들은 어렵지 않게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

신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요21:25).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아이로서 기어 다니셨으며 어머니 곁에서 언어를 배웠다고 상상한다면 여러분 안에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잠시만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아니 우리는 심지어 이런 걸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제에 대한 설교를 잘 들어보지 못했고 성경공부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분이 베들레헴 구유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이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살 때 부모와 함께 이집트로 이주했을 때도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열두 살 때 학자들을 가르쳤을 때도, 청년 시절 요셉의 목수 일을 배웠을 때에도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작고 약하게 그리고 인간 생활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지상에서 육신의 모습으로 계실 때 하나님은 즐기도 하였고, 배고픔과 갈증 그리고 외로움의 감정까지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깊이 있게 고찰해 보겠습니다. 성경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대화했던 하나님, 다윗이 기도했고, 여호수아가 섬겼으며 다니엘이 순종했고 사무엘이 예배했던 그 동일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이 지상에서 인간으로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필요를 훨씬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욕이 갈망했으나 볼 수 없었던 그리고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으나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인생의 고통을

너무나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성도들은 먼발치에서 하나님을 보았으나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대제사장이 존재했으나, 우리는 현재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연약한 감정을 친히 경험하신 대제사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모든 시험을 당하시고 그러나 죄 없으신 그분을 우리는 의지하고 경배하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보다 현재 인간의 필요를 더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며 이를 통해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제를 소개하면서 성경 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모테전서 2:5입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아담과 십자가 사건이 있기까지 4,000년 동안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고 인간은 땅에 있었으며 이 둘은 서로 교제가 없었습니다. 얼핏, 다소 부정확해 보이지만 이것은 구약시대의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임을 곧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들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이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인간으로 하늘 왕좌에 계신 그분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 두 가지 대상을 인간의 모습 안에서 결합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에게 오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고후5:19).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요14:6).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한 인간, 하늘에 계신 인간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는 과거에는 없었던 사건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사

건이 어떻게 발생했으며, 왜 생겼는지, 구원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현재 사람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영원에서 그것인 어떤 의미인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라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분적인 사실에 불과합니다. 만일 주님이 우리의 범죄에 대한 속죄를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다고 말한다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완벽한 것도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3:16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올바르게 그리고 완전히 이해하려면 성경을 펴서, 성령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어떻게 의롭다고 선언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서 3:23과 요한복음 1:14을 서로 비교하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¹⁾ 이 구절은 동일한 것을 두 가지 다른 표현으로 기술한 것 같으나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절 안에 두 가지 단서가 있는데, 하나는 쉼표(comma)이며 다른 하나는 “그리고”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서는 두 가지 독립된 진리가 하나의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논점은, 인간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이며 이 사실이 두 개의 진리를 통해서 입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 역자주 : 원문 KJV(1611)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직역한 것이다. 흠정역 한글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되어 있다.

예컨대 어떤 근로자가 금요일 오후 사무실에 들어가 직장 사장에게 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장비서는 자리에 없고 사장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긴급히 의논할 일이 있기에 혹시라도 사장을 찾을 수 있을까 하고 창문 밖을 보다가 사장의 책상 위에 있는 현금뭉치를 발견합니다. 마음 속에선 “이 돈, 조금은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목소리가 자기도 모르게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러한 행동은 자신이 믿는 성경 가르침과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이 사람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돈을 훔치는 건 옳지 않아. 그런 행동을 해선 안 되잖아.” 곧이어 다른 어떤 생각이 찾아옵니다. “아무도 모르잖아...”

한데 이 순간 즉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고, 결국 그 돈을 취하지 않고 사무실을 무사히 빠져 나왔습니다.

훔치는 것은 죄입니다. 그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들의 활동**”(롬7:5) 그리고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난 “**육신과 생각의 욕망**”(엡2:3)을 통해서, 그 사람이 비록 범죄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타락한 창조물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르게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성경을 읽고, 올바른 음악을 들으며, 유혹을 이겨내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범죄로부터 벗어난 삶을 사는 최선의 상태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함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어떠한 시도조차 없어야 합니다.

정직하게 말해, 우리는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죄를 짓지 아니하면 이는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극복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일

죄를 범치 않았다면 그 순간 죄에 대해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이다.”(시39:5).

다음으로 요한복음 1장의 처음 3절을 읽어봅시다. “처음에 말씀(the Word)이 계셨고” 여기서 말씀은 영어로는 대문자로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5:7에서 하나님의 신격의 둘째 형상을 지칭하는 이름을 본 적이 있습니다.²⁾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말씀”은 창조주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4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에 접하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처음에(창1:1) 계셨던 창조주가 육신이 되셨다. 모든 것을 만드신 그 분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성경구절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모든 인간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경이로운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인지했을까? 예술가들은 인간적이고 모순된 생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머리 위에 그려진 빛나는 원형 광채를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이라 짐작하였습니다. 또 다른 화가들은 예수님 주위에 빛나는 광채를 통해 그분의 영광을 묘사하려 하였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2) 성경 말씀을 지칭할 때는 항상 소문자로 쓰이며 대문자로 표기된 말씀은 항상 주님의 인격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사촌인 침례인 요한의 간증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삼십년을 육신으로 사신 예수님의 삶을 지켜본 요한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요1:30). 그러나 요한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기 전에는 그 분이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 하니라”(요1:31). 만약 어떤 사람이 네온처럼 휘황찬란한 불빛으로 옷 입고 나타나면 당연히 그를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기독교 영화도 이와 같은 식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에 TV에서 방영하곤 했습니다. 요즘엔 이마저도 보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물론 모하메드나 산타크로스나, 그 밖의 다른 거짓 종교지도자보다는 훨씬 멋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영화에서 보여주었으나, 여기에는 잘못된 것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영화들에서 예수님께서는 멋있는 갈색 옷을 입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푸른색 띠를 두른 흰색 옷을 입으셨습니다.³⁾

예수님의 영광을 묘사하고자 한 이런 모든 시도들은 그분의 겉모습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14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의 영광은 그분의 말씀과 행한 사역 안에 나타납니다. 다른 인간들

3 가톨릭 영화에서는 마리아가 흰색 옷을 입은 것으로 나타냈다.

과 달리 예수님은 결코 죄를 범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지 못한 적도 없습니다. 그분은 은혜로 충만하신 분이며 완전한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완벽하고 흠없는 거룩함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아이였을 때에도 흠이 없으셨습니다. 십대에서나 젊은 시절에도 예수님은 정결하고 순수하셨습니다. 성인시절 그분의 생각, 감정과 언행에서도 완벽하고 의로우셨습니다. 인생의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죄인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사실 성인으로 와서 짧은 기간만 세상에 사시며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실 수도 있었습니다. 지난 4천년 동안 여인의 모든 자손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었으며 그분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역하였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양심은 “이것은 공평하지 않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어.”라고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한 인간으로의 삶을 사시면서, 고통과 죄로 가득한 현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히 이르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이사야 53:1-2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타난 육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여러분이 만일 농부로서 작물을 재배해서 곡식을 거두려고 한다면, 토양이 반드시 비옥해야 함을 잘 알 것입니다. 씨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최상의 씨라도 척박한 토양에 떨어진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

다. 만일 씨가 마른 땅에 뿌려진다면, 그 씨는 충분한 물과 영양분을 공급 받지 못하고 결국 말라 죽게 됩니다.

성령님은 위와 같이 묘사하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모습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와 반역 그리고 사악함으로 가득한 세상에 모든 덕과 고귀함과 순수함 그리고 사랑을 소유하신 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 연약한 초목이 마른 땅에 심겨져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위대한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모습에 대한 성경구절은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씀하신 하나님의 인간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에 외모에 관한 한 아름다운 점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건물이나 찬송가 표지에서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와 정반대로 매우 아름답고 긴 머리를 날리는, 여성스런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그분의 겉모습은 명백히 유럽인 같으며, 오뚝한 코는 로마인의 모습을, 푸른 독일 사람의 눈을 하고 있어서 모든 여인이 흠모할 형상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예술 작품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아름다운 외모를 흠모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그분의 진짜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예수님의 외모에는 우리가 흠모할 점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지상 사역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뒤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의 사역에 동참했으며, 그분의 발아래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바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그분을 위해 살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신비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소 조심해서 이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결코 독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광고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 상품에 관심을 가지도록 합니다. 상품의 아름다운 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광고에는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영상과 인터넷이 판을 치는 요즘 시대에는 외모가 출중하지 못한 가수나 음악가는 명성을 얻기 힘듭니다. 정치계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팽배해 있습니다. 대중은 보통이나 평균 이하의 외모를 소유한 사람들을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그 어떤 외양에서 풍기는 매력이 없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만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28:1-4을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을 네게로 취하여 그가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지니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취할지니라. 너는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의복들을 만들어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삼을지니라. 너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 곧 내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한 모든 자에게 말하여 그들이 아론의 의복들을 만들어 그를 거룩히 구분하게 할지니 그리하여야 그가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리라. 그들이 만들 의복들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겹옷과 수놓은 속옷과 관과 허리띠니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의복들을 만들어 그가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지니라.”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평범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선택하셔서 그분의 임재 앞에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론의 외모가 출중해서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 그를 아름답게 만드신 것입니다. 아론의 외모를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그를 영광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이 영광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거룩함입니다. 이런 거룩함의 장식들이 결국 그를 아름답게 보이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 시대로 되돌아가서 그분을 바라본다면, 그분의 외모에서는 그 어떤 매력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그분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 그리고 자비와 긍휼로 충만하신 분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분이 점도 흠도 없으시며 순결하신 분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마음속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외칠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우시며 사랑스러운 그분을 내가 어디든 따라가겠다.” 라고 말입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하나님을 보내시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분은 성령님으로부터 온 아름다운 열매인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와 절제를 친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간음, 부정함 그리고 속임수 등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은혜와 진리로 풍성한 주님이 사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어디든 따를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어디에서든 우리가 만날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한 그분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그 어디에도 예수님의 외모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에 여러분은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체형이 뚱뚱한지 마른 편인지 혹은 키가 컸는지 작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추측을 하지만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인간이 예수님의 형상이나 그림 등을 만들어 경배 받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주님

이 행하신 아름다운 행적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만지기 싫어했던 나병환자를 닦아주셨고 들판의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던 여인들에게 친절을 베푸셨습니다. 또한 어린 아이들과 고아 그리고 과부들을 돌보셨으며 장님과 굶주린 사람들과 불구자들에게 많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없을지라도 그분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만납니다. 성경 모든 곳에서 우리는 아름다우신 그 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을 바라봅시다!

이제 갈라디아서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말하노니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아이일 때에는 전혀 종과 다르지 아니하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모든 것의 주인이 이 지상에 오셨고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요한복음1장) 그분께서는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가르침에 복종하셨습니다(눅2:51).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바로 그분께서 모든 율법의 명령 아래 멍에를 지고 그 명령에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가정교사들과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느니라.**”(2절). 왕자가 왕이 되고 견습공이 달인이 되는 정한 날이 오는 것처럼, 주 예수그리스도가 이 지상의 모든 왕들의 왕과 주들 가운데 주로서 통치할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그분 자신이 인간의 명령, 세상의 법(마22:17-22)과 종교적 규범(마17:24-27), 타락한 인간의 모함(요18:12) 그리고 불의한 법정의 결정(눅23:16-24)에 복종하는 모습이야말로 위대한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 원리 밑에서 속박당하였**

느니라.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3-4절).

인간의 모든 역사와 세대들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모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시간이 되어 죄인들의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논의할 중요한 세 가지 진리를 간략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1.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창조하거나 만들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을 보내셨습니다.
2.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초자연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시기로 결정하신 이상, 여자의 자궁에서 형성된 몸의 과정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따라서 출생하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모두 보유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에녹, 노아, 아브라함들에게 나타나신 모습과는 다른 인간의 모습으로 지상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3. 율법 아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율법의 명령을 무시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주님으로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합당한 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하늘이나 지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히10:7).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기쁨을 두셨습니다(시40:8).

셋째 진리에 대해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던 인간을 구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갈4:5)은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율법 아래에서 완벽히 그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죄를 지었다면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은 되지 못하셨고 오히려 자신의 죄로 인해 죽으

셨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단 한 순간이라도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면 희생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한 희생제물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말씀이 예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인간의 모습을 사셨기에 우리의 범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고전5:7).

이스라엘 자손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생활을 하였습니다. 파라오는 그들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기적을 통해서도 그들을 자유롭게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자신이 이집트 땅을 지나가시며 모든 집의 처음 난 자를 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들의 문기둥에 어린양의 피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위를 지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피를 통해서 그들은 죽음과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이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그림자가 현실이 되기 위해선 무언가가 더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12:1-13을 차분하게 읽어봅시다.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십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그 어린양에 대하여 집안사람이 너무 적으면 그와 그의 집의 이웃이 혼들의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는 양에 따라 그 어린양에 대하여 계산할지니라. 너희의 어린양은 흠이 없고 일 년 된 수컷으로 하라. 너희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것을 취하고 같은 달 십사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저녁때에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 그들은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의 양옆 기둥과 위의 문기둥에 뿌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의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들을 주의 깊게 살펴봅시다. 어린양을 죽여서 피뿌리기 그 이전에 무엇인가 먼저 해야 할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양이 먼저 흠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만 했습니다. 만일 그 어린양에 흠이 발견되면 거룩한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무 어린양이나 취하지 말고, 그 어린양이 흠이 없고 순결한지를 살피도록 지시하셨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벧전1:18-19). 아무 양이나 필요한 것이 아니라 흠과 점이 없는 어린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인류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어떤 한 인간이 아닌 죄 없는 인간만이 전체 인간을 대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사신 이유를 여러분은 이해하십니까? 그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지상에서 사셨으나 흠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께서 죄인들과 함께 지내셨다(눅7:34). 육신의 모습으로 타락한 인간 속에서 사셨으나 그분

은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셨고 모든 일에서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않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약1:27).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 이전에 삶의 과정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기에, 그분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모든 인류의 대속을 위해 출생부터 죽음까지의 과정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이 단어도 적절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어린양이 아닌 흠이 없고 죄 없는 어린양이었던 것입니다.

유월절에 필요한 어린양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말라기 1:6-8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목이 곧은 백성을 책망하십니다. “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니 그런즉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리고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니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상은 업신여겨도 된다, 하는 점에서 그리하였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눈먼 것을 희생물로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네 총독에게 드려 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네 외모를 용납하겠느냐?” 영광의 주님께서는 경배하는 자들에 대해 화가 나셨고 그분께 희생제물을 바치는 민족들에 진노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바친 양은 흠이 있었고 더럽혀진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럽혀진 희생제물은 그것을 바친 타락한 인간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어둡고 악한 세상에서 사신 것입니다. 마침내 그분은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

니다.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못 박히시기 이전에 그리고 우리로 인해 죄가 되시고 이 지상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온 세상의 죄로 인한 그분의 대속물이 올바른 것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주님 자신에게 물어보고자 합니다. 잠언 14:5에서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나”라고 말하며 요한계시록 1:5에서는 “신실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임을 알고 있습니다(딤후1:2). 그러므로 이제 그분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28-29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그인 줄을 알며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이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하므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리라는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분이 율법 아래 놓이신 바 율법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때에 한 증인이 일어나서 어떤 불법이나 죄에 대해 그 사람을 대적하지 말며 두 증인의 입의 증언으로나 세 증인의 입의 증언으로 그 문제를 확정할 것이니라.” (신19:15).

예수님을 증오하고 질투로 그분을 파멸시키려 했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약점을 발견하려고 그분의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이나 인간의 율법에 어긋나는지를 철저히 파헤쳤습니다. 결국 그들이 주님을 법정으로 데려와서 행한 일들이 마가복음 14:55-59에 기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때에 한 증인이 일어나서 어떤 불법이나 죄에 대해 그 사람을 대적하지 말며 두 증인의 입의 증언으로나 세 증인의 입의 증언으로 그 문제를 확정할 것이니라. 이는 그분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그분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며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할 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오히려 그들의 증언도 그렇게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더라.”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 세력의 대표인 빌라도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고” (눅23:4). 이스라엘 사람들은 빌라도가 좀 더 자세한 조사를 하도록 요청했으나 빌라도는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내게로 데려와 백성을 나쁜 길로 이끄는 자라 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그를 조사하였으되 너희가 고소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 내가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고” (눅23:14). 끊임없는 사람들의 요청에 시달린 빌라도는 예수님께 왜 이렇게 의로운 사람을 증오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하고 돌아와서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다.” (눅23:14). 예수님의 피를 요구하는 그들의 요구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다시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를 데리고 너희에게로 나오나니 이것은 내가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함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요 19:4).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인간이므로 표면적인 삶 이상을 통찰하지 못하고 인류를 구속해 줄 그분을 무시했다고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

기서 예수님의 지상 사역 기간에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모든 시련과 고통과 기쁨에 동참할 제자를 선택하는 과정과 관련된 하나님의 충만한 계획에 대해 다소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특이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 가운데 다름 아닌 가롯 유다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열둘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의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니라.”(요6:70).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기 때문이니라. 그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못하느니라.”(요 14:30). 그러나 공중권세의 통치자에 속한 그 마귀라 지칭되는 유다가 사람의 아들에 대해 말한 것을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 지도자들과 빌라도는 그 어린양이 흠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다가 말한 내용을 아래서 살펴봅시다. “그때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그분께서 정죄 받으신 것을 보고 뜻을 돌이켜 은 서른 개를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 죄를 지었노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거늘 유다가 그 은들을 성전에 내던지고 떠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니라.”(마27:3-5). 유다는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주님, 일반사람들, 종교와 정치지도자들,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마귀마저도 예수님을 면밀하게 조사했으나 아무런 흠과 죄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경이와 두려움 가운데 가장 완벽한 조사의 결과를 살펴볼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이 분의 모든 삶을 돌아보고 판단을 내리셨습니다.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으시다.” 우리는 다시 디모데전서 3:16로 돌아가 보

졌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성령님이 인간이신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시고 그분을 의롭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어린양은 합당한 희생물이었습니다. 그 피는 모든 사람을 구속할 수 있다. 그 헌물은 하나님의 기준에 만족하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것은 사실이나 그것만이 오신 이유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면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처럼 시험당하셨으나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하시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시며 죄 없는 삶을 통해서 죄인의 자리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 사람(the Man)을 바라봅시다!

제2장

처녀 탄생(Virgin Birth)

예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에 관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사람한테 처녀 탄생이라는 교리만큼 어려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nothing)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권능으로 은하계를 포함한 모든 우주를 만드시고 흠으로부터 인간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납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적 기록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처녀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을 주저하며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위대한 권능의 역사를 기뻐하는 믿는 신자들의 경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위대한 사실을 경이롭게 받아들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 지상에 내려

오시고 영광의 주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의 여지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분은 여호와이시며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이로운 이 사실을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처녀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도 이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공부한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개신교나 복음주의 교단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처녀 탄생은 깊이 있게 논의되기보다는, 교리나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어떤 사실로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종교의 비성경적인 마리아 숭배사상으로 인해 보수적 혹은 근본주의 교단에 있는 신도들의 경우, 주님의 처녀 탄생에 관한 교리를 성경공부의 중요한 주제로 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이 경이적인 사건을 충분히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셋째 장에서 인간이 죄로 타락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금지된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롬5:12). 아담으로 대표되는 인류는(엡2:1) 아담 안에서 모두 죽었습니다(고전15:22). 따라서 인류는 타락 시점에서부터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죄를 지었고 하나님만이 용서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고전15:21), 구원과 생명도 사람을 통해서 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우리의 상황은 복잡해졌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로 더럽혀져 있기에 아담에서 출생한 그 어떤 인간도 인류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담의 죄로부터 자유로운 한 분이 인간에게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과연 어떻게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인류의 첫 커플은 타락한 바로 그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그 날 서늘한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으매”(창3:8). 하나님이 경고한 대로 죽음이 그들에게 닥칠 것임을 믿은 그들은 자신들을 숨기게 되는데 이는 그들이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타락한 이 커플을 대신해서 무죄한 희생제물이 바쳐졌습니다. 그것의 피가 뿌려지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그들에게 선물로 제공하셨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으로부터 온 이 선물을 통해서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단지 죽음만을 초래했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확실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음을 당한 어린양”(계13:8).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라는 이 신비가 모든 예언의 시작이 됩니다. 에덴에서 인간이 참담하게 타락한 이후, 주님은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구원을 제공할 방법을 궁극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3:15에서 주님은 간교한 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구절은 뱀의 씨와 여자의 씨가 벌일 전쟁의 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살아있는 모든 인간은 그리고 과거에 살았던 모든 남녀노소 가운데 한 사람만을 제외하고 아담의 씨에서 출생했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영과 혼과 육체를 가진 한 인간이 하나님의 신비를 통해서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미래의 어느 한 날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아담의 씨로부터가 아닌 여자의 씨로부터 한 인간이 이 세상에 오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정말로 위대하고 신비스러운 약속 아닙니까!

모든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결국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 죄로부터 무관한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며 그 영광을 충만히 보여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15절에서 두 번째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너(뱀)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IT, 영문단어를 주목하자)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이 특이한 구절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길 기대했습니다. “그는(HE)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문법상으로는 3인칭 남성 대명사 “그(HE)”가 와야 할 것 같으나, 주님이 말씀에서 주신 것은 지시대명사 “그(IT)”이며 이는 위대한 신비입니다. 한 인간이 예비되었다고 말씀하셨으나, 그것(IT)이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대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한 인간이 인간의 씨 밖에서 태어났으며 그것(it)은 뱀을 부술 것입니다.

자, 이제 이사야서로 가 봅시다. 몇 세기가 흘러가도 여자의 씨에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잊어버린 것일까요? 3,300년간의 사탄의 잔혹한 통치가 진행되었고 이 죽음과 파멸의 시

대를 되돌릴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분의 약속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소망을 더욱 확고히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7:14에서 그분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폄하하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의미를 바꾸려고 시도합니다. 만일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인간을 하나님께서 의도했다면 지난 수세기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처녀의 몸에서 한 인간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이는 아담의 씨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남자를 알지 못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 예언은 인간의 생식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님을 명백히 말씀하고 계신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에서 나온 그 어떤 인간과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 예언을 믿기 힘들지도 모른다. 혹은 이 진리의 선포를 거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신비는 이보다 더 명확히 설명될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 기적으로 탄생한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이 이름의 온전한 의미를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이 약속을 이사야서 9:6-7에서 다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이, 조연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

의 주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리라.”

이 예언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진리가 발견됩니다. 무엇보다도 만일 여러분이 오늘 배달된 조간신문에서 출생에 대한 기사를 읽는다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김 선생과 그의 아내에게서 김아무개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정상적인 아이 출생에 관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오늘 조간신문에서 “김 선생과 그의 아내가 오늘 우리에게 한 아이를 주었다.”라는 기사를 본다면, 다소 당황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부부가 아이를 얻은 것입니다. 그 부부의 부모를 포함한 모든 친척들은 기뻐할 것이나 우리가 그 아이를 얻었다고 온 나라에 선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아이가 모든 사람에게 태어날 것임을 미리 말씀하는 출생신고가 여기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 혹은 요셉과 마리아에게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한 아이의 존재를 미리 축하하는 선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아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진리만을 선포하는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이가 다름 아닌 전능한 하나님이시며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녀의 자궁에서 형성되어 한 아이의 형태로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다.”고 이 예언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 예언의 세 번째 요점이 있다. 이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그분의 권능의 충만함이 나타나실 때, 태어난 이 아이는 그분의 아버지 다윗의 왕좌에 앉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계시된 말씀들에 의해 대언자들이 당혹스러웠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벧후1:10-12).)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나

타난 한 아이를 보게 됩니다. 이 아이는 위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아이는 하늘 왕국의 왕좌를 취하고 예루살렘에서 통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온 이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의 왕좌를 차지하면 다시는 그것을 내려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왕국의 왕좌를 영원히 차지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위대한 예언이며 더 깊게 살펴봐야 할 내용이 많지만 다음 약속을 살피기 위해서 미가서 5:2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아오리라.”** 이 구절의 정확함은 매우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에 대해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베들레헴이 어느 지역에 있는 도시인지를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이 에브라다에 있는 자신의 고향을 여행하기 700년 전에 이미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장소가 예테에서 아담에게 약속했던 그곳임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베들레헴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그 구절에 제시된 진리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지상에서의 이 아이의 출생은 미리 예언되었습니다.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이것은 일반 아이의 출생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에게는 남성과 여성의 성적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시점이 존재합니다. 임신을 하고 몇 달 뒤에 아이는 태어나고 그날이 아이의 출생일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미가서를 통해서 지상에 온 이 아이는 여자의 자궁에서 형성되기 이전부터 존재했고, 그의 삶은 영원부터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다 선명한 예언적 계시의 흐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처녀가 왕이 되실 한 아이를 출생했고, 이 아이는 영원부터 존재했으며 다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아이는 영원토록 존재하며 그분이 오신 목적은 두 가지로 서로 다르지만 연관이 있습니다. 즉 뱀의 머리를 부수기 위해서 그리고 다윗의 왕좌 위에서 영원히 통치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가서에서 말씀하신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라는 구절은 하늘을 떠나 에덴에서 걸으셨던 분(창3:8의 ‘주님의 음성’)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이 지상에 오셔서 가인을 대면하고, 에녹과 교제하고, 노아에게 경고하며, 아브라함과 식사하며, 야곱과 씨름하고 여호수아와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혹은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날 그 아이인가요?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 곧 배울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에서 기존의 예언을 부정하는 듯한 선언을 접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는 확실히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2:34-40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비록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내 오른손의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빼내어 네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얼굴을 가진 자들의 손 곧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또 내가 너와 너를 낳은 네 어머니를 다른 나라 곧 너희가 태어나지 아니한 곳으로 쫓아내리니 거기서 너희가 죽으려니와 그들이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그 땅으로 거기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멸시받으며 부서진 우상이냐? 그는 아무 기쁨도 없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들이 쫓겨나되 곧 그와 그의 씨가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쫓겨났느냐? 오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주의 말을 들을지어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을 자식이 없는 자, 자기 날들에 형통하지 못할 자라고 기록하라. 그의 씨 중에 형통하여 다윗의 왕좌에 앉아 유다 안에서 다스릴 자가 다시는 없으리라.”

이 심각한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긴 성경구절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으로부터 솔로몬까지 예루살렘 왕좌에서 다스린 사람들의 계보에는 끊기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성경구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 그들의 계보를 끊어버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계보에서 나온 그 어떤 인간도 다윗의 왕좌에 앉을 수 없었습니다. 한때 하나님은 이 계보로부터 나온 사람이 다윗의 왕좌에서 영원히 통치할 것이라 예언하셨으나, 이제는 그 씨로부터 나온 그 누구도 다윗의 왕좌에 앉아 유다를 다스리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고 불법을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간이 다윗의 계보에서 나오긴 하지만 그분의 씨는 그 인간의 혈통에서 나오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고니야 계열에서 나와야 되지만, 그 씨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욱신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통해서 다윗의 왕좌에서 누군가가 나와야 되었으나, 그 욱신의 어머니는 처녀여야 했으며 아이의 잉태는 초자연적인 형태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신약성경을 살펴봅시다. 우리는 창세기 3:15의 수수께끼를 풀 준비가 돼 있습니다(그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마태복음 1:18-23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에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뱐 것이 드러나매.”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상태였으나 서로 육체적 관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

하신 방법입니다. 결혼을 통해서만 한 남자는 다른 여자의 몸을 접촉 할 수 있습니다(히13:4, 고전7:1). 그러나 마리아는 아이를 잉태하였습니다. 이 당시 이런 상황은 매우 심각한 불결한 행위로 여겨질 때였습니다. 타락한 현대 기준에는 아무 일이 아닐지 몰라도,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 것은 결혼의 순결을 위반한 심각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매우 특이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아이를 잉태하였으나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하나님이 남자를 사용하지 않고 마리아의 자궁에 새로운 생명을 넣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건은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일이지만, 주님께서는 4,000년 전에 이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때에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으나.” 그는 더러워진 여인과 결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과 요즘의 타락한 현재 상황이 얼마나 다릅니까!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기에, 그녀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대신에 조용히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것은 왕좌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일 그 아이가 요셉의 씨로부터 나왔다면 그 아이는 다윗의 왕좌를 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네 아내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수태라는 것은 여자의 자궁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리아는 성경의 모든 정황상 임신하였으나, 요셉이나 다른 남자로부터 씨를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으로부터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마침내 죄인들의 구원자가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한 여인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분은 한 여인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잉태를 통해서 아이로 출생하시고 부활하신 삶을 사신 완벽한 인간의 모습이셨습니다.

“이제” - 그 때가 온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 이것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 오랜 기다림은 끝이 나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보라” ? 경외하며 주의 깊게 살펴봅시다.

“처녀가 아이를 배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 이것은 수세기 동안 성경에서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그분의 이름을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한 처녀에 의해 잉태되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계시된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또한 마리아도 이 엄청난 사건의 의미를 알고 있었을까요?

마태복음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많은 성경학자와 학생들은 이런 세부적인 면에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예수’란 이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와 그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묘사

는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 전인 구약에선 그분의 인간 이름인 ‘예수’에 대한 언급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며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진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께서서는 100% 하나님인 동시에 100% 인간인 존재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이시기에 진정한 인간의 삶을 사셨고 동시에 하나님으로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죽으셨으나 아담의 씨가 아니셨기에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해 죽을 수 없으셨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26-33을 살펴봅시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나사렛이라 하는 갈릴리의 도시로 보내어져서 다윗의 집에 속한 요셉이라는 이름의 남자와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렀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그 천사가 들어가 그녀에게 이르러 말하되,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니 네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하매 그녀가 그를 보고 그가 하는 말에 불안해하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인사인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니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네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한 인간으로 오실 분에 대한 모든 예언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녀 탄생은 이사야 7장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왕좌에 대한 내용은 이사야 9장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내용은 창세기 3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영원한 존재에 대한 내용은 미가서 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고니야(Coniah) 계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여야만 한다는 내용이 예레미야서 22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하매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네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네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thing)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성경을 반박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들며 분노를 표시합니다. ‘어떻게 감히 성경번역자들이 예수님을 그것(a thing)으로 번역했는가?’ 그들은 이것이야말로 신성 모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만이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교리를 유지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째 약속을 성취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선 우리는 타락과 우상으로 점철된 거대한 한 종교에서 영원한 한 처녀를 영원한 왕좌에 앉히고 상상 속의 예수님 모습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을 심각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 종교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 칭하지만 이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시작이 없으신 그 자체가 시작이신 알파(Alpha)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자궁 안에 그것(a thing)이 형성되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것은 한 육체이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그 육체의 어머니입니다. 마리아는 그 하나님이 거하실 그 육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그 몸을 입고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사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럼 처녀 탄생이 왜 필요했을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고전15:22) 그 이유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롬5:12). 따라서 본성으로 인해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전7:20). 성경은 아담의 자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들은 태에서부터 떨어져 나갔으니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길을 잃고 거짓을 말하는도다.”(시58:3).

사실 성경에서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히13:4)라고 말씀하시며 인간의 타락 이후 인간의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시51:5). 따라서 모든 인류는 다음과 같은 상태이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엡 2:3).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그 몸을 여자에게서 취했으나 아담의 본성이 아닌 하나님의 본성을 지닌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몸으로 하나님은 뱀의 머리를 부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 우리의 죄를 짊어 지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 몸을 지닌 채로 육신이 우리의 죄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영으로서 하늘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창세기 3:15에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려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서 “그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영원한 영(spirit)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그로 인해 육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영적 탄생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신비 아닙니까!

히브리서 10:1-10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4,000년 인간 역사를 통해 모든 인간이 바친 희생제물과 짐승의 피와 그들의 경배는 그 어떤 인간의 죄도 제거하지 못하였습니다. 단 한사람의 혼도 이런 제물과 경배로 완전케 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혼을 구원하는 데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따라서 그 답은 또 다른 동물이나 금식이나 종교 혹은 거룩한 행위가 아니라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다면 미리 그것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인간의 헌신이 진정이건 아니건 간에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 공의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살아있는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나 마태복음 25장에서 타락한 존재에게 주님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장소들은 특정 존재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전부터 존재했던 한 인간의 모습(하나님의 아들)이 거주할 몸을 예비하셨다고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로 인한 번제 헌물과 희생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 때에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며,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느니라.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 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하셨는데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며,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리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창세기 3:15에 예언된 뱀의 머리가 어떻게 부서질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짓값을 지불하기 위해 사용하려고 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거룩한 것, 한 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그리고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에 주목합시다. 그분 자신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의 삯으로서 자신이 죽으시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며 사탄을 파멸시키고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이해합시다.

따라서 그분은 예수님(인성)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신성)인 한(one) 존재인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사실 아닙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에서 읽고 마음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은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진리입니다.

이제 빌립보서 2:5-11에서 이번 주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므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하나님의 형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이처럼 아버지와 영원히 같이 존재했습니다.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즉 그분은 자신의 본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모습만 바꾼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처럼 보이는 하나의 형체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창세기에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시며 아들하나님과 주님의 음성으로 묘사된 하나님은 창세기에 나오나 아직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알파이며 오메가(Omega)이시고(출애굽기) 동시에 전능자이십니다(레위기). 그러나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빌립보서 2:10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의 의미가 보다 명확해집니다.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죄를 짓지 아니한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며 또한 자신들의 무릎을 그분 앞에 꿇을 것입니다. 유혹이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신 그분 앞에 경배를 드릴 것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분 앞에 경배를 드릴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명령을 모두 지키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불평한 모든 사람들은 모

든 명령을 지키신 그분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훨씬 위대한 한 인간 앞에 경배를 드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 “나는 사람들에게서 존귀를 받지 아니하노라.”(요 5:4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그분은 모든 인간으로부터 경배를 받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2:11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모든 허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결국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모든 인간보다 훨씬 뛰어났다는 사실을 인간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분은 죄 없으신 인간인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에 대한 이 사실을 지금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되거나 아니면 나중에 흰왕좌심판에서 이 사실을 시인하고 영원한 불 호수에 던져질 것입니다.

성경은 “주(그분의 신성) 예수(그분의 인성) 그리스도(죄인들의 구원자)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녀 탄생이라는 주제는 교회의 교리적 법규의 한 조항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해주신 첫 약속의 영광스러운 성취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분의 심판 날에 모든 인간이 말하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거듭난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시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더구나 이 사실을 믿으면서도 왜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아니겠습니까. 이 위대한 진리로 인해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기뻐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고 사람의 아들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제3장

영광가운데 죽으신 사람의 아들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며 사셨다는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그분은 죄를 짓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면에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의로움을 통해 그분은 받으실 만한 희생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하나님의 어린양이 아닌 점과 흠이 없는 그분의 어린양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변화산 사건(transfiguration)에 대한 성경적 해석으로부터 출발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보수적 사역자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젊어서 이 변화산 사건을 설교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의 지상왕국에 대해 열변을 토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변화산 사건에서 주님께

서 영광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오시고 그 광경을 곁에 있던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구절에서 우리는, 더 주의 깊은 고찰을 통해서 전혀 다른 진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21-22를 읽어 봅시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그때에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주께 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거늘.”

그리고 마태복음 17:1-2를 살펴봅시다. “옛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매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언하신 지 7 일째 되던 날 그분의 변화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8:31-33을 살펴봅시다. “또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되 드러내 놓고 그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거늘 그분께서 돌이키사 자기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인간은 고통을 피하고자 하며 자신이 사랑하는 것들을 잃고자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고통 받고 죽기까지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품위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러하듯이 예수님의 이런 예언에 정중히 반대하는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반대하였으나 이것은 주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구원 계획에 대한 베드로의 반대는 자신의 선한 마음의 동기에서 출발했으나 이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친구와 제자로서 보통 인간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들을 표현했으나, 그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선한 양심을 가진 좋은 인간이었으나 구약에서 계시된 진리를 놓치고 있었기에 예수님께 책망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9:2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새 뒤에(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만남)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높은 산으로 이끌고 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매**” 우리는 두 번째로 변형산 사건이 주님의 예언된 고통 및 죽음과 관련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22-25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일으켜지리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 곧 그는 그것을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버림을 받으면 그에게 무슨 이득이 있느냐?**” 예수님은 자신이 죽고 인간이 사는 것이 더 좋으며 사람의 혼을 얻는 것이 온 세상보다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명백히 지상왕국을 세우려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죄인들

을 구원하려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9:28-31을 살펴봅시다. “이 말씀들을 하신 뒤 여드레쯤 되어(우리는 세 번째로 예수님이 자신이 받을 고통과 죽음을 말씀하시고 7일 뒤에 변화산 사건이 발생했음을 듣게 됩니다.)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취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더라.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희게 되어 눈부시게 빛나더라. 보라, 두 사람이 그분과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더라.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앞으로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ACCOMPLISH) 할 그분의 별세(그분의 왕국이 아닌)에 관하여 말하였으나”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의 세 가지 설명 가운데 첫째로 살펴볼 사실은 그분이 이 세상에 왕국을 건설하여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정부를 세우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 그 자체입니다.

둘째 사실은 그분이 미래에 이루실 그분의 죽음을 율법의 창시자이시며 예언자 그리고 메시아로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루실’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봅시다.

장래 어느 날 의사가 여러분의 가족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지 모릅니다. “심장에, 콩팥에 그리고 폐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우리는 최선을 다했으나 환자를 회복시킬 수 없었습니다.”라고요. 다른 가족들에게 “그녀가 최선을 다했으나 결국 실패했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주님을 볼 것이라 믿는 우리들조차도 주님을 오늘 보는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산 위에서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세 그리고 엘리야를 한 모임에 초대하셨습니다. 이 모임의 목적은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의 성취를 논의하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왕국을 건설하기 위함이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런 의도였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자 오셨으며 인류를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율법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완벽하지 못했고 모세는 다른 죄인들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3:23)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는 율법을 상징하고 있으나 그의 죽음은 타락한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 예언자를 상징하는 위대한 엘리야가 서 있습니다. 그러나 갈멜산에서 보여준 엘리야의 위대한 기적과 권능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죄인들의 구원에 대해 말할 수 있었으나,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율법(모세)과 예언(엘리야)은 요한까지이며, 구원의 은혜와 진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이 위대한 세 명이 서로 모여 주님이 성경에서 예언한 고난, 배신,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논의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그리 잘못돼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토론이었을까요! 율법에서 직접적으로 약속된 그리고 미리 보여주신 모든 일들이 예수님에 의해 성취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 구원에 대한 모든 약

속을 예수님이 마침내 성취하셨습니다.

인간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내어 놓은 것입니다.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 그리고 마귀조차도 그분의 삶을 취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분은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셨으나 죽음이 그분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들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한 자들은 깊이 잠드니라. 그들이 깨어나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눅9:32). 모세는 거기 있었으나 어떤 영광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속에 계신 그분과 같이 나타났을지라도 그 모든 영광은 그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단 한 분 만이 계신 것입니다. 변화산 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영광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공의롭고 순수한 완전함으로 충만했습니다.

“두 사람이 그분을 떠날 때에” 모세와 엘리야는 그 현장에서 떠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르기를, 선생님이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옵즉”(눅9:33).** 왜 베드로일까요? 모세는 돌판에 새긴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장본인이었고 파라오에 대항했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40년간,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끈 지도자였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나타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할지 모릅니다. 엘리야는 어떤가요? 바알의 선지자와 대적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하고 하늘로부터 불을 가져왔으며 그 민족을 회개케 한 인물이 아닙니까! 그런 인물이 보다 중요하다고 우린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베드로는 주저함 없이 여기 있는 것이 좋다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합리적인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베드로의 제안은 주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변화산 사건을 송축하려는 그 순간 모세와 엘리야를 주님과 같은 위치에 놓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은 죄인 가운데 가장 선한 그 두 사람에게는 너무 높은 자리인 반면 죄 없으신 그분에게는 턱없이 낮은 위치인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므로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서 두려워하거늘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더라. 그 음성이 지나가매 예수님만 홀로 보이더라. 그들이 그것을 비밀로 하고 자기들이 본 그것들 중 어떤 것도 그 당시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니라.”(눅9:34-36).

만일 여러분이 힌두교도라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나의 사랑하는 예언자들”이라고 말씀하셨으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이들 모두는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을 것이라 추측할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법에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자신의 아들에 대해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많은 인간 가운데 훌륭한 한 인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 그 누구보다 더욱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매우 기뻐하지 않으셨기에 모세가 우리를 위해 죽을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엘리야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성취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을지 몰라도,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아버지가 받으실 만한 합

당한 희생제물을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변화산에 나타난 그분만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다른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베드로후서 1:16-17에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는 보다 중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 줄 때에 교묘히 꾸며 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니라.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갈보리 산위에 서시는 그 날까지의 모든 여정은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고자 함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이 여정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베드로후서의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라는 구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에 답하기 위해서 두 곳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직전에 제자들과 식사하시는 그날 밤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공적 사역은 끝이 났습니다. 요한복음의 나머지 4장은 그분이 제자들에게 하신 가르침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들은 위로, 확신 그리고 소망으로 가득한 것들입니다. 이 신성한 모임이 끝나가고 주님이 겻세마네로 향하는 과정에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요 17:1-5)

이 중요한 구절들을 우리 주제에 국한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들하나님이 과거와 현재 존재하고 세상이 있기 전에 아버지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죄 없고 의로우며 거룩하신 존재입니다. 아들하나님은 하늘 왕좌를 떠나 처녀의 자궁 안에서 육체가 형성되었으며 한 여인에게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갓난아이에서 유아기를 지나 십대 그리고 청년기를 거쳐 성년으로 자랐으며 그 사역을 단 하나도 비밀로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33년 반의 인생을 마치시고 자신의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외치셨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소서.” 만일 다른 인간이 이런 말을 했다면 우리는 그를 거짓말쟁이나 불경스러운 자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충족시킨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시각에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인생에서, 아니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큰 시련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결코 죄를 아는 분이 아닙니다. 심지어 아주 작은 죄를 짓고 자 하는 마음도 그분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육체 안에 거룩하고 정결한 혼이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분은 죄인들과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도사에서 나와 갯세마네 동산에 이르러 무릎을 꿇었으며 아버지 하

나눔은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담고 있는 그 잔을 아들에게 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죄를 지은 적이 결코 없으며 앞으로도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저의 죄들을 자신에게 짊어지고 저를 대신해서, 제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늘 왕좌에서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을 때도 자신은 죄인이 되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분이 우리의 타락을 짊어지셨을 때도 자신은 타락하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불결함에 의해 더럽혀지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타락으로 고난 받으시는 그 상황에서도 자신은 타락하길 절대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죄 없는 희생제물로 드리고자 하셨는데 어떻게 인간의 죄를 짊어지면서도 죄인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믿음을 행사하시고 아버지에게 자신이 죽는 순간 그 영광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이 인간의 모든 죄를 자신의 육체에 취할 때 자신의 혼은 순결이 유지되도록 아버지께 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주님의 기도를 공부하면서 사람들은 히브리서 2:6-9로 향합니다. 이때 우리는 종종 여기서 주님의 지상 재림을 통한 지상통치의 개념과 혼돈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어떤 곳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 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 위에 세우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였으니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의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은즉 그의 아래 두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의 아래 놓인 것을 보지 못하고”

여기서 언급되는 인물은 아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천사보다 낮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지었을 때 이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즉시로, 인간은 주님의 죄 없으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들 신분에서 두려움과 수치심에 몸을 숨기는 겁 많고 별거벗은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이로써 인간의 모든 자손들에게서 하나님이 한때 주셨던 완전한 영광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런데 다른 한 인간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둘째(그리고 마지막이 될) 아담이십니다. 첫째 아담처럼 그분은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으나,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이 오셔서 그분은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타락한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은 이 죽음을 완성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학자들 대부분이 통상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음 성경구절을 의도적으로 틀리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기 때문에(because)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이 구절을 전파하거나 가르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역을 보상하려고 영광과 존귀로 아들에게 관을 씌우셨다는 이야기를 때때로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구절을 예수님의 미래에 지상에서 통치하실 예언을 성취하신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가르치는 바는 이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님(인간으로서의 이름)이시며 그리고 만들어진(그분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므로 이 문맥은 자신이 본인에게 복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천사들보다 낮게)으로서 고통 받으시고 죽으시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영광의 관을 쓰신 것은 그분이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왕관을 쓰신 것은 그분 자신때문에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로 인해 고통을 받고자 함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간을 위해 죽으려 오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이 영광을 버려야 했다면 그것은 그가 다른 죄인들과 똑같이, 마땅히 받아야 할 죽음을 죽는 것입니다. 그분은 대속물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죄인의 대속물로 자신을 바치시기 위해서 그분은 죄 없는 희생제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변화산에서 하나님아버지는 아들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잃지 않고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질 수 있음을 확고히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셔야 했으나(고후5:21), 그분은 죄인이 아닌 상태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아버지는 아담의 타락 이후로 그 어떤 인간도 감당하지 못한 것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인간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고 이로 인해 죄인의 자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결코 아버지의 뜻을 어기거나 불순종 하지 않은 채 그리하신 것입니다. 계속 주제를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고자(요한복음 17장) 기도하셨으며 이에 응답받으셨고(히브리서 2장), 이제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36-42

를 살펴봅시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 너머에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변화산에서와 같이) 데리고 가시면서 비로소 슬퍼하시며 몹시 괴로워하시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멀리 가서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이 자는 것을(변화산에서와 같이)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도대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다시 두 번째 나가사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육체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영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그 힘든 순간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분의 혼은 그 어떤 인간이 경험했던 것보다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상태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는 에덴부터 환왕좌심판에 이르는 인간의 모든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으로서 심한 고뇌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은 다가오는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으나 그분의 몸은 채찍질과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고 심지어 주님을 의심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

님의 사랑과 지혜를 의심하고 무시하게 됩니다. 인생의 큰 무게와 죽음이 다가올 때도 우리는 주님께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됩니다.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감성적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처럼 죽음을 통해서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살았던 그 어떤 인간과는 달리, 예수님은 죄를 처음으로 접하게 될(자신의 죄는 아닐지라도) 생각으로 인해 몹시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분의 간구는 너무도 절실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였으며 자신이 그 잔을 마셔야만 되는 상황에서도 아버지께 간구하셨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그분만큼 거룩하지 못했으며 더럽혀지지 않고자 갈망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베드로전서 2:21-24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 잔을 마시고 죄가 되셨으나 그럼에도 흠 없는 어린양으로 죽으셨는지 살펴 보고자 합니다.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정말 위대한 구절이 아닙니까! 히브리서 10:5에서 한 몸이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을 위해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봅시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의 몸에 옮겨졌음을 듣습니다. 그분의 몸은 타락한 모든 인간의 죄들의 저장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취하시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놓으셨습니다. 그 몸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의 영이 그 육체에서 떠나고 나무에서 내려지고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죄의 삯이 죽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육신을 무덤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의 영광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아버지의 약속이 그 순간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의 그 위대한 예언을 4-11절에서 살펴봅시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우리가 앞에서 읽은 베드로전서와 일맥상통하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히브리서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든 죄를 대신하는 보편적 희생제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 도다.” 모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순종한 흠 없는 유월절 어린양이 계십니다.

“그러나 주(하나님아버지)께서 그(아들하나님)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아들하나님)를 고통에 두셨은즉(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봅시다.)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

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죄 자체가 죄를 대신 할 수 없으며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 안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으시며 의로우시고, 거룩하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분은 흠과 점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가 충족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의 아들의 혼이 바쳐짐으로써 아버지의 거룩함과 의로우심이 또한 충족되었습니다.

몸 안에 죄를 짊어지고 계셨기에 예수님의 육신은 죽으셨으나 혼은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로 머물렀기에 계속 살아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과 2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로마서 1:1-4를 살펴봅시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그분의 인성을 말합니다.)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이를 통해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분의 육체 안에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육체는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분은 인간으로서 살다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태어나셨을 때에도, 갓세마네 동산에서도 거룩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죽으실 때에도 거룩하셨을까요? 여전히 그분은 거룩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 삼일 낮과 밤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음으로부터 일으켜 세우셨을 때 예수님은 거룩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

포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나 결코 죄인이 아니었음을 아버지께서 영원히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며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경은 그분에 대해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분의 육체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장면을 목격하셨고 또한 의로운 혼이 그분의 진노와 거룩하심의 모든 것을 한 번의 희생제물로 모두 성취하셨음을 지켜보셨습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해 더 많은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8:36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히브리서 10:39에서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28에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롬8:10).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즉, 여러분의 혼이 구원받고 영원히 죽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육신 가운데 있는 죄의 본성은 여러분을 육신적 죽음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의로움을 전가시켜 주셨는데 이는 여러분의 혼까지입니다. 그러나 육신까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육체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의 구원자께서 우리를 위해 갈보리에서 이루신 사역의 모든 결과입니다.

제4장

예수님의 승천

이번 공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주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디모테전서 3:16을 다시 한 번 읽어봅시다.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그분은 하늘 영광을 떠나오셨고, 영광 안에 사셨고, 영광 가운데 죽으셨으며 그리고 다시 영광 속으로 올려졌습니다.

잠언 30:4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늘에 오르셨느냐? 혹은 내려가셨느냐? 누가 바람을 자기 주먹 안에 모으셨느냐? 누가 물을 옷에 싸셨느냐? 누가 땅의 모든 끝을 굳게 세우셨느냐? 네가 말할 수 있거든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나?” 이 구절은 승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과 죽음 이후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을 통해 하늘로 올라가신 일은 인간의 관점에서는 초자연적이며 경이스러운 기적입니다.

창세기 5:24에서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갔다는 사실을 접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이 지상에서 바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정말 경이스러운 일 아닙니까.

신명기 마지막 장에 모세의 죽음이 나오지만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몸을 취하기 위해서 지상으로 내려왔다는 사실은 유다서 1:9에 와서야 접하게 됩니다. 주의 메신저와 마귀 사이에 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장이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하노라.”라고 말하였고, 부활의 날에 앞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모세를 하늘로 데려가셨는데, 모세는 나중에 변화산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열왕기하 2:1-11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엘리야와 그를 뒤따르던 엘리사의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그때 불병거가 회오리바람과 함께 엘리야를 채어 하늘로 데려갔습니다.

이런 기적들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인간도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이 지상을 떠나 하늘로 들어가서 거룩한 장소로 가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만큼 의로운 사람은 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잠언 30:4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셨고 하늘에 올라가신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인간 4,000년 역사를 통틀어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시편 24:1-4에서 그 어떤 인간도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땅과 거기의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거

하는 자들도 그러하니 그분께서 바다들 위에 그것을 세우시고 큰물들 위에 그것을 굳게 세우셨도다. (질문)누가 주의 산에 오르리요? 누가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서리요? (답변)깨끗한 손과(아담의 자손 어느 누구도 충분히 깨끗한 손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을(인간의 모든 자손들의 마음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가진 자 곧 헛된 것을 향해 자기 혼을 들지 아니하고 속임수로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이것은 하늘에 가기 위해 충족해야 할 항목을 열거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어떤 인간도 이 율법 기준에 충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혹은 육신적인 사람들과 의로운 삶에 대해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들은 “나는 결코 누구를 살인한 적이 없다” 혹은 “나는 결코 간음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큰 죄들의 목록을 만들고 이 죄들만 짓지 않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시간을 낭비한다든가 거룩한 수준에서 조금만 벗어난 마음을 품거나, 주님이 주신 허를 잘못 사용해도 주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가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 죄들을 피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을 한 번도 낭비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부여된 재능과 기회 그리고 삶을 한 번도 잘못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아버지를 항상 기쁘게 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선언은 무심히 말한 것 이상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분은 잘못된 일을 결코 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데 결코 실패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절반의 성공입니다. 올바른 것을 행하여야 의롭게 된다고 가정할 경우, 우리는 그 과녁을

빛나간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정하신다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전 7:20). 우리의 행동을 주님의 말씀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 이르기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으니 내가 죄에서 떠나 순결하다, 할 수 있겠느냐?”(잠 20:9). 어느 누구도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없습니다.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롬 3:10). 모든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완벽히 도달한 삶을 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웃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덜 더럽다고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하늘로 올라가기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14:12-15로 이동하여 기름부음 받은 그룹의 타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봅시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네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모든 사람이 듣도록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네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

여기서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려고 했던 어떤 존재에 대한 기록을 접하게 됩니다. 그 존재가 하늘로 올라갈 권능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으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1.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구름 속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2.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별들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3. 일단 하늘로 올라가면 산 위에 앉아야 합니다.
4. 하늘에서 회중에 둘러싸여야 합니다.
5. 만일 그가 하늘로 올라간다면 이는 그가 가장 높은 존재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려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거처로 올라가 그 왕좌에 앉으려 했던 그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어떤 인간도 이를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는데도 이런 시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헛되이 생각하는 사람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⁴⁾

이 실패한 승천에 관한 다른 성경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에스겔 28:12-18에서 말씀하는 내용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면 매우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두로의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는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 가운데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완벽했습니다.) 너는 지혜가 총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 너를 덮었고 네가 창조되던 날에 네 안에서 네 작은북과 네 피리의 작품이 예비되었도다. (그는 주목할 만한 경이로움이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노래와 음악이었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그는 높은 곳에 있었고 주님이 그를 신뢰하셨습니다.) 네가 창조**

4) 여기서는 물론교 창시자인 조셉스미스(Joseph Smith)의 교리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논의하는 내용은 생략하고자 한다. 그러나 물론교도들은 루시퍼와 같은 환상을 가진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된 날부터 네가 네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네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그런데 그 안에 잘못된 무엇이 발생했습니다.) 네 상품이 많으므로 그들이 네 한가운데를 폭력으로 가득 채우매 네가 죄를 지었도다. (그는 여호와의 뜻에 반역함으로써 결국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그의 거룩함은 사라지고 자신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완벽했던 존재는 더럽혀졌습니다.) 오 뉘는 그룹아, 내가 너를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끊어 멸하리로다. (살인, 절도, 간음, 우상숭배 그리고 아동학대와 같은 내용은 없습니다. 그가 어떤 엄청난 일을 했기에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까? 인간이 생각한 결과와는 매우 다릅니다.) 네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네 마음이 높아졌으며 (이 타락은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파멸은 외적인 행위의 결과가 아닙니다. 교만이 그의 마음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고 엄청난 호의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를 거부하고 마치 자신을 만든 창조주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광채로 인하여 네가 네 지혜를 부패시켰은 즉 (타락) 내가 너를 땅에 던지고 (낮추심)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너를 바라보게 하리라. (창피) 네가 네 많은 불법 곧 네 무역의 불법으로 네 성소들을 더럽혔나니 그러므로 내가 네 한가운데서 불이 나오게 하여 너를 삼키게 하고 너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의 눈앞에서 너를 데려다가 땅 위의 재가 되게 하리라.” 이 구절은 로마서 1:20-32에서 말씀하는 아담의 자손들에게 발견되는 인간의 타락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루시퍼처럼 대단한 창조물도 그 마음속에 교만이 있기에 어떤 외적 범죄가 없더라도 하늘에 올라갈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루시퍼보다 훨씬 더 교만한 인간이 하늘로 올라갈 자격을 얻기란 불가능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으로 가봅시다. 우리는 다윗이 믿음 가운데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시편32, 히브리서 11:32). 다윗의 경우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한 예로서 제시되었습니다(로마서 4장). 이 경우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에 관해 사도행전 2:34-35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하늘들로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나 친히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니라.”** 이것은 다윗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과 모순이 됩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죄를 속죄해 주시기를 낙원해서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 이후 구약시대 성도들을 하늘로 데리고 가셨다는 사실도 압니다. 따라서 앞의 성경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 받은 성도들도 자신의 힘으로는 하늘로 자신들이 올라갈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운반되어 하늘로 들려 올려질 수는 있어도 자신들 스스로 하늘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소망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봅시다. 어린양의 피로써 정결케 된 성도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휴거될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며 우리는 이 현 세상을 떠나 대낮보다 밝은 땅으로 여행할 것입니다(살전4:13-18).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죄인들이 그들의 죄를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스스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함을 발견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하늘에서 내려오셔야 우리는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데리고 가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로

지 그분의 공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용서를 받았건 안 받았건 간에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스스로 하늘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당혹케 하고 혼란스럽게 한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육신과 피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이 그것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스스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너희를 실족하게 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려느냐?”(요 6:61-62)

예수님을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동시에 자신은 하늘로 올라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계시던 장소로 다시 올라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은 말구유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담대히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실 것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인간도 하늘로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스스로 하늘로 올라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루시퍼가 하늘로 올라가고자 했을 때 그는 심판을 받아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고 다시 부활할 것임을 확고히 선포하시고 올리브 산에 서서 그 어떤 도움도 없이 영광의 영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만일 이런 생각이 덮는 그룹들의 마음속에서 나온 것이라면 당연히 이는 죄가 됩니다. 만일 인간의 생각에서 나왔다면 이는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천사나 그 어떤 도움 없이 지상에서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그분을 소개하거나 그분을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 스스로 온전히 의로우시며

하늘에 속할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그분 자신이 아들하나님이시지만)가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시라 하늘에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27절 가운데 몇 구절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두 손과 자기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 하더라.”

예수님께서 왜 자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을까요? 자신이 그들의 선생이며 친구라는 사실을 어떻게 납득시키실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선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러나 열두 제자 중의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였으나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분의 두 손의 못 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드레가 지나서 그분의 제자들이 다시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 때에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또 네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고 믿을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손들과 옆구리에 여전히 못 자국이 나 있고 그 구멍이 메워지지 않은 상태였음을 알게 됩니다.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진정 이루어졌음을 또한 알게 됩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것을 다시 언급하는 것은 독자들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다만 대부분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들이 믿는 바에 대해 부주의하며 그들 자신이 믿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려 함입니다.

처녀인 마리아의 자궁에 한 몸이 준비되었습니다.

아들하나님 즉 말씀(the Word)이 그 몸 안에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몸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말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 몸이 유아기와 청소년기를 거쳐서 성인으로 성장하셨습니다.

그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몸이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무덤에 놓였습니다.

삼일 낮과 밤이 지난 후에 그분의 혼과 영은 그 몸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덤에서 살아서 나오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분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다.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일부 사람들 주장처럼, 그분은 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죽기 이전과 같은 모습 -영, 혼 그리고 몸-의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영의 손에 생긴 구멍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또한 영의 옆구리에 생긴 구멍에 손을 댈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보고 만질 수 있었

습니다. 즉 그분은 살아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사셨고 죽으시고 마침내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을 때에도 그분 자신은 항상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간이 되셨을 때에는 항상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삼일 낮과 밤 동안 육체를 떠나셨고 다시 그 육체 안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못 박히신 그 동일한 육체 안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무오한 증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20:11-17로 가봅시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아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바깥의 돌무덤에 서서 슬피 울더라. 그녀가 슬피 울면서 몸을 구부려 돌무덤 속을 들여다보고는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몸이 놓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다른 하나는 발 쪽에 앉은 것을 보니라.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하니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그녀가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님께서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녀는 그분을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며, 당신이 그분을 여기서 옮기셨거든 그분을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일러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분을 모셔 가리이다, 하매(그녀는 죽은 시체를 찾고 있는 중이었으며 주님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 그녀에게,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녀가 돌이켜 그분께, 랍보니여,

하니 이것은, 선생님이여, 라는 말이라.”⁵⁾

그리고 주의 깊게 다음 구절을 살펴보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 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의 권능으로 하늘에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의 집을 방문하러 가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분을 하늘로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또한 인간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으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과거에도 거룩하셨고 현재에도 거룩하십니다. 그분은 죄 없는 상태로 삶을 사셨고 죽으셨으며 이로 인해 하늘로 올라가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셨습니다. “누가 주의 산에 오르리요? 누가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서리요? 깨끗한 손과 (예수님은 그런 손을 가지셨습니다!) 순수한 마음을(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가진 자 곧 헛된 것을 향해 자기 혼을 들지 아니하고(예수님은 결코 그런 적이 없으십니다!) 속임수로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그분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지상에서 그 아름다운 도시로 가실 것이며 거기서 합당한 환영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여기서 인용한 시편 24편에 대해 할 얘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

5) 요한복음 10:27에서 예수님은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으나 그녀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녀는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이것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해당한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롬10:17).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고후5:7).

히 승천에 필요한 조건들을 열거한 것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가 언젠가 가게 될 그날을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영광의 문에 도달해 통치자의 위엄으로 그 높은 곳 왕좌로 들어가 환영 받으시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죄, 사탄, 죽음 그리고 무덤에서 승리하신 분이 하늘로 귀환하는 모습을 예언한 성경 구절을 봅시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너희 영존하는 문들아, 너희는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로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주시요, 전투에 능하신 주시로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너희 영존하는 문들아, 곧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로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주 곧 그분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시 24:7-10).

셀라! 이 장면을 생각해 봅시다. 모든 것이 어둠으로 바뀌고 슬픔과 고통을 겪으며 사랑스러운 아들하나님이 별례로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해 죽으신 모든 과정을 그 어떤 인간이 모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고통의 저 밑바닥에서 올라오셔서 순종하는 아들로써 승자의 모습으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도다. 할렐루야!

죄가 모두 해결되었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셨다. 할렐루야!

영원한 구속이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사망의 쏘는 것이 사라졌다. 할렐루야!

아들이 원래 자리로 오셨다. 할렐루야!

찬송과 기쁨과 경배의 찬가로 하늘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분은 영예

와 존귀와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을 향해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오,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이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그날 아침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음미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 안에 서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오히려 실망하고 진보주의자들, 여호와증인, 몰몬교, 회교도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다른 종교들의 잘못된 교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폄하하거나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구절들을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이 구절들이 혹시라도 애매하고 이해하기 어려울지라도, 성경 전체에서 수없이 제시되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교리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경구절들은 결코 애매하거나 어렵지 않고 예수님이 인간의 아들로 오셨다는 우리가 공부하는 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마리아에게 지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고 자신이 하늘로 간 이후에도 이 관계는 지속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으로서의(God-man) 관계를 가지셨고 그 관계는 지속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지위를 버린 것이 아님을 저는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도 계속 인간의 지위를 유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늘에 인간의 대표로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어떤 인간은 이런 축복을 누린 적이 없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분이 우리 기도를 들으실지에 대해서 큰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뒤에 나오겠지만, 예수님 승천 이전에는 죄로 인해 인간과 하나님은 분리되어 은혜의 왕좌 앞으로 인간이 나아가지 못하고 그 어떤 약속의 관계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믿는 자들은 깨지지 않는 교제의 약속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셨으나 인간이 되었던 분이 우리를 위해 하늘에 앉아계시기 때 문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22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에게는 영광과 존귀의 관이 씌워졌고(시 8:5) 그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온 세상을 통치할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범죄 이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내쫓겨서 동산 밖으로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사자에게 불타는 칼을 두어 인간이 자신의 본향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막았으며 창조주와의 교제의 단절을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쓴 잔을 동산에서 받으시고 부활한 뒤 아침에 나타나셨을 때, 마리아가 그분을 동산지기(gardener)라고 여긴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서는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고 죽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삶을 사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안에서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며(고후 5:18),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고(히 7:19),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며(요10:9),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오고(히 4:16)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요일2:27-28). 이 모든 것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공로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장에서 이 지상에서 성도가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늘에 계신 사람의 아들을 소유하게 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히9:24).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찬송가 가운데 주님의 승전을 주제로 한 두 곡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곡을 마지막으로 이번 장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문을 활짝 열어라
영원한 문을 활짝 열어라
영광의 왕께서 세상의 전쟁을 이기시고
다시 돌아가시네.
그분의 빨간 핏자국을 바라보라
그분이 지닌 전쟁의 흔적을
사탄의 왕좌를 무너뜨리고
그분은 스스로 다시 통치하시네!
일어나 그분을 맞이하세
그분께 왕관을
찬송하는 성도와 천사들 그분을 기다리네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분
모든 하늘이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네
거룩한 찬송이 울려 퍼지네.
피 흘리시고 죽으신 어린양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모든 인간을 위해 죽음을 맛보셨네:
그분의 위대한 구속 계획!
죽음과 지옥을 정복하신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시네.

성도여 바라보자!

성도여 바라보자! 영광스러운 모습을:
고통의 사람을 바라보자
승리의 모습으로 싸움에서 돌아오신
그분께 모든 사람은 무릎 꿇고 경배드릴지어다.
그분께 왕관을, 그분께 왕관을, 승리의 관을 바라보자.
구세주께 왕관을! 천사들도 그분께 왕관을
주님의 위대한 전리품
권능의 왕좌에 계신 분께 영광을
천상의 노래가 울려 퍼지네
그분께 왕관을, 그분께 왕관을, 왕 중의 왕이신 구세주
그분께 왕관을.

구세주를 경멸하고 비웃은 죄인들
성도와 천사가 그분께 왕관을 드리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세
그분께 왕관을, 그분께 왕관을, 승리의 명성을 올리세.

찬양의 목소리를 높이세!

승리의 합창을 올려 드리세!

가장 높으신 곳에 계신 예수님!

기쁨의 모습을 바라보세!

그분께 왕관을, 그분께 왕관을, 왕 중의 왕, 주들의 주

제5장

우리의 중재자

대부분의 독자들은 욥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욥의 사랑은 이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을 사탄의 특별한 목표물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의 재산과 건강은 사탄에 의해 모두 파괴되었고 열 명에 이르는 그의 자녀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욥에게 위로를 해주었어야 할 부인과 친구들은 오히려 그의 괴로움을 가중시켰습니다. 우리는 잿더미에 앉아서 부서진 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살을 긁는 욥의 비참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고통은 아마 예수님 외의 그 어떤 인간도 겪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의 고통의 원인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송사를 들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간에게 닥친 예측치 못한 결과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습니다. 신약성도 중 사람의 아들의 승천 이전 성도의 삶이 승천 이후와 어떻게 다른지를 생각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교제 단절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욥기 9:30-35를 읽으면서 우리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시기 이전 시대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대한 놀라운 선포를 접하게 됩니다. “내가 눈 녹은 물로 내 몸을 씻고 그 어느 때보다도 내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도랑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마저도 나를 몹시 싫어하리이다. 그분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므로 내가 그분께 대답할 수도 없으며 우리가 함께 재판을 받으러 갈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는 우리 둘 위에 손을 얹을 중재인도 없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막대기를 내게서 치우시고 자신의 두려움으로 나를 무섭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말을 하고 그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나 일이 내게 그렇지 아니하도다.” 이제 이 성경구절들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눈 녹은 물로 내 몸을 씻고” 만일 어떤 사람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만한 잘못된 일을 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성경에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기에 욥은 주님으로부터 자신을 정결케 하는 명확한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욥이 아담을 위해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희생제물과 아벨의 합당한 헌물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 또한 믿음으로 이런 희생제물을 드렸을 것입니다(욥기 1장을 참조). 욥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눈 녹은 물보다 더 정결한 것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 순수한 물속에서 자신의 몸을 씻고자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욥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을 더욱 정결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내 손을 깨끗이”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깨끗이 하기 위해 그 어떤 수단이라도 동원했을 것

입니다. 이는 욕이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기 위함
이었습니다.

그리고 욕이 그런 시도를 했더라도 그는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주
께서 나를 도랑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마저도 나를 몹시 싫어하리이다.” 그
런데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피의 속죄를 얼마나 당연히 여기는
지...! 인류 역사 4천년을 통해서 인간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
의 임재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최선의 상태의 인
간에게 거룩하신 그분은 가장 최악의 인간에게 했던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사59:2).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르게 깨끗한 헌물을 드려도 혹은 최
선의 봉사를 해도 혹은 그 어떤 참회의 눈물을 흘려도 이런 인간의 노력들
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런 인간의 노력은 하면
할수록 그들을 더 심한 도랑에 빠지도록 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문제의 본질로 다가가 봐야겠습니다. “그분은 나처럼 사람
이 아니시므로 내가 그분께 대답할 수도 없으며 우리가 함께 재판을 받으려
갈 수도 없고” 이 구절은 매우 평범해 보이지만 문맥을 깊이 있게 살펴보면
매우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인간이 아니시지만 이
성경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엄청납니다. 창조물과 창조주가 서로 소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사실은 너무도 심오해서 우리는 좀처럼 주의를 기
울이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특별하게 주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진리를 직
접적으로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는 잠시 뒤
살펴볼 것입니다. 때로 인간은 자신들의 기도를 하늘을 향해 드리기도 하
지만 이런 행위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 시대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즐겨 하

는 교제의 방법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 사이에는 우리 둘 위에 손을 얹을 중재인도 없도다.” 바로 여기 인간이 진실로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욕은 이 필요를 인식하기는 했으나 베들레헴의 그 신비한 날이 오기 전까지 고통스러운 욕을 포함한 그 어떤 인간도 정확히 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필요는 한 인격체가 하나님에 의해 자기의 손을 하나님 위에 얹을 수 있어야 하며 그리고 동시에 인간으로서 인간 위에 그 손을 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한 인격체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교제할 수 있게 된 바로 이것입니다. 이 중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각 개인과 교제할 수 있고 인간은 동일한 중재자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막대기를 내게서 치우시고 자신의 두려움으로 나를 무섭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기 전 인간의 운명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경배하며 섬겼고, 그분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은 압도적으로 모든 인간은 모든 인간이 그분 앞에서 두려워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다가설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사랑이시지만 결코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분은 죄인에게든 믿는 자에게든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말을 하고 그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나 일이 내게 그렇지 아니하도다.” 이 구절들은 아담의 타락 이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시기 전까지 살았던 모든 인간에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거나 개인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할 그 어떤 수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신의 언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소통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우리 자신의 말과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세상에서 살아 왔습니다. 교회나 사역자들과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얼마나 바로 알고 있는지 혹은 잘못 알고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현 시대에 하나님의 신성과 아들의 복음은 대부분의 경우 그리 놀라운 비밀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더라도, 예수님에 관한 내용과 그분을 통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백화점에 가면 항상 세일하는 성경책이 있으며 호텔에도 성경책이 대부분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곳에 가든지 신앙을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가 있다면 단추 하나만 눌러 다양한 설교를 접할 수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시기 전의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혹은 다니엘의 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어떤 설교를 듣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들은 가족들과 같이 집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텐트나 혹은 동굴에서 생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들도 주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의복은 현재 모습과는 다를지 몰라도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현재와 다른 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아래에서 제시하는 목록들을 매우 주의 깊게 살펴봅시다.

1. 아담이 죄를 지었을 당시에 하나님은 그를 동산에서 대면하셨습니다

다.

2.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을 때, 하나님은 가인을 보러 땅에 내려오셨 습니다.
3.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4.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라 말씀하셨고 주님은 이 계획을 점검하셨습니다.
5. 하나님은 때때로 아브라함을 만나셨습니다.
6. 욥이 고통스러워하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광풍 가운데서 그에 게 말씀하셨습니다.
7. 주님으로 추정되는 존재와 야곱은 씨름을 하였습니다.

이 목록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에 주목하게 되며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읽은 내용들을 잠시 잊어버십시오. 2,500 년의 긴 시간 동안 주님은 오직 이 일곱 사람들과 대화하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곱 사람 가운데 네 사람과 주님은 단 한 번만 대화를 하셨습니다. 이 사실과 더불어 지난 2,500년 동안 살았던 그 어떤 인간도 성 경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었으며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알 수 있었을까요? 다음에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당신의 감정 이나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배경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읽어봅시 다. 아담에서 시나산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 을 단 한 가지 범죄로 인해 동산에서 내쫓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홍수를 보내서 여덟 혼을 제외한 모든 인간을 물에 잠기 게 하셨다는 사실도 인간은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

건으로 인해 인간을 전 세계로 흩으셨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불로 도시들을 불태웠다는 사실도 인간들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시 인간들이, 경배해야 할 존재에 대해 아는 것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빛이 계시되었습니다(요1:5-9).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원한 권능과 신격을 알 수 있습니다(롬1:19-24). 그러나 제한된 이해를 통해서 인간은 그들의 역사를 바라보았고 주님을 자신들이 심판이나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복종해야만 하는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존재로 인식해 왔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의 아들이 지상에 오셔서 그분의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2,500년 동안 인간은 멀리 떨어져 존재하는 창조주의 진노를 항상 무서워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욥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위로를 얻기 위해 히브리서를 읽을 수 없었고 주님께서 주신 확신을 얻기 위해 빌립보서를 접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욥은 로마서에서 제시된 선한 소망에 의지할 수 없었으며 베드로전서를 통해 고통 받는 자의 안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라는 복된 소망도 갈망할 수 없었습니다. 욥은 그저 별들로 가득한 검은 하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그 하늘 어디엔가 계시실 것이라는 사실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진노하게 한 행위가 무엇인지를 욥은 고민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상황이 좀 나아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 집트 땅에서 그 수가 증가하였을 때 그들에게 계시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령하신 내용과 요셉의 고통과 승리를 통해서 그

들의 삶이 어떻게 보존되었는지가 전부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를 파라오에게 보내서 자신이 선택한 히브리 민족을 해방하라는 내용을 전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알리기 위해 사용한 증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집트 땅에 내려진 열 가지 재앙이었습니다. 마지막 재앙에 앞서 어린양의 피가 필요했고 만일 그 피가 문설주에 표시돼 있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맏아들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절대 하나님을 적대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둠 속에 있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그분의 빛 아래서 걷고 있다는 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늘로부터 시내 산에 내려와 자신의 말씀들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의 목적은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장면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문제들을 주의 깊게 읽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9-25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짙은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한 것은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백성이 듣게 하려 함이며 또한 영원히 네 말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께 고하였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라. 또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빨게 하고 셋째 날을 예비하게 하라.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눈앞에서 시내 산 위로 내

려오리라.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방에 경계를 정해 주고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산에 오르거나 산의 경계에 닿지 말라. 누구든지 산에 닿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것에 손을 대지 말라. 오직 그는 반드시 돌로 치거나 관통시킬지니 그것이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살지 못하리라. 나 팔을 오랫동안 불거든 그들이 산으로 올라올지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니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빨더라.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셋째 날을 예비하고 너희 아내에게 가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던 온 백성이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려고 백성을 데리고 진영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섰더라. 시내 산이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서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더라. 그곳의 연기가 화로의 연기같이 위로 올라가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나팔 소리가 오랫동안 나며 점점 더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으로 응답하시더라. 주께서 시내 산에 곧 그 산의 꼭대기에 내려오시고 주께서 그 산의 꼭대기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에게 명하라. 그들이 자세히 보려고 돌파하여 주에게로 오다가 그들 중의 많은 사람이 죽을까 염려하노라. 또 주에게 가까이 오는 제사장들도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게 하라. 주가 그들을 향해 돌격할까 염려하노라, 하시니 모세가 주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산 주변에 경계를 정하고 산을 거룩히 구별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이 돌파하여 주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들을 향해 돌격할까 염려하노라, 하시니라. 이에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말하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한 민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작은 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아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나에게 가까이 온다면 너희를 죽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임재한 그 산에 올라온다면 너희를 파멸시킬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산은 진동하고 불타고 있으며 광야의 덩불처럼 불타고 있으며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당연스럽게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선택 받은 이 사람들조차 여호와께 감히 다가갈 수 없었던 그 시절을 상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민족을 회복시키고 자유롭게 한 후에도 결코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욥의 말을 반복해 왔음을 우리는 들 수 있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말을 하고 그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나 일이 내게 그렇지 아니하도다.”

율법을 중심으로 이런 상황들이 바뀔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은 그렇다 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로부터 창조와 인간의 타락, 홍수를 주신 이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언약, 아벨이 드린 헌물의 의미, 이삭의 희생제물과 유월절 어린양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 것들과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간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발짝 물러서서 이 상황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율법은 돌판 위에 새겨졌습니다. 그 신성한 돌판을 보호하기 위해 궤(ark)가

준비되었습니다. 그 돌판이 궤 안에 놓이는 순간 인간이 그 안을 들여다보면 죽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 특별한 경우에 백성들에게 율법을 읽어주기 위해 몇 개의 복사본을 만들었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가 자신의 성경을 읽는 것처럼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율법의 복사본을 만들어 가지고 다녔다는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 것에 대한 접근은 매우 제약적이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만날 수 있었던 거룩한 한 장소가 생겼음을 고려해 봅시다.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한 은총을 제공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경배의 방식이 제공됨으로써 여호와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입니다. 한 장소가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이 그곳에서 인간과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발전된 모습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주제를 올바른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막(나중에는 성전)에서 인간을 만나고자 하셨습니다. 이 성막에는 세상과 경배하는 장소를 서로 분리시키는 장애물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는 경배자와 거룩한 장소를 분리하는 두 번째 장애물이 존재했고 지성소와 인간을 분리하는 휘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장소에서 주님은 인간을 만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만이 자신의 몸을 여러 번 정결케 하고 희생제물과 특별한 의복을 입고서야 이 장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자신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나 기쁠 때 혹은 감사를 드리고자 할 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일 년에 오직 한 번만 주님을 대하는 것이 허용된 것이었습니다.

“둘째 성막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해마다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잘못으로 인해 자기가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령님께서 표적으로 보여 주신 것은 첫째 성막이 아직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므로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섬긴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며 이 성막은 단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에 속한 규례들로만 유지되어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되었느니라.”(히9:7-10). 여기서 우리는 ‘오직 일 년에 한 번만’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 아니하였다’ 등의 구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셋째로, 율법은 이방인들에게는 혜택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율법은 이방인들의 영적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거 시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율법을 주신 것이며 결코 그 어떤 이방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신약 로마서 9:3-5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진리는 다시 신명기 4:7-8에서 발견됩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부르며 구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을 자기들에게 가까이 모신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 날 내가 너희 앞에 두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이 의로운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가진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냐?”

율법을 주시고 성막의 설치와 그와 관련된 희생제물에 대한 규정들은 소위 북미나 남미에 살고 있는 민족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은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신약에서 규정하는 선교 사역은 율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율법에서 전쟁, 결혼, 음식, 복장과 언어에 대해 규정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이방민족과 섞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주어졌고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어 살라고 하신 것이라면, 시내 산에서 주어진 그 빛은 멀리 퍼져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근처에 살고 있던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의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민족으로 하여금 이방인들을 죽이려고 자신의 권능과 기적을 행사하도록 하셨을까요? 저자는 여기서 불손하게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설명하고자 했을 따름입니다. 이교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는 그들을 더욱 두렵게 하였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약속에 땅에 이르는 여정 가운데 이방인을 대표하는 한 여인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나옵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은 왜 그들을 숨겼으며 무엇을 믿었을까요? 그 답은 여호수아 2:9-11에서 라합의 간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 이 땅의 모든 거주민이 너희로 인하여 기력을 잃었나니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너희를 위해 홍해 물을 마르게 하**

신 일과 너희가 요르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우리가 이 일들에 관하여 들 때에 곧 우리 마음이 녹았고 또 너희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지 아니하였나니 주 너희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만일 여러분이 기원전 1500년 전부터 주님이 오시기 전 시대에 중동에 살았던 이방인이었다면, 하나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존재였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방인을 없애셨고, 반대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벌을 받았습니다. 룯, 나아만, 요나 그리고 느부갓네살에 대한 얘기는 매우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세상의 가장 작은 한 민족에게 주어졌고 그것은 언약궤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일 년에 한 번 성막 안에 좁고 어두운 장소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한 사람을 만나러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타락 이후 계속 죄를 지어왔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으로부터 아주 예외적인 계시를 받지 않는 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담의 자손에게 주어진 율법에 대해 사람들이 심각한 고민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 진일보한 단계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간은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는 분리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욥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 욥이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서 주님께 할 수 있었던 말은 “그분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므로…우리 사이에는…중재자도 없

도다...그리하시면 내가 말을 하고 그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나 일이 내게 그렇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중재자 없는 삶이 어떠한지 이해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5에 나오는 ‘중재자’ 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항상 한 분 하나님이 존재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오른편으로 승천하신 뒤에야 우리는 비로소 한 중재자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한 존재 안에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을 동시에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도 아들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손을 하나님과 인간 양편에 놓을 수 있고 그분 안에서 그 둘을 중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어떤 중재자도 소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셨다면 이 또한 같은 결과를 초래했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늘로 돌아가신 후 인간이시기를 그만 두셨다면, 우리는 또한 중재자를 가질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요20:17).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하늘로 올라가셨기에 여전히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간극을 메우고 그 둘 사이를 화해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인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요14:6).

하나님께서 인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고후5:18-19).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손을 펼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모든 인간에게 그 이후의 새로운 것들을 보이셨습니다. 옴이 그토록 갈망하던 하나님의 두 손을 통해서 오랫동안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니라.”(막15:38).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로 나아오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 이후 어떤 인간도 아무 때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숨을 거두셨을 때,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마 27:51-53). 구약 때는 믿음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조차도 하늘로 올라 갈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통의 장소로 가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품(눅16장)안에서 그리고 낙원(눅 23장)에서 쉬면서 자신들은 죽음과 무덤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

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롬3:25). 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드디어 그들의 죄값이 지불되었기에 예수님 이전 시대의 성도들은 구세주를 통해서 이제 하늘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엡4:8). 예수님은 시편의 약속(시 68:20)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인 신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니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 곧 주께 속 하였도다.”

자, 이제 욥기 9장의 구절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키는 한 중재자를 소유하게 된 사람들 입장에서 같이 비교해 봅시다. 욥기 9:30-35절을 토대로 신약시대 성도들과 구약시대 성도들과 비교해 봅시다.

내가 눈 녹은 물로 내 몸을 씻고
만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된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내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나의 모든 죄가 정결케 된다.
주께서 나를 도랑에 빠지게 하시리니
나는 하늘 처소에서 예수님 옆에 앉아 있다.
내 옷마저도 나를 몹시 싫어하리이다.
그분의 의로움으로 옷 입고 있네.
그분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므로
그분은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셨기에
내가 그분께 대답할 수도 없으며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네.
우리가 함께 재판을 받으러 갈 수도 없고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께 더욱 가까이 가게 되었네.
우리 사이에는 우리 둘 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네.
손을 얹을 중재인도 없도다.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 주셨네.
그분께서 자신의 막대기를 내게서 치우시고
나는 이제 다가올 진노로부터 구원받았네.
자신의 두려움으로 나를 무섭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분의 완전한 사랑이 나의 두려움을 제거했네.
그리하시면 내가 말을 하고 그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네.
그러나 일이 내게 그렇지 아니하도다.
그 일이 내게 그러하도다.

이 축복은 하늘로 올라가신 한 사람을 소유함으로써 얻게 된 축복들 중
한가지에 불과합니다. 오,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성도인가요!

제6장

우리의 대제사장

믿음의 기초가 건전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예수님께서 구속 받은 자들을 위해 행하시는 이 위대한 사역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선 히브리서 5:1-4를 통해서 이 대제사장의 성경적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사람들 가운데서 취한 대제사장마다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을 받나니 이것은 그가 죄들로 인해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게 하려 함이라. 그가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음은 그 자신도 연약함에 싸여 있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그가 백성을 위하여 죄들로 인한 헌물을 드리는 것 같이 자신을 위하여도 드려야 함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며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취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대제사장을 정의하는 10가지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1. 사람들 가운데서 취한
2.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을 받나니
3.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4. 그가 죄들로 인해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게 하려 함이라.
5. 그가 무지한 자들과
6.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음은
7. 그 자신도 연약함에 싸여 있기 때문이라.
8. 이런 까닭에 그가 백성을 위하여 죄들로 인한 헌물을 드리는 것 같이 자신을 위하여도 드려야 함이 마땅하니라.
9.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며
10.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취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들은 자명합니다. 자기 자신이나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만이 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임무는 예물과 희생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인간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는 불쌍한 마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뿐 아니라 연약함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다음 구절(5-7절)을 주목해 봅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대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그분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분께서 그리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그분께서 또한 다른 곳에서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

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심과 같으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라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10가지 원칙들을 우리의 구주께서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1. 사람들 가운데서 취한

대제사장이 존재하기 이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지상에서 대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더 나은 것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입니다. 그분은 인간이 되셨고 인간으로 하늘에 올라가셨으며 하늘의 가장 높은 위치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2.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을 받나니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소유인 믿는 자들을 도와주고 중보하기 위해서 그리 하십니다.

3.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으나 그들의 육신적인 필요와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유익을 주는 것이 그분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부나 명예 혹은 편한 인생을 원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회복된 삶을 통해서 완전한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그분은 오셨습니다.

4. 그가 죄들로 인해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 죄로 인해서 지불한 희생은 그분의 상한 몸과 피흘리심

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구세주의 지위와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린양의 피로 구속 받기 전까지는 대제사장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에는 그런 직분이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중보와 희생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은 성도가 저지르는 죄를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죄인이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5. 그가 무지한 자들과

무지한 사람들이라 함은 교육받지 못하고 어떤 정보를 소유하지 못하고 글씨를 읽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탄생한 어린 아이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삶에 관한 한 어린 아이의 모든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우리를 온유와 오랜 기다림과 애정을 가지고 대해주십니다.

6.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붙잡히 여길 수 있음은

우리들이 길을 헤매고 있을 때 자비로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선한 목자의 예화를 읽으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7. 그 자신도 연약함에 싸여 있기 때문이라.

이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오른편에 계신 아들이 인간이 겪는 연약함과 고통, 배고픔, 갈증, 구타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니다. 이것에 대해선 나중에 자세히 말하고자 합니다.

8. 이런 까닭에 그가 백성을 위하여 죄들로 인한 헌물을 드리는 것 같이 자신을 위하여도 드려야 함이 마땅하니라.

아론은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습니다. 아론은 결코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드릴 수 없었으나 예수님께서서는 가능했으며 실제로 죄가 되셨습니다.

9.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으로 그렇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아버지께 합당하며 그분을 매우 기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쁨은 예수님께 엄청난 만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히12:2)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선택에 의해 이 직분을 맡으셨으며 따라서 우리는 그 사역이 아버지께 당연히 받아들여질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10.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취할 수 있느니라

따라서 교회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지상에서 소유했던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그리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임명하신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2:16-18을 통해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알아 보겠습니다.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는 다시 한 번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해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께서 인간으로서 사심으로써 인간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앞의 성경구절은 성경에서 가장 논란의 소지가 되는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 지상에서 인간의 삶을 사셨기에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인간의 필요를 더 잘 충족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교리는 무조건 받아들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구절에 근거해서 저자가 주장하는 이 교리를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공부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은 이 진리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과 시험을 받으셨기에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심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형태로 친히 오셨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창조주가 시험을 당하시고, 고통을 느끼고 그리고 보통 인간처럼 슬픔을 경험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으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힘들어 했던 욕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히브리서 3:1-6에서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신 사람의 아들의 사역에 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분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던 것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신실하셨느니라.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많은 존귀를 받으므로 이 사람이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느니라.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또 모세는 참으로 나중에 말하게 될 그것들을 증언하기 위해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으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써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이 구절은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한 인간이 그 영광을 자신의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시는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는 둘째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 예수님은 한 가족의 머리이시며 아들로써 아버지를 그리고 아버지로서 자신의 아들을 신실하게 섬기는 분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에베소서 1:17-23에서 다시 언급됩니다. 인간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서는 교회의 머리로 기술되고 있으며,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엡 2:19).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개별 가족들이나 전체보다 훨씬 뛰어난 영광을 소유하고 계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경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으나 그분의 완전한 기쁨 안으로 들어가는 데 실패한 일련의 사건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선물을 소유했던 아담이 주님과 교제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건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집트로부터 해방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의 인도 아래 요단강을 건넜으나 자신들의 적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그 결과 약속의 땅의 상속자로 누려야 할 완전한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다윗의 애통해하는 모습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가지고 히브리서 4:1·4-16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런즉(앞에서 언급한 여러 사람들이 주님의 완전한 축복을 받는 데 실패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도록 도우시는 분)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여기서 우리는 확고한 몇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은 어느 때고 하나님이 아닌 적이 없었으며 인간으로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며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우리는 이 구절의 모든 중요성을 우리가 여태껏 배워왔던 성경의 문맥 안에서 충분히 이해해야만 합니다. 인간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 사시는 동안 인간이 겪는 모든 유혹을 당하셨으나,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으셨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적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겪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죄 없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실 수 있었음을 이미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희생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이 그 완전한 구원

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살아계십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것은 단지 그냥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조화로운 교제를 할 수 있게 하는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단순히 속박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약속의 땅에서 살도록 기회를 부여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실패했습니다. 우리 또한 구원만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구원받은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연약함과 수없이 많은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성경구절을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자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짓게 되면 여러분은 두려워 마시고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그분의 은혜와 긍휼로 여러분이 일어나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라 설명합니다. 얼핏 맞는 것처럼 들릴지 몰라도 문맥을 잘 확인하면 정반대입니다.

히브리서 4:16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진짜 내용은 무엇일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셨으나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넘치는 대제사장으로서 저 높은 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담대히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가 직면한 이 유혹에 대해 그분이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연약한 인간으로서 시험당하셨습니다. 그분에게 주어진 이런 시험 속에서 이를 거부하고 영광 가운데 사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의의 길로부터 돌아서고자 하는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그분은 은혜와

자비를 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의 권능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되도록 즉시 도와줄 것이라고 우리는 들어 왔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유혹을 그분도 받으셨으나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모든 유혹과 미혹을 당하셨으나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부활 생명이 가져다 주는 완벽한 기쁨을 알도록 도와주시고자 합니다.

우리는 “필요한 때”라는 구절을 우리가 실패해서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때로 해석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실패를 초래합니다. 이 구절은 현재 시험당하는 때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여야 승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19-20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닻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나니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거기로 들어가셨느니라.” 따라서 예수님(인간)은 우리가 미래에 가고자 하는 그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그 영광은 그분의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분의 직책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이 구절과 히브리서 5:6-11을 통해서 그분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령님조차도 그분은 “말할 것이 많으나” 이 주제에 대해서 “말하기 어려우니라”라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창 14:8, 히 7:1). 따라서 예수님은 인간이시며 왕이시고 동시에 제사장이십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을 축복하였고 그로부터 제물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7:1-7로부터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며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알려진 존재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타이틀은 예수 그리스도께 합법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날들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라는 성경구절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이전에 말씀(Word)에 관한 언급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인간이었지만,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셨습니다. 그는 축복을 주는 분이었으며 예물과 경배를 받는 존재이시고 그가 섬기는 자보다 훨씬 뛰어난 제사장이십니다. 멜기세덱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며 인간이신 분이 평화와 의로 우리를 복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7:17-28에서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구나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높은 위치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더 나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들이 참으로 다수의 제사장이었던 것은 죽음으로 인해 그들이 항상 있지 못하였기 때문이로되 이 사람은 항상 계시므로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소유하시느니라.” 아론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 직분의 문제는 죽음이 가로막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기에 제사장 직분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리고 인간을 위한 완전한 제사장이셨습니다. 또 그분의 제사장 직분은 한 시대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경건한 인도자의 통치하에 사는 삶은 축복이지만, 엘리 제사장 시대에서 산다는 것은 힘들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대제사장이 바뀌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방향이 어떻게나 자주 바뀌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구원받은 인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결같은 사역 아래서 삶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위대한 중재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그분은 죽지 않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께서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다시 한 번 이 구절이 왜곡되어 가르쳐지고 있음을 봅니다. 이 히브리서 7:25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교리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 구절은 시간의 개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았고(행 16:31),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으며(요 3:16) 그리고 결코 멸망치 않을 것입니다(요 3:36). 갓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구원받기까지의 시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삶을 향유하게 됩니다(엡 2:8-9).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가장 충만하고 높은 수준의 상태로 인도하고자 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간절하게 구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완전히 누리도록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죄들로부터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8-10에서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삶을 누리도록 하신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대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은 그분의 생명이며 아들로써 현재 살고 계신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받고 죄의 형벌로부터 확실히 구원받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육신의 짐을 잠시 짊어지고 살지만 계속 구원받고 있는 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게 해주시려고 살아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은 다음과 같이 계속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곧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이 지상에 오시기 전에 거룩하였고 흠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시점부터 흠 없고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지상에 오셔서 인간의 삶을 사셨으나 여전히 거룩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 사탄, 친구 그리고 적들로부터 모든 공격을 당하셨으나 흠이 없으셨습니다. 모든 시험을 당하셨으나 한 순간도 죄에 물들지 않으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삶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걸으시고 그리고 일하시면서 죄인들과는 분리된 삶을 사시면서 예수님은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사역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겪으셨고 무덤에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완벽하게 의로운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습니다.” 이 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환경에서 그리고 같은 성품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신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의 혼은 구원

받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아직은 집요하게 과거의 삶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성품에 따라 사는 방법을 알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도록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흠 없는 삶을 사는 방법을 보여주실 수 있는 한 대제사장이 하늘에 계십니다. 이 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늘에서 지상으로 오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그 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죄인으로 살고 있지만 그것과는 분리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분께서는 우리를 “끝까지(to the uttermost)” 구원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저 대제사장들과 같이 먼저 자기의 죄들로 인하여 날마다 희생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드리실 때에 이 일을 단 한 번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구원의 문맥에서 이 구절은 갈보리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희생은 모든 인간의 죄의 대가를 영원히 지불하였다는 위대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제는 히브리서 10장에서 다루어집니다. 이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론 이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은 이십 년이 지나서야 그 직무로부터 은퇴하게 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집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상의 직무들, 예를 들어 뼈를 새로 만들 만큼의 뜨거운 불을 피우며 짐승들을 죽여서 그 시체를 수습하는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합니다.⁶⁾ 우리의 대제사장은 이런 임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직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6)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저자의 말라기 강해를 참조하기 바란다.

전가되게 하고 우리의 관심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대제사장을 우리가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든 관심도 갖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들로 삼거니와 율법이 있는 뒤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무궁토록 거룩히 구분된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삼느니라.” 그리고 이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신 분이 이 지상에 오셨을 때 입었던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이제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코 주무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 멈추시지 않으시고 다른 곳으로 사라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른 임무를 수행하러 가지지 않으십니다. 목수의 연장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해야 할 설교도 없으시고 방문해야 될 회당도 없고 다른 도시들을 돌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이 영원히 해야 할 단 한가지 사명은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하고 흠 없으며 더럽혀지지 않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11-14에서도 살펴 보겠습니다. 이 주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그분의 위대한 사역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할 것이다)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 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구속은 그분의 죽음과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은 무엇인가를 더 이루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

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 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 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이 위대한 대제사장의 임무는 우리의 구원이 시작될 날로부터 완성될 때까지 진행될 것입니다. 그분의 피로 구속된 성도들을 위한 그분의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사역을 이룰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히브리서 10:19-22에서 완벽히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 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시므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그 어떤 장막도, 휘장도, 산속의 불도 그리고 어떤 어둠의 하늘이나 궁창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중한 피로 씻겼으므로 담대히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옳이 그렇게 바랐던) 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가 갈 수 없었던 장소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말한 것들에 관한 요점은 이것이니 곧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들에서 존엄하신 분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시는 분이신데 이 성막은 주께서 치신 것이요 사람이 친 것이 아니니라.”(히8:1-2).

제7장

인간의 삶을 경험하신 하나님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몇몇 내용들은 자주 논의되는 주제들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주제를 향해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이 하시는 사역을 칭송하고자 그리스도인들은 몇 가지 내용을 자주 인용하곤 합니다. 때로는 이런 내용들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불행히도 대다수의 주님의 자녀들은 성경적 진리에 반하는 이런 내용들에 빠져 있습니다.

신자들이 성경에 근거한 것으로 생각하는 다음의 내용들을 살펴 보겠습니다.

-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나 죄인들은 사랑하십니다.

- 하나님께서는 누가 그분께로 나아올지 아시며 마지막 혼이 구원받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없어지게 된다(이와 유사한 교리를 포함).
- 주님께서는 자신의 기적을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
- 정결함은 경건함 다음으로 중요하다.

이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이번 주제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는 주장들이라도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면 이를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라는 주장은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고 있다. 결국 이에 부합하지 않은 주장을 약간이나마 시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경이 되고 말 것입니다.⁷⁾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가 전에는 몰랐던 사실들을 배워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소 생소한 이 주제를 성경에 근거해서 접근하고자 하는바 인내심을 갖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육신 안에 나타나셨고 100%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완벽한 삶을 사셨으며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른편에 다시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시점에, 하늘에 계셨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은 과연 인간으로서 이 지상에 사시는 동안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과연 이 전보다 더 나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들에 대

7 저자의 저서인 "Fascinating Truths" 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가? 라는 장을 참조하길 바랍니다.

해서 철저히 성경에 의존해야만 합니다.

다음 성경구절들을 비교해 봅시다.

우리는 이미 히브리서 4:15를 공부했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반면 야고보서 1:13-14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아버지 하나님은 결코 육신의 몸을 입고서 의로운 길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기회에 접하신 적이 없습니다. 창조 이후 그분은 다른 사람들이 시험 받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험을 통과하였으나 많은 인간과 천사들조차도 통과하지 못한 경우를 하나님은 지켜보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 자신이 유혹을 경험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련을 명령하고 처벌하고 보상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에 직면한 인간과 하나가 되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상황은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누가복음 4:1-13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인간)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모든 인간이 따라가야 할) 요르단에서 돌아오시고 성령에게 인도를 받아(예수님은 순종의 삶을 사셨음) 광야로 들어가사(올바른 길은 때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됨)”

“사십 일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Being이라는 단어는 거룩한 사람의 아들에 대한 악한 마귀의 공격이 지속적이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서는 그분께서 이런 공격을 전혀 알지 못하셨다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현재 예수님은 하나님이며 인간이신 존재로서 시험과 시련 그리고 이전에 없었던 사탄에 대해 경험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 날들에 그분께서 아무것도 잡숫지 아니하시더니(육신의 약함을 증가시켰습니다.) 그 날들이 끝나매 그 뒤에 그분께서 주리시니라(이 주제는 나중에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에게 명령하여 그것이 빵이 되게 하라, 하니” 요점 #1: 육신의 정욕 - 배고픈 인간을 위한 빵.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인간의 나약함과 고통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 기적을 사용하셨으나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경험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분은 인간으로서 육신의 정욕을 대면하셨으나 그것에 정복당하지 않았었습니다.

“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그분께 보여 주며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경배하면 모두 네 것이 되리라, 하매” 요점 #2: 안목의 정욕 - 모든 왕국의 영광.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그 어떤 인간이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담에게서 얻은 세상의 왕좌를 가진 자가 이제 그것을 마지막 아담에게 주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왕국을 자신의 권리와 능력으로 취할 수 있었으나 사람의 아들이 그것을 얻어 그분께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루시퍼로부터 왕국을 취하시거나 혹은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두 경우 모두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된바, 너는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단 한 순간도 이 모든 세상을 얻기 위해 사탄에게 경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버지께 순종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그분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의 모든 왕국들의 최고 통치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종이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가 또 그분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된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매” 요점 #3: 생의 자랑 - 당신의 영광을 보여 주기 보다는 영광스러운 겉모습을 만드십시오. 아버지의 선택은 말구유에서의 하찮은 탄생, 이집트로의 난민생활, 무명한 목수의 삶, 학식이 없는 사역과 범죄자로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인간이 영광의 도시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 그 사람만이 그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인간)께서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주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답하셨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마치고 한동안 그분을 떠나니라.” 예수님은 야고보서 4:7에 나타난 길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수세기 동안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될 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탄의 유혹과 시험 그리고 인간의 약함에 대해 과연 아실까 하는 의심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그분은 인간이시며 그리고 인간으로서 모든 종류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처녀탄생의 예언은 이 거룩함에 대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7:14-15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버터와 꿀을 먹겠고 이로써 악을 거절하며 선을 택할 줄 알리니”

지난 4,000년 동안 인간은 시험을 받을 때마다 인간의 처지를 결코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께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지낸 이후 시험 받는 우리를 위해 더 뛰어난 사역을 하실 수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2에서 우리는 광야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날들에 그분께서 아무것도 잡숫지 아니하시더니 그 날들이 끝나매 그 뒤에 그분께서 주리시니라.” 마태복음 21:18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침에 그분께서 도시 안으로 되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시더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드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약함을 경험하신다는 생각은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시편 50:10-12에서 하나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살펴봅시다. “숲의 모든 짐승과 천 개의 작은 산 위의 가축이 내 것이니라. 산의 모든 날짐승도 내가 알며 들의 들짐승들도 내 것이로다. 가령 내가 주린다 할지라도 네게 말하지 아니하리니 세상과 거기의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가장 높은 곳에 계

시는 하나님께서는 배고픔 같은 인간의 나약함을 알아보려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광야에서 빵을 찾을 필요가 없으며, 무화과나무의 과실을 찾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점심을 구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지상에 오셨기에 이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르스 언덕에서 바울이 하늘에 계신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 분을 바라보며 이방인들에게 설교한 내용을 살펴봅시다.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시므로 손으로 만든 전물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오시자 어머니의 젖이 필요했으며 다른 인간들처럼 성장하기 위해 빵과 생선을 비롯한 다양한 음식을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더 멀리 이해하도록 해 봅시다.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승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인간들은 자신들의 배고픔을 지켜보는 보았으나 그 고통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히4: 15).

창세기 1:1-7을 살펴봅시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의 한가운데 궁창이 있고 또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의 물들에서 궁창 아래의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분은 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또한 다스리는 분이시기도 하다.

욥기 38:25-28에서 우리는 그분의 창조에 관한 권능에 대한 설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넘쳐흐르는 물을 위하여 물길을 갈라놓았으며 혹은 천둥의 번개가 다닐 길을 갈라놓아 그것으로 하여금 아무도 없는 땅과 아무도 거하지 않는 광야에 비를 내리게 하며 황폐하고 피폐한 땅을 흡족하게 하고 연한 채소로 하여금 싹을 내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혹은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하나님은 비와 이슬의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권능은 이사야 40:12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누가 자기 손바닥으로 물들을 되고 뿔으로 하늘을 채며 되로 땅의 먼지를 담고 큰 저울로 산들을, 작은 저울로 작은 산들을 달았느냐?”

우리는 놀랍게도 그리스도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지치시고 필요를 구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6-7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런즉 예수님께서서 여행에 지치셨으므로 우물에 그대로 걸터앉으시니라. 때는 여섯 시쯤 되었더라.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길으러 오매 예수님께서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시니” 구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물과 바다 그리고 비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심을 선포하심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겸손한 자세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의 지친 몸을 위해 마실 물을 구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하나님에 대해 기술할 때 그분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모욕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여 내게 근심이 가득하므로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찾았으나 아무도 없었고 위로할 자를 찾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또한 쓸개즙을 나의 먹을 것으로 주며 내가 목마를 때에 내게 식초를 주어 마시게 하였나이다.”(시69:20-21). 하나님이 어떻게 갈

증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시간이 흘러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리고 거기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요19:28).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인간이 느끼는 갈증을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갈증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전 인류의 죄를 위해 고통 받으시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지옥의 불꽃 속에서 단 한 방울의 물을 구하는 그 부자의 상황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생명수가 샘솟도록 하기 위해 아들하나님이 감내하신 그 고통의 깊이를 그 누가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4,000년 동안 하나님의 눈앞에 펼쳐진 시간을 생각해 봅시다.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사막과 바다에서 갈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보았고 병상에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는 있었으나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지 않았기에 그 고통을 경험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들하나님이 아버지의 오른편에 올라가셨을 때에는 인간이 겪는 그 고통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육신적 고통의 문제를 살펴봅시다. 욕은 재 가운데 앉아 자신의 몸을 굽으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고통을 전혀 알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나머지 부분에서 인간이 겪는 수없는 고통이 발견됩니다. 전쟁에서의 상처, 채찍질, 질병, 종기, 전염병 등으로 인간은 죄로 인해 대가를 치르며 갑작스럽게, 때로는 점진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늘의 왕좌에서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살펴보시고 의로움으로 인해 모든 고통을 잘 견딘 자에게는 보상을 그리고 불법을 저지른 악한 자들에게는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욥기 14:1-5를 살펴보겠습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며” 예수님께서서는 여자에게서 태어났기에 그의 날수는 짧았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이 상황을 완전히 경험하신 것입니다. “꽃과 같이 자라나서 꺾이고 또한 그림자처럼 사라지며 계속해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타락한 인간이 직면하게 되는 죽음과 다양한 고통들이 그분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의 날들이 정하여졌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주께서 그의 한계를 정하사 그가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만일 이 성경구절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면, 이는 예루살렘 성벽 외곽에서 어느 유월절에 죽을 목적으로 한 여인에게 태어난 그분에게도 적용됩니다.

욥기 5:6-7은 다른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인간 아버지는 없었으나 성경에서 규정하는 인간 삶의 본질로부터는 피하실 수 없었습니다. “고통은 티끌에서 생기지 아니하며 고난은 흙에서 솟아나지 아니할지라도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창세기 3:17-19에서 아담에게 선언된 심판을 다시 한 번 잘 살펴 봅시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또한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네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네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를 모르시는 분이었으나 죄로 저주받은 땅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분은 아담의 씨가 아니셨으나 슬픔과 고난이 그분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셨으나, 인간으로서 노동의 대가로 땀을 흘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아들하나님은 자신이 저주의 결과로 가득한 땅에서 사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직접 몸으로 배우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육신이 겪는 일반적인 고통을 겪으셨을 뿐 아니라 극한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선을 행한 분께 죄인들이 어떻게 악을 행했을지도 끔찍했지만 그 육체에 가해진 고통의 크기와 정도 또한 끔찍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6:67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들이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분을 주먹으로 치고 다른 자들은 자기 손바닥으로 치며.”** 군인들은 자신들의 손과 주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가해했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예전에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없었으나 이제 인간으로서는 고통의 경험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1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빌라도가 이런 까닭에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예수님은 군인들로부터 채찍질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을 통해 예수님의 등이 갈라졌는데 이는 대언자들이 예언한 것입니다. **“발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자기 고랑들을 길게 내었도다.”**(시 129:3).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이 느끼는 고통을 이해하시는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29-30에서는 사람의 아들이 경험했던 매우 심한 고통의 다른 측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분의 오른손에 쥐어 주며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을 조롱하며 이르되,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하고 그분께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치더라.”**(이로써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머리 안으로 가시가 박혔습니다). 구약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을 경험

하셨다는 기록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머리가 고통을 당하고 육신이 찢기며 고통 받는 순간 그분이 누구에게 의지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기도를 하늘에 전달하실 수 있었으나 그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고통을 친히 경험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한 변호자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18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는 팔과 다리에 박힌 못들과 십자가에 달린 고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의 수난”(행1:3)에 대해 대언자는 이사야서 50:4-6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학식 있는 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내가 피곤한 자에게 때에 맞는 말을 할 줄 알게 하시나니 그분께서 아침마다 일깨우시되 나의 귀를 일깨우사 학식 있는 자같이 듣게 하시는도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주고 머리털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주며 수치와 침 뱀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온 이 분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고통가운데 계시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어둠과 고통의 세상에서 인간으로 사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경험하시고 아셨습니다.

악한 자들이 여인에게서 태어난 인간 중 유일하게 의로우신 분을 학대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더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너를 보고 놀랐느니라.”(사52:14). 이것은 사악하고 잔인한 인간들이 그리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예수

님은 인류 역사 전체에 걸쳐 모든 사람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 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일들을 겪으 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로는 고통당하는 인간을 완벽히 구조해 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언급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성령님을 통해 사도행전 8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의 위대한 말씀을 살펴봅시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이 구절은 십 자가에 매달린 주님의 부서진 몸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부상과 구타와 온갖 육신적 고통을 그분은 견디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육체적 고통이 대단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인간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전부 지불하기에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대제사장, 중재자, 변호자와 증보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선 그 이상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주님의 사역이 완전해지기 위해서 주님은 인간으로서 정신적, 육신적 그리고 내적으로서의 희생을 치러야 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행위 그 자체에 대한 죄뿐만 아니라 그 행위로 생긴 뿌리 깊은 결과에 대해서도 처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디선가 술에 취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가정합시다. 재판이 열렸고 그 사람은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정의는 살아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 행해진 범죄는 처벌받았으나 가족을 잃어버린 그 아내의 마음의 깊은 상처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범죄에 대한 행위는 그 대가가 치러졌을지라도 남아있는 희생자 가족들의 고통

은 어떨까요? 그리고 살인자의 상처받은 부모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이 한 범죄로 발생한 훨씬 더 깊은 상처와 고통이 존재합니다. 모든 죄로 인한 결과는 최초에 영향을 준 곳에서부터 매우 멀리 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으로서 육체적 고통 그 이상을 경험하셨으며 이사야서 53:4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죽음만이 아니라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슬픔과 정신적인 고통도 함께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죄로 추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이브는 두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간음의 대가를 치렀으나 네 명의 자녀가 죽었고 네 명의 어머니와 네 명의 할머니들이 슬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파라오, 느부갓네살, 히틀러, 교황, 양조업자, 전쟁 그리고 모든 인간의 죄로 인해 그들이 지불해야 하는 모든 비용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으로 갔으나 그것이 그들의 사악함으로 발생한 모든 슬픔의 끝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채찍질과 구타의 고통뿐 아니라 죄로 인해 발생한 모든 종류의 고난을 자신이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경험했던 인간적 감정들을 차례로 살펴 봅시다.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이런 종류의 경험들은 하나님께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1:35.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에 대한 슬픔의 눈물입니다.

요한복음 11:38.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시며 무덤에 가**

셨는데 그 무덤은 동굴이며 그 위에 돌이 놓였더라.”

예수님이 무덤을 보시고 내적으로 신음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34.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하시니 그것은, 열리라, 는 뜻이라.”

이 세상 죄의 임재로 발생한 인생의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 대한 슬픔입니다.

마가복음 8:12.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는 아무 표적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모든 인간에게 최선을 것을 주시려고 했던 분께서 불신으로 가득한 인간의 삶에 대해 실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34.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버지와 분리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있어서의 그분이 보여주신 말할 수 없는 감정의 표현.

누가복음 19:41. “그분께서 가까이 오사 그 도시를 보시고 그 도시로 인해 슬피 우시며”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과 그 장소가 파괴될 것을 생각하시며 보여주신 마음의 아픔.

요한복음 13:21.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으로 괴로워하사 증언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하시매”

친구지만 배신자인 자를 대면함으로 발생한 내적인 괴로움.

마가복음 3:5.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므로 그분께서 근심하사 분노하시며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앞으로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의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니라.”

그분께서 지상에서 함께 보낸 사람들의 마음 상태로 인해 발생한 아픔과 끝없는 실망감.

이런 감정들은 모두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것들 모두는 고통과 슬픔의 표현입니다. 이런 감정들을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경험하셨고 이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제는 더욱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은 다른 아님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섬기고 계신 그분이십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사53:3).

그분은 멸시당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우리의 감정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한 모든 감정과 버림받은 존재인 우리 인간을 위해 사역할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나 그 누구도 찾을 수 없고, 위로를 구하나 어떤 곳에서도 위로 받을 수 없으며, 지원을 요구하나 자신만을 의지해야 하는 우리의 고통과 마음을 예수님께서서는 이해하시고 그 공허함을 채워주시기 위해 우리 앞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동일한 성경구절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지(was)와 동시에 어떤 분이신지(is)를 읽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계시며, 거부당하십니다. 그는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이십니다.”

그분은 멸시당하십니다! 이 수십억 인구 가운데 한 사람만 우리를 멸시해도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주 예수님을 증오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아무도 셀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경멸이나 무시를 당하면 바로 공격을 가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저주받았고 그 어느 사람보다도 조롱당했습니다. 우리의 평안과 기쁨은 우리가 좋아하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충분한 관심을 보여주지 못하면 사라집니다. 그분은 인간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 만큼 모든 인간을 사랑했으나 몇몇 인간만이 그분을 안다고 시인하였습니다. 더구나 적은 수의 사람만이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였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조롱하는 것 말고는 그 어떤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그분께서는 자신이 인간들 가운데서 받는 경멸의 의미를 아셨으며 인간으로서 가장 저주받는 삶이 어떤 것인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적이 더 많았고 그분에 대해 거짓말과 잘못된 생각들을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를 완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시는 걸까요? 그분은 오래 참음, 선함 그리고 긍휼을 항상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분은 자신의 긍휼과 자비와 온유함을 늘 유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그분은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복음 전도지는 거부당하여 땅에 떨어지고, 전도하는 성도들은 문전박대 당하고, 코미디나 만화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비웃으며, 모든 회교도들은 전쟁을 위해 기도하고, 모든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우며, 연구하는 사람들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어린양보다 모든 면에서 더 자주 거부당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시면서 그

분은 이 모든 것들을 견디시며 아버지께 항상 헌신하셨고 자신을 비웃고 경멸한 인간들에게도 끝없는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분은 아직 죄인인 자들을 위해 자신의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 순수하고 겸손하신 그분을 배우러 더 가까이 다가갑시다.

그분은 슬픔의 사람입니다! 그분이 경험한 슬픔과 우리의 것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찢긴 마음의 상처가 그분의 실망감과 비교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아마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먼저 보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사로의 죽음과 그 옆에 있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슬픔 같은 상황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매 순간,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죄로 타락하는 모든 자녀를 바라보는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자녀가 탕자가 되어서 해매는 모습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어머니의 자녀들이 반역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분을 생각해 봅시다. 믿는 친구가 당신을 배반하는 경우를 당해 보았습니까? 그분은 얼마나 많은 유다를 지켜보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어떤 인간이 이 모든 짐을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인간이 이 모든 슬픔의 무게를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인간이 아담의 죄로 인한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 누가 위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53:3에서 말씀합니다. ‘그분은 인간이십니다. 아니 진정한 인간이십니다!’

그분은 슬픔을 잘 아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슬픔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슬픔의 경험을 되도록 피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친히 그 경험을 하고자 하셨습니다.

슬픔은 우리가 무엇을 잃거나 불행을 당하거나 혹은 부상을 통해서 발생하는 심리적 고통의 상태입니다. 짧게 말하면, 에덴의 동산에서 금지된 나무에 열린 그 열매가 고통인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그 첫째 아담의 반역으로 생긴 모든 결과를 지拂하고 더 나아가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슬픔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자신의 삶을 드린 것입니다.

슬픔은 후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았으면, 하지 말았어야 할 말들을 다시 담기를, 그리고 다른 선택을 했으면 바랍니다. 이 현재 삶에서 이미 우리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두 번째 기회는 주어지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후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시는 한 인간이 계십니다.

슬픔은 당신의 친구가 사망한 경우, 어떤 일에서 손실을 당한 경우, 심리적 혹은 육체적으로 해를 당한 경우 등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런 모든 종류의 슬픔과 고통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고통을 완벽히 경험하시고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자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슬픔을 초래하는 원인들을 살펴봅시다.

잘못된 배우자를 만나는 한 자녀(창26:35).

아이를 갈망하는 불임 여인(삼상1:16).

전쟁에서 다른 사람을 죽인 사실을 기억함(삼상25:31).

건강, 자녀, 집, 재산 및 배우자를 잃어버리는 것(욥2:13).

적들 (시6:7).

고난 (시31:9).

육신이 늙는 것 (시31:10).

상처가 되는 말 (시69:26).
어리석은 자녀 (잠17:25).
이 세상의 길들에 관한 지식 (전1:18).
밤에 안식을 얻지 못하게 하는 일상의 염려(전2:23).
민족의 타락 (렘6:7).
부상 (렘10:19).
적들이 처벌 받지 않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 (욥4:6).
교회 안에서의 범죄 (고후2:5).
불순종하는 자들의 행동에 대해 결산하는 일(히13:17).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 (벧전2:19).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인간이 매 순간 겪는 고통 하나하나를 겨우 이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인간에게 온 모든 죄의 높이와 깊이 그리고 길이와 그 폭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그것들을 자신이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었고 우리는 그분의 무한하신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진리는 모든 독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어야 마땅하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가 이번 장에서 제시한 담대한 진술들에 대해 적극적 지지를 보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 장에서 거룩하신 아들이 인간이 되신 결과, 배우시고 성장하셨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진술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알아볼 것입니다.

제8장

예수님이 배우신 것

우리는 7장에서 아들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이 지상에서의 삶, 즉 연약한 인간의 모습, 즉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 과거 하늘에 계셨을 때에는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알고 다시 하늘로 돌아가셨다는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과거에 알지 못했던 혹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아담의 자손들을 이제는 과거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증명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히브리서 2:9-10을 다시 살펴봅시다.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인간으로서 그분의 이름과 그분이 인간이 되심으로 낮아지신 것을 언급하십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이 위대한 진리를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주장은 매우 놀라운지 몰라도, 우리 개인의 의견과 편견을 배제하고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고통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한다면, 하나님은 인간이신 예수님으로 이 지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함(Perfect)이란 죄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인데 이는 무엇을 끝까지 완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완성하고 모든 것을 끝냈다는 의미이며 결점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완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특성과 본질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완전함은 죄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2:10에서는 인간으로서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는 완벽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과 완벽한 화해를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율법, 희생제물, 제단, 양심, 하늘들의 증언들과 다른 모든 수단을 통해서도 죄로 인해 초래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분리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모형과 예표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과 소통하고자 하는 그리고 인간의 필요를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벽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하나님이 할 수 없었던 경험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 그리고 고통

과 슬픔을 경험하신 하나님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다음의 예를 살펴 보시다.

시편 121:4-5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로다. 주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그러나 육신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 보시다. 그분의 제자들이 바다의 폭풍 속에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분께서는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그들이 그분을 깨우며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며,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매”(막4:38). 배 위에 계신 그분이 피곤함을 느꼈다는 사실은 우리 육신의 일상적인 연약함과 무능력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더 완벽히 이해하십니다. 졸고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시다. 정말로 경이롭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2:16-18을 보시다.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주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함께 될 필요가 있었으니 (그분의 성육신으로부터 가능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결과로 그분의 권능이 개선되거나 확장된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그분은 시련을 겪으셨기에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의 필요를 더욱 충족시켜 줄 수 있으십니다. 부활하신 사람의 아들이 과거에는 하지 못했던 그 무엇인가를 이제는 할 수 있음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다른 주제로 살펴보았던 성경구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14-16과 5:7-9에서 우리는 복된 진리를 풍성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신성) 예수님이 (그분의 인성) 계신 줄 알므로 (그분이 올라가시긴 전에는 다른 곳에 계셨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예수님은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분은 우리가 겪게 될 모든 시험에 대해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에 (육신으로 오신 아들 하나님)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로서 뒤에서 살펴 볼 내용)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그분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여기서 아들은 영어 대문자로 시작하는 ‘Son’ 을 의미. 즉, 아들이심) 친히 고난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인간으로서 배우셨습니다) 순종하기를 배우사 (명백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즉 말씀이신 그분께서 배우신 것이다.)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엄청난 진리가 여기 두 번째 나타나고 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앞의 성경말씀은 매우 충격적인 선언인 동시에 그 의미가 매우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방금 인용한 성경구절에서 가장 극명히 나타납니다. 그분은 배우시고 우시고 또한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하게 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받아

들이기에 너무나 큰 것이며 또한 거부하기에는 너무도 경이로운 사실입니다. 이 진리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는 동안에” 우리가 읽은 것들은 영원이 아닌 어느 시점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말씀(Word)이셨던 분의 특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신 후에 그분께 일어난 일들입니다.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주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올리브 나무 밑에서 아버지께 도움과 능력 그리고 용기와 은혜를 구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자. 정말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대단한 인간이 아닌 정말로 평범한 인간으로서 그분께서는 약하셨고 겸손하신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까? 모든 것을 공급하는 분이신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전능하신 그분께서 죽음 앞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런 감정을 보여주는 구절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거룩한 진노로서 의로우신 진노 가운데, 그분은 그 어떤 눈물도 흘리지 않고 노아시대의 날을 홍수로 잠기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분노로서 그분은 소돔과 고모라를 도시를 불태우시며 단 한방울의 눈물로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징별하고자,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있었으나 그분은 슬퍼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신다고 선언하셨으나 우리는 하나님이 사망이나 정죄에 대해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단서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은 서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해변에서 그분 위로 지나가는 모든 파도와 풍랑을 바라보게 된다. “그분

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눅22:44).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저자는 이 구절에 대한 매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함을 잘 알고 있으며 또한 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으셨다고 우리를 설득하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제시하는 진리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마의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혹은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기도했는지에 관계없이 그분이 두려워하셨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분이 요청했던 것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은 어떤 한 인간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되시고 자 하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한 죽음이 아닌 모든 죽음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단 한 가지 죄로 인해 죽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통해서 행해진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이런 엄청난 두려움과 진노의 공격에 직면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런 죄의 결과와 형벌과 직면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육신의 모습으로 그 모든 것을 견디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지상에서의 밤에 아무 도움 없이 하나님이 죄인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에덴동산에서 숨었던 아담이 되었고 다른 곳으로 도망하는 가인과 라멕이 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 밖의 홍수가 넘쳐오는 가운데 한 타락한 여인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유월절 밤에 통곡하

던 이집트 신하의 모습으로, 침입하는 적으로부터 도망치는 가나안 사람으로, 떨어지는 불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소돔의 한 청년으로, 역겨운 나병에 걸린 한 환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먹을 음식을 구하지 못한 나이든 과부의 모습이 되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인간이 죽게 되는 원인들, 즉 전쟁과 총칼, 질병, 살인과 사고와 자살, 폭탄 그리고 모든 죽음에 직면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시대에 흘려진 눈물을 담은 잔을 자신의 손으로 친히 잡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슬픔과 질곡 그리고 눈물과 저주를 친히 마시고자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의 눈물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열거된 수천 가지의 죄의 목록들, 이 지상에서 살았던 모든 혼들 그리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개인의 범죄를 생각해 봅시다. 그 모든 것들을 모두 합산해 봅시다. 그리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께서 이런 죄들에 대해 얼마나 혐오하시며 어떻게 처벌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강력한 진노입니다! 순수하며 거룩하고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진노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과 죄에 대한 분노.

이 모든 것이 한 잔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잔은 사람의 아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마시는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이 책을 잠시 접어두고 그분이 직면했던 이 두려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봅시다.

주님의 말씀을 적힌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4천년 인간 역사 동안 인간은 항상 두려워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혹받아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두려워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죄를 지은 이후 발생할 것들에 대해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뿌린 것에 대한 대

가를 받을 것에 대해 두려워하기도 하였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에 대해 죄를 짓는 것에 대해 두려워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지은 죄를 바라보며 그것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 자신들이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일정 거리를 두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었으나 그들의 두려움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 어떤 것도 가감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후로 그분을 믿은 사람들은 인간의 두려움을 경험하신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감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죽음, 진노, 심판, 분리, 어두움 그리고 고통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더욱이 인간을 사랑하시나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과 반대되기에 응답해 주실 수 없는 특별한 고통까지도 경험하셨습니다. 셀라.

예수님은 두려움을 배우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배우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 배우사” 우리는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전에는 소유하지 못했던 지식을 습득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배운 것은 무엇일까요?

“순종” 우리가 앞에서 논의했던 바와 같이 명령을 주는 것과 그 명령의 무게 아래 실제 삶을 사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육신의 모습 아래 신성한 법규를 지키도록 명령하는 것과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취하여 그런 규제 안에서 사는 것도 다른 일입니다. 나는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데 반대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요구했던 그런 삶을 인간으로서 그분께서 사셨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는 가지지 못했

던 인간에 대한 동정과 이해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예수님이 결코 아버지의 뜻을 반대하였거나 혹은 성경의 요구에 대해 불만족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고난과 고통 그리고 역경을 순종으로써 그분은 감내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구절을 통해 중요한 조항을 발견하게 됩니다. “친히 고난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하나님에 복종하기 위해 그리고 그 값을 지불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배우신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아래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몇 가지 경우를 살펴 봅시다.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벧전2:21-23). 죄 없으신 인간으로서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은 인간들이 당신에 대해 경멸하는 말씀을 그분은 들으시고 견디셨습니다. 정신적 고통이 육체적 고통과는 다를지라도 예수님은 사악한 인간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말들을 통해서 고난을 받으셨음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한 인간이 아버지의 능력 안에서 어떻게 강해지며 의롭게 되는지를 충분히 경험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행하는 일들을 하는도다, 하시매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는 음행을 통해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니로다, 하거늘”(요8:41).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도 자기 어머니에게 가해진 모욕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신성모독이 흔치 않았던 시절에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장 심하게 공격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의 어머니를 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친인 마리아를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반격하며 죄를 짓지는 않았을지라도, 분명히 그런 모욕은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시니 사람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마귀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 하매”(요7:19-20).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다른 사악한 사람이 고결한 성품을 가지고 사는 당신의 삶을 거짓말쟁이라고 부른다면 이는 실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진리가 육신이 되어 오신 분께서 타락한 죄인들로부터 거짓말쟁이라고(사탄적인, 요8:44) 계속 비난당하는 것은 상당한 고통을 수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사악한 자들이 자신을 경멸하며 거짓말쟁이로 고소하고 살인의 감정으로 가득한 인간들이 당신을 더러운 영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비방을 듣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친히 배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의 의미도 함께 가지고 가셨습니다.

다른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부를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요 신성모독 때문이니 곧 사람인 네가 네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니라, 하매”(요10:33). 주님을 위해 살고자 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와

비슷한 모욕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경우 사랑스러운 마음을 소유한 예수님께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분은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 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논쟁을 통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분에 대해 악한 내용뿐만 아니라 육체적 그리고 영적인 기원에 대한 악의적인 결론을 펴뜨리고 있습니다. 온전히 한 인간의 마음과 감정 그리고 영을 가지고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자신의 면전에서 불경스러운 말을 내뱉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사마리아 사람이요 마귀 들린 자가 아니냐고 질문하셨습니다.(요8:48).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 너는 네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요8:52).

현재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거나 부당한 비판 혹은 잘못된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아들은 이 모든 것과 그 이상의 것들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인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은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정확히 배우셨습니다.

여기서 빌라도의 심판 상황을 살펴봅시다. 그는 타락한 대중을 만족시켜야 했으며 자기 자신도 사악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과 대중이 불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빌라도는 올바른 일을 행한다는 것이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성난 군중에게 예수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징계하고 놓아주리라, 하니(이는 그 명절이 되면 그가 필연적으로 반드시 한 사람을 그들에게 놓아주

어야 하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다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이 사람을 없애 버리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라. (그는 그 도시에서 일어난 어떤 폭동과 살인으로 인해 감옥에 갇힌 자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매”(눅23:16-21).

어느 인간도 이런 분노의 폭동에 대해 의연히 대처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까닭 없이 그분을 미워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요15:25). 하물며 이런 증오가 현재 그들이 경멸하는 한 사람의 마음과 손으로부터 나온 수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온 것이라면 얼마나 힘들까요? 예수님은 눈먼 자에게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병어리에게 말할 수 있게, 귀머거리에게 청력을 주시며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나병환자를 치유하시며 인간들의 배고픔도 채워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호산나를 외치던 그들은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없애 버리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온전한 인간이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의 경멸로 인해 내적인 심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향해 돌아설 때,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친구들에 의지해서 그들의 사랑과 동정을 구하곤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매우 가까운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들과 같이 일하고, 여행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식사하셨다. 그들은 같이 웃고 찬송하며 같이 주무셨습니다. 같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서로의 품안에서 지내며 승리와 실패를 같은 뼈에서 나눈 동지वाद 같이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친구들을 필요로 했을 그날 밤에 예수님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잠에 빠졌으며 예수님의 적들이 덮치는 그 순간 제자들은 도망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모든 제자들이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마26:56). 그분이 겪으신 고통과 그것을 통해서 배우신 것들!

우리의 주님께서 마침내 갈보리에 도착해서 그 잔인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자신이 지식으로 알고 있던 고통을 인간으로 친히 그 고통의 극한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육신 가운데 겪으신 그 육체적 고통의 크기를 감히 논할 수 없으며 아버지의 진노와 관련된 그 생각에도 미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의 내적인 고통을 친히 배우셨다는 생각을 통해서 그분이 다른 인간을 다루실 수 있다는 생각만을 계속해서 할 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인간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성취하시려 감내하신 그분에 대한 모든 증오의 말과 행위들을 깊이 있게 생각해 봅시다.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고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네 자신이나 구원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수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그분을 조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그분께서 그를 원하시면 이제 그를 건져 내실 것이라.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같은 말로 그분을 욕하더라.”(마27:39-44).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고 고난과 고통 그리고 슬픔과 고뇌를 친히 교육받으시고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하셨습니다!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우리는 아무리 이런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의 아들 예수님은 완전하게 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이 지상에 오셨을 때는 불완전했으나 다시 하늘로 승천하는 시점에서는 완전하게 됐음을 의미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다는 그 이유만으로 주님으로부터 온 선물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깨끗케 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며 성도들을 하늘로 데리고 가신다는 사실과 그리고 수많은 다른 진리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기에 나는 이 진리들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 신격의 한 존재이신 분이, 인간으로 33년 반의 생을 이 지상에서 사시고 이로 인해 연약한 인간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한 더 좋은 사역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한다면 그것은 사실이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 영원한 영광을!

“그분은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며 그것은 영원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인간의 피를 흘리심으로 죄의 대가를 완전히 지불하셔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아버지, 말씀, 성령)은 이 세상의 기초를 세우실 때 이미 타락한 인간의 구속을 계획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사 흠과 점 없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그 이전에 이 영원한 구원은 약속과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권능에 따라 그분은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된 것입니다.

그분은 성취하러 오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배우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함이 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겸손한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장을 끝내기 전에 한 두 구절의 성경을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7:23-26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참으로 다수의 제사장이**

있던 것은 죽음으로 인해 그들이 항상 있지 못하였기 때문이로되...” 따라서 우리는 율법시대로부터 예수님 승천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제사장을 소유하였습니다. 그 대제사장들은 죽음을 맞이하기에 그들을 대체할 끊임없는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22절에서 예수님이라 불리는 한 인간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하늘로 돌아가신 후에 쓰인 성경이지만 아직 성령님이 그를 인간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지속적인 인성에 대해 주목하게 됩니다.

그분은 기원 후 33년 이후 계속해서 대제사장이셨습니다. 죄와 죽음은 그분께 복종하였고 그분은 변할 수 없는 제사장직분을 소유하셨습니다. 죽음이 그분을 데려갈 수 없었고 제사장의 성품은 계속해서 거룩했기에 제사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 제사장의 죽음과 다른 제사장 직분의 상속을 통해서 전체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실한 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을 올바르게 인도하였지만 다른 제사장은 타락한 성품으로 그 직분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항상 의로운 제사장이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영원하신 본성과 순결로 인해 그분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제를 넘어서 해야 할 얘기가 더 있긴 하다. 그분은 죄를 제외한 그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다. 그분은 세상을 만들고 파멸하고 다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태양과 달 그리고 별들과 말 할 수 있으며 그들을 만들고 유지하고 자신의 지혜와 권능으로 그것들을 채우고 거기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 파멸의 길로 들어가는 죄인들을 구원하는데 자신의 무한한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권능을 인간을 구

원하시기 위해 사용합니다.

우리는 비웃는 유대인들과 무관심한 이방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십자가 위에 매달린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종종 떠올리곤 합니다.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의 울부짖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구원할 수 있으나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을 피하지 않고 그것에 승리하셨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권능을 아껴둔 것입니다. 그분을 이 세상에 오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그분의 사랑이십니다. 그분을 십자가로 인도한 것도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분께 떨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아들인 것도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분은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했기에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 정말로 위대하시고 존귀하시며 영광스럽고 자비하신 구세주여,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히 변치 않은 제사장직을 소유한 그분께서 그분께로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여 주십니다.⁸⁾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고후5:14-15). 그분은 모든 인간의 구세주이십니다(딤후4:10). 모든 사람이 구원 받은 것은 아닙니다(계20:15).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벧후3:9). 그분은 사악한 자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겔33:11). 그러나 사악한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멸망할 것입니다(요8:24). 하나님은 죄인이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 어떤 인간도 나올 수 없습니다(요14:6). 어느 누구도 끝까지 구원 받을 수 있으나 구원은 반드시 아들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8 끝까지 구원하여 주신다는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경이로운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적들과 유혹을 이기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신 죄 없으신 그분께서는 자신의 마음속의 단 한 가지 목적, 즉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그분은 우리가 필요로 했던 그리고 지금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 곧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에 대한 성령님의 설명이다.)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하나님 신격의 두 번째 존재이신 분께서 항상 거룩하셨으나 항상 거룩한 인간은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해가 없으셨으나 해가 없으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더러움을 모르셨으나 이제 더러움을 입지 않은 상태의 인간으로 사셨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전에 그분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엄청난 크기의 어둠의 궁창으로 인해 죄인들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죄인들에게 나타나셨으나 그들의 타락한 본성에 대해 모르시는 그분께서는 인간과 분리되었습니다. 이 인간이신 하나님께서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는 구약시대 고통 받았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공허함과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고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받았던 위로와의 극명한 차이를 살펴봅시다.

전도서 4:1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학대를 깊이 살펴보았노니,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라.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편에는 권세가

있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위로자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위로자(Comforter)를 소유하게 되었고 복음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위대한 축복은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 배운 것들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요한복음 16:7을 읽어보자. “그러므로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학대를 깊이 살펴보았노니,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라.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편에는 권세가 있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이 구절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간 이유는 우리가 위로자를 선물로 받기 위한 것임이 명백함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위로자는 우리의 대제사장의 중보기도에 응답한 아버지의 첫 번째 선물이심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요14:16). 이 요구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생활하시고 배운 것을 기초로 이루어졌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4,000년 동안 아버지와 아들은 인간이 고통 받는 것을 바라보았으나 그 어떤 위로자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현재 인간의 고통과 힘든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경험하시고 우리 안에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신격이 거주하도록 신속히 제공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이라는 선물은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완화하거나 제거하기 보다는 우리가 직면한 모든 고난을 죄 없이 동일하게 겪으신 우리의 본보기와 권능 그리고 조력자이신 살아있는 그분을 생각하도록 하십니

다. 요한복음 15:26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날들에 제공해 주시는 방법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요14:26).

제9장

교회의 머리

이제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의 인성이 그분을 구세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의 매일의 삶속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신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삶이 끝났을 때 우리를 죽음에서 하늘로 데려갈 분으로만 인식되어왔습니다. 사실 그분께서 우리의 새로운 출생과 하늘로 이르는 그 날까지 하시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보다는 우리는 새로운 가족의 머리로서 하나님이며 인간이신 그분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인간의 삶은 매일 아담의 속성에 영향을 받기에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의 삶도 매일 그분의 영향을 받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승천에 관한 문제를 다시 보기 위해서 에베소서 1:20-23을 살펴봅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이 구절과 연관되어 에베소서 4:13-15를 살펴봅시다.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들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 성경구절들로부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분을 믿는 자들이 그들의 구세주와 같이 완전해지도록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우시며 머리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할 것입니다.

물론교나 다른 종교에서 들었던 내용과는 달리 우리는 결코 하나님처럼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며 이 분은 아버지, 말씀 그리고 성령님이시며 그 어떤 인간도 그 신격의 한 분이 될 수 없으며 추가적인 신들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인간이 되셨고 이것의 목적은 모든 믿는 자들이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해질 때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안에서 선한 일을 지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주장이 다소 당황스러우면 에베소서를 읽어보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

는 인간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교회의 구성원들을 작은 신들로 만들기 위해 사역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교회의 구성원 각자가 교회의 머리되신 분처럼 죄 없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을 살펴봅시다.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신 사도들의 기도를 주의 깊게 봅시다.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 되짚어 봅시다. 누가 당신을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거룩한 완전함으로 나아오게 하려 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당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성숙케 하려 하십니까? 누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고자 하셨습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잘 기억합시다. 믿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죄 없이 이 세상에서 사셨고 하늘로 올라가신 인간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의 머리는 모든 유혹과 시련을 영광스럽게 이기신 부활하신 인간입니다. 모든 교회 구성원들은 죄와 세상 그리고 마귀와 정욕을 부인한 한 인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은 그분께 연합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이 살았던 방법을 가르쳐 주고자 하십니다. 이 분은 또한 그분을 통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그 생명의 완전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은 한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으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과도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 성도의 기도가 예수님의 하나님께로 직접 전달됨을 성령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기도의 주제는 인간이신 예수님이 향유했던 것처럼 믿는 성도 각 사람이 하나님과의 동일한 교제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완전하고 흠 없으며 기쁨이 가득한 교제를 나누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죄인들 가운데 누리던 동일한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임을 보여주는 최선의 방법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삶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목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성경구절을 살펴봅시다. 이 성경구절은 문맥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그것도 부분적으로만 자주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제대로 숙고해 보면 위대한 구절입니다. 바로 로마서 8:28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 적용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려면 좀 더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만 인용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순간에 이 구절을 인용했으나 진작 이 구절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모든 것이 선하지는 않습니다. 합력한 모든 것이 선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의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이 선한 목적을 이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구절을 반복해서 주문

처럼 외운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일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순히 이 구절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목적이 아니고 그분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당신을 위해 하나님이 해주시길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상황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실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초래한 모든 나쁜 결과들을 해피엔딩으로 만드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순간 우리 각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이건 무슨 일을 하건 혹은 어떤 권력과 정사가 관여하던 간에, 하나님은 이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빌1:6). 우리는 그 좁은 길로부터 벗어날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행로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딤후2:13). 구원받은 성도들은 각자 한 가지 부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성도가 그 소명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소명은 선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든, 그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 있든 간에 그리고 그로 인한 세상의 결과가 무엇이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취될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28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29절을 살펴봅시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거룩한 말씀들을 신중히 살펴 당신의 마음과 혼 그리고 생각 속에 깊이 머무르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와 권능으로 그리고 자신의 지혜와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자신의 아들과 같은 모

습이 되도록 하시고자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발생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더욱 일치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사셨던 예수님 또한 죄로 가득한 이 땅에서 사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유혹에 직면하셨으나 그분은 항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 일들만 행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목적은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처럼 모든 면에서 닮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각자가 이런 영광스러운 삶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모든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임을 알고자 하는데 논의의 초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34절을 살펴봅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죄가 빚지고 있던 것이 과거에 지불되었습니다.)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우리도 일어날 수 있도록 과거에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의 중보자가 성취하신 것입니다.) 오른쪽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분의 죽음과 장사지내심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인 시점 이후와 그분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는 시점 그 사이에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성경구절을 우리는 이제 이해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구세주 사역의 일부는 우리의 일상생활, 즉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을 돌보는 데 있습니다.

주(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그분은 인간이십니다.) 그리스도(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는 현재 아버지의 오른쪽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위대한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를 하게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 중보기도의 특성을 구별하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복권에 당첨되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께 구해야 하는 기도입니까? 그것을 통해 아들이 높임을 받으니까? 아니면 더 좋은 자동차를 구입하도록? 혹은 더 젊어지도록? 현대 사역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혹은 우리를 세상의 물질적 축복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중보기도의 목적을 성경의 문맥 안에서 설명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해 봐야 하겠습니다. 만일 그분의 목적이 우리를 그분의 아들과 같이 만드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 사악한 현 세상의 헛됨을 싫어하신다면,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성장과 의로움으로부터 인간을 멀어지게 만드는 세상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예수님께 간구하라고 인도하는 사역자들의 말을 따르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칭송에 대해 욕망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인과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욕구의 차이를 구별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내용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무엇이 인간을 해롭게 합니까?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우리의 교회와 교제 그리고 결혼을 파멸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세상의 존재하는 모든 재물이 있어도 이런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없습니다. 완벽한 건강과 맑은 하늘도 세상의 심각한 부당함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죄는 모든 종류의 사망을 이르게 하는 원인이기에,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예수님과 닮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며 그분 사역의 목적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가 기쁘게 수확할 것을 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로마서 8:26-27을 살펴보면서 아버지의 오른편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 배우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우선 우리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 점을 고려해 봅시다.

1. 우리는 연약하다.
2.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른다.

우리는 성령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 하늘들과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임재 앞에 나올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 연약하여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셀라!

저는 지난 30년 동안 운 좋게도 한 교회의 목사로서 사역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매년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기도 모임에 관해서 말하자면 방문한 모든 교회에서 동일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제목의 80% 이상이 하나님이 육체적 혹은 재정적으로 좀 더 상황이 나아지도록 바라는 것들이었습니다. 나머지 20%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제목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 번째 기도제목이 좀 더 적절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기도제목

모두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할 내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차례차례 하나님께 자신들의 육체적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만 자신들의 영적생활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고쳐달라고 좀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직장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면, 이는 긴급한 기도제목으로 교회에서 공유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세상적인 삶을 살게 되거나 이기적이며 육신의 정욕 가운데 있는 경우에는 어느 누구도 이를 알지 못하며 그 어떤 기도도 은혜의 왕좌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참석하는 교회는 이 구원받지 못한 혼들을 전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주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의 구성원들은 잃어버린 혼들을 전도하는 데 그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사랑이 부족함을 위해 기도한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의 자기중심적인 무관심에 대해 기도한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을 짓누르는 인간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우리가 주님께 기도한 적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연약하지만 그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아픈 목을 치유해 주도록 하나님께 즉시 기도할 것이나 자신들의 차가운 마음을 주님께로 가져오는 데는 더디기만 합니다.

우리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전혀 관심이 없는 10대 아이들을 자녀로 둔 부모들로 가득합니다. 이 아이들은 성경에 관련된 설교를 혐오하며 교회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술집이나 나이트클럽과 같은 세상의 죄악이

가득한 곳으로 탈출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부모들은 교회 기도모임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병에 걸려 조그만 수술이라도 받게 되면 이 부모는 갑자기 교회 기도모임에 참석하여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가 육체적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연약하며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런 예는 현재 우리 모습을 충분히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좀 더 나은 상황에 이르도록 하기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더 잘 벌도록 하기위해서 부활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편안한 생활을 하도록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그 형벌인 죽음에 대해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분이 관심이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교회 기도모임에 가서 사람들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께 정말 중요한 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본다면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남을 쉽게 비판하고 성질을 내기도 합니다. 또한 은혜와 긍휼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헌신되어 있지 못하며 때로 남을 미워하곤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도제목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선을 베풀지 못하며 남을 사랑하는데 늘 실패합니다. 우리는 뜨거운 머리는 가지고 있으나 뜨거운 가슴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래 참지도 못합니다. 이런 요구들도 기도 제목에 포함되어야만 하지 않을까요? 사악한 눈을 가지고 바람 피우고 있는 한 남자가 자신의 청력문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어되지 않는 감정을 소유한 한 여인이 자신의 두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싸우는 부부가 자신의 자동차가 고장 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연약하며 기도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던져버려야 합니다(벧전 5:7) 그렇다고 우리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 무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계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교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동일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며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와 간구가 아버지의 뜻과 일치되도록 조율해 주십니다.

다음의 설명을 통해서 이 문제의 핵심을 살펴봅시다. ‘갑’이라는 어떤 형제가 ‘을’이라는 형제를 매우 화나게 할 만한 말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형제 ‘을’은 형제 ‘갑’의 행위에 대해 하나님이 처벌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연약한 한 인간이 하나님이 자신의 권능을 사용해서 자신의 자녀의 한 명을 징계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은 결코 그런 요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인간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먼저 살펴 보고자 합니다.

1.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을 경우 예수님은 그 사람의 파멸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눅9:51-56).
2. 예수님은 아버지께 자신이 적절한 사랑과 의로움으로 그 사람을 대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벧전2:21-23).

3. 그분은 자신의 적들조차 사랑과 은혜로 대하셨습니다(마26:47-50).

4. 결국 예수님은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려 놓으셨습니다(눅23:34).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 형제 ‘갑’이 행한 모욕에 대해 형제 ‘을’이 거룩한 방법으로 대응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형제 ‘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이 어색한 상황이 좋은 것들, 예를 들어 겸손, 온유함, 오래 참음, 부드러움 그리고 인내와 같은 상황으로 바뀌도록 아버지께 기도하게끔 하십니다. 자신에게 잘못된 것을 행한 경우 자신이 영적으로 성숙해 있다고 판단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있으나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가 드린 기도가 그대로 인정받지 못했을 경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혹은 자신의 형제에 대한 분노를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전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도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반복해서 발생합니다. 이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계신 사람의 아들과 믿는 자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이 신자로 하여금 주 예수님의 완전한 형상을 닮아가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합니다.

물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여기서 헤매고 있습니다. 로마서 8:26-27을 다시 살펴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이 구절에서 인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는 성령님에 대해 살펴봅시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만일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다면 아마도 우리를 멸시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나 자주 우리 육신의 무익함으로 인해 스스로를 미워하면서 삼니까? 그러
나 성령님은 신실하게도 끊임없이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분
은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먼지에서 시작한 존재임을 아시면서 계속
도와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께 감사드립니다. 그분께서 친히 도와
주십니다.

그분은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기
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감정의 충만함과 뜨거움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중얼대는 소리가 아닌, 우리를
대신해서 그러나 우리가 들을 수 없고 인지 할 수 없는 사랑의 탄원서를 바
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친구의 무덤에서 친히 신음하신 것처럼, 성령
님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어두운 무덤에서 벗어나 우리 구세주와 교
제의 자리로 나오도록 신음하십니다.

그분은 생각(mind)을 가지셨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지적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시고자 하는 의도에 대한 말입
니다. 단일한 생각을 가집시다(고후 13:11, 빌2:2).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알겠
습니까?(롬11:34, 고전2:16). 인간들은 세상의 것들을 생각합니다(빌3:19).
생각(mind)이란 단어가 쓰이는 구절들입니다. 인간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
서는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을 보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인생의 궤도를
정확히 그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성령님의 의도를
확인하십니다. 그분의 의도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께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의도를 확인하십니다. 그 의도 역시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인간이신 분께서 아버지하나님과 성령하나님 사이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가져다주도록 협력하여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선의 것이란 바로 예수님의 삶이 우리 안에서 재생산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께서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각 구성원들을 대표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얻은 새로운 삶을 충만하게 누리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방법으로 배달됐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것을 바라볼 때 그가 얼마나 흥분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는 그 소포를 열어보았고 한 마귀가 나와서 그를 가격하기 시작했습니다(고후 12:7).

우리도 그랬을 것이라 짐작되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였고 잘못된 그 소포를 다시 가져가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의 첫 번째 간청이 거부당하자 다시 나가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간청을 하였습니다(고후12:8). 사탄의 공격으로, 특히 육신적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자신을 그 공격으로부터 건져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종은 연약함으로 인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나 그런 기도는 예수님을 닮는 데는 방해가 된다는 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고후 12:9). 따라서 그의 간청은 거절당했습니다. 대신 교회의 머리이신 하늘에 계신 사람의 아들께서 자신의 교회의 한 구성원인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육신의 평안함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요한일서 2:1-2를 살펴봅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중생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의로운 길을 가도록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는 구원을 주신 주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이 죄 짓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내주하는 성령님과 성경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짓지 않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And if any man sin)...” 이 문장에서 선택된 접속사인 ‘그리고(and)’는 다소 슬프게 보일지 몰라도 위로를 주는 단어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단어를 ‘그러나’로 바꾸어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라고 했으면 몇몇 사람들은 그 구절에 걸려 넘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기쁘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기에 ‘그리고’라는 단어를 적절히 사용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를 했을 경우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람의 아들이 현재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더 듣게 됩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변호자로서 우리를 대변해 주고 계십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완성된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성경적 진리를 번개하고 타락한 인간들은 자신의 불의를 합리화하려 하지만, 우리의 지위를 유지해 주며 하나님의 진노와 처벌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형제를 고소하던 자를 침묵시키는 한 의로운 인간이 계십니다(계21:10).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생각에 반하는 죄에 탐닉해 있습니다. 그

죄들로 인한 나쁜 결과가 올 때만 그들은 주님께 도움을 청하지만 그들이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오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경멸했던 그분께서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들의 결과물을 제거해 주시기를 이기적으로 바랄 뿐입니다.

불행히도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에서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다고 잘못 배웠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실패와 부족으로 인해 매우 낙심해 있고 난감해합니다. 아버지와의 교제가 자신들의 공로나 혹은 영적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배운 이러한 성도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경우 상당한 상실감에 빠져들고 맙니다. 심지어는 자신은 이 세상에 혼자이며 하나님도 없고 아무런 소망 없이 버려진 존재라고까지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간절히 바랐던 이런 사람 중에 육신의 정욕 가운데 절망과 죄악에 빠져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분께로 나올 수 없다고 믿어서 상당한 혼란과 좌절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확고히 말해주는 이 성경구절을 다시 한 번 읽어 보십시오. 어린 자녀들아 죄를 짓지 말라. 어린 자녀들아 만일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당신에게는 한 변론자가 계신다.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의로우신 예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신다.

이사야서 50:4-9는 많은 적용과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 대언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학식 있는 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내가 피곤한 자에게 때에 맞는 말을 할 줄 알게 하시나니 그분께서 아침마다 일깨우시되 나의 귀를 일깨우사 학식 있는 자같이 듣게 하시는도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 주고 머리털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주며 수치와 침 뱀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터인즉 내가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세웠나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투겠느냐? 우리가 함께 일어서자. 내 대적이 누구냐? 그는 내게로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같이 헤어질 것이요, 종이 그들을 먹으리라.”

우리는 6절로부터 빌라도의 심판석에서 고초 당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상황을 발견합니다. 8절에서는 십자가에서 그분께 가해진 모든 정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의롭다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들 또한 여기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또한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내 곁에 있도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피로 구속받은 모든 사람은 다음과 같이 외칠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터인즉 내가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적들이 다가와서 우리가 실패하도록 유혹하고 고소해도 우리에게는 한 변론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자신의 소유물을 저버리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담대히 같이 서서 나아가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롬8:1). 라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를 정죄하는 자가 누구인지(롬8:34) 물을 때 그 대답이 인간에게서 오건 마귀에게서 오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는 확실히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라, 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이사야서 50장과 요한일서 2장은 대적자들의 술수와 하나님의 약속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비방하는 모든 자들은 먼지로 변할 것입니다. 반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또 다른 이유를 얻게 된 셈입니다. 우리는 반석(Rock) 위에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사셨고, 죽으셨으며, 부활하시고 죄 없이 하늘로 올라가신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거룩한 분과 같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믿는 자의 삶의 모든 부분에 관여하십니다. 이는 그들을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인 그분의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보다 일치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10장

상속유업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시되 계속해서 동시에 하나님이
셨음을 공부했습니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죄를 짓지 아니한 완벽한 삶을
이 지상에서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으로부터 영광스러운 모습
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른편으로 올라
가셨고 거기서 우리의 중재자로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
보해주시며 아버지 곁에서 믿는 성도의 변호자와 교회의 머리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는 아래 두 문장으로 간단히 요약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죄의 권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로 되돌아가셨습
니다.

이제껏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와 현재의 의미를 공부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Humanity)이 하나님 자녀들의 미래에서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할지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믿기 전에는 죄와 범죄로 죽었으며(엡2:1),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는 분리된 상태였으며(사59:2, 엡2:12), 이미 저주를 받았고(요3:17-18) 그리고 그들은 혼왕좌 심판에서(계20장) 불 호수에 내던져 질 때까지 끊임없는 고통을 받아야했던(막9:43-49) 존재였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행16:31),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하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시인하고(롬10:9-10, 고전 15:3-4), 그들의 죄가 사함 받았음을(엡1:14) 이성적으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온전히 깨닫고(엡1:13), 그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고(고후5:20) 그리고 의롭게 되었음을(롬3:21-25)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요3:36) 그리고 다가올 진노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살전1:10) 피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물어보면 예외 없이 그들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아주 드문 경우 어떤 이들은 주님과 같이 있을 것이라 답변하기도 합니다. 이런 답변들은 두 가지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는 불신자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에게 하늘의 그 어떤 장소도 제공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게 된 미래의 소망으로서 그 어떤 장소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음 이후 하늘에 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 잠시 머물기는 하나 천년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결과와 혜택을 사람이 아닌 장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신약에서 말하는 구원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육신적 욕구를 보여주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아들로 오신 이유를 오해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번 장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에 대해 약속된 유업이 무엇인지를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가 교회에서 듣고 찬송하는 것들과는 매우 다를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자신의 구원간증을 세 번 하였습니다. 우리가 시작하고자 하는 것은 그의 세 번째 간증입니다. 사도행전 26:12 이후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내가 그 일로 수제사장들로부터 권한과 임무를 받아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을 때에 오 왕이여, 정오가 되어 내가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나와 및 나와 함께 길가는 자들을 둘러 비추었나이다. 우리가 다 땅에 쓰러졌을 때에 내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이 있어 내가 들으매 히브리말로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 채를 걷어차기가 네게 고생이라,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분은 인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사울 혹은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고 자신은 기적을 일으킴으로써 율법과 성전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서게 한 대언자를 지지함으로써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신13:1-11).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사형이 집행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인간)이 자신을 사울/바울에게 주님으로 계시했을 때, 그 열심을 소유한 사울/바울의 마

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몸을 박해하길 중단하였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지상에 오신 인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울/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과 일치합니다. 즉 부활하신 주님이 머리이시며 지상에 있는 성도들은 그분 몸의 구성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성원 한 사람을 박해하는 것은 머리 되신 분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는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니 곧 네가 본 이 일들과 또 앞으로 내가 네게 나타낼 그 일들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라.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 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 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여기서 우리는 혼의 구원을 받게 된 한 죄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 주어 -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대해 장님이나 마참가지입니다(요한복음9장). 성령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시력을 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구원과 구세주의 사랑에 대한 필요성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 하나님의 권능이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어두움을 사랑했고 빛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았습니다(요3:18-21).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 우리는 무능력해서 잔혹한 주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으나 강력한 한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포로로 사로잡힌 우리를 구출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희생물과 헌신을 통한 일시적 용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좀 더 나은 개선이 아닌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선언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용서 받았습다.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새로운 논의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그는 죄들의 용서뿐만 아니라 상속 유업의 약속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상속 유업하면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중요한 그 무엇인가를 떠올리게 됩니다. 내가 상속유업으로 무엇을 받고 싶을까? 설교자는 상속 유업에 관해 설교하는 경우 그는 새롭게 변화될 우리의 몸과 그 몸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빠르게 달릴 수 있는지를 회중에게 설명하곤 합니다. 자매들이 상속유업에 관한 공부를 하게 되면 주제는 황금으로 된 거리와 대저택(mansion) 그리고 진주로 이루어진 대문과 같은 내용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미래에 대한 찬송을 부르면 우리의 마음은 영광과 왕관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에 대한 생각으로 기뻐하게 됩니다. 사역자가 앞으로 올 날들에 대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우리는 예수님과 통치하거나 혹은 진주로 된 대문을 생각하며 기뻐하게 됩니다. 이런 현실들은 우리가 구원은 받았으나 진정으로 주님과 그분의 의로움을 원하고 있지는 않다

는 것을 반영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물질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거룩한 물질인데 이런 소망들로 인해 우리는 우리 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속히 오셔서 제가 새로운 몸을 입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적인 것임.

“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속히 오셔서 제가 하늘에 있는 저택에 거주하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적인 것임.

“황금거리에 있는 나의 본향을 노래하고자 한다...” 물질적인 것임.

“그날이 오면 나의 모든 고통과 눈물이 사라질 것이다...” 물질적인 것임.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진정한 대답을 여러분에게 주고자 합니다.

1. 만일 여러분이 새로운 몸을 얻었으나 죄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2. 만일 여러분이 현재 살고 있는 초라한 집으로부터 탈출해서 황금길 옆에 있는 맨션에 살면서 여전히 서로 싸우고 다투고 거짓말하며 속임수를 쓴다면 그런 장소에 사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3.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지상에 와서 통치하지만 여전히 비뚤어지고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왕국은 현재 이 세상과 큰 차이가 있을까요?

죄가 거하는 새로운 몸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범죄가 가득한 새로운 장소는 희망찬 미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본성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변화된 환경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그가 거하는 주택이나 외모 혹은 지역이나 이웃들이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적 문제는 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육신의 장막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혹은 보다 더 좋은 장소와 거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상속 유업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상속 유업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제공한 물질들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상속 유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우리 안에 완전히 형성된 그분의 거룩한 본성의 진수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더욱 명백해질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는 상속 유업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10-1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총만한 때의 (미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물질) 땅에 있는 것들을 (물질)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미래) 모으려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늘이나 새로운 육신 혹은 대저택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으시고자 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간은 그 어떤 창조물보다도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자신이 창조하신 그 어떤 것보다, 그리고 또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하실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늘나라에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말한다. 만일 여러분이 하늘에 갔는데 그 장소가 죄로 가득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곳에 갔는데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이미 한 상속

유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상속 유업을 얻기 위해 혹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상속 유업은 구속의 한 부분입니다.

“예정되어”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 이전에는 어떤 것에 미리 예정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개인이 구원을 받으면 그들의 종착지점은 미리 정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로마서 8장과 일맥상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소망이 충만하도록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에 따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한 그분의 뜻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들이 역사할 것입니다.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님 마음속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 위대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앞에서 배운 진리들에 대해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의 영광은 그분의 죄 없으신 성품과 흠 없는 인성 그리고 그분의 순결함과 완벽한 의로움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는 떠올리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이끌어 줄 상속 유업을 우리에게 미리 예정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분의 재산과 건축물 혹은 통치권이 아닌 그분의 영광인 것입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여러분은 그분을 신뢰하십니까?) 너희가 믿은 뒤에 (여러분은 그분을 믿으십니까?)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한 위대한 진리이기는 하지만 이 모든 인도하심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서로 협력하여 우리를 문제의 본질로 인도하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었기에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성령님이 주어졌습니다. 성령님은 미래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봉인하셨습니다.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성령님은 일종의 계약금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속 유업으로 받은 것은 첫 번째 지불한 할부금(down payment)과 같다. 이런 사고방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값 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속(redeemed) 되었고(엡1:7) 값을 치르고 얻어진 것입니다(벧전1:18-19). 그러나 이것은 구속받은 사람들의 미래에 발생할 구속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의 혼은 이미 구원받았으나 우리는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으며(롬8:24-25), 미래에 발생할 이 몸의 구속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현재적 중보와 직접 연관이 있습니다(롬8:26-27).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 대한 아버지의 영원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롬8:28-32).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약속된 유업을 받은 결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높임을 받게 된 이 사실이 여기서 두 번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셔야 할까요?

옥으로 된 벽과 크리스털로 된 강 그리고 황금 길과 대저택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새로운 몸 때문도 아닙니다. 그분의 영광은 그분의 의로움과 정결함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심입니다. 우리의 상속 유업이 충분한 수준에 도달해야만 그분의 영광이 찬양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속 유업

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질문에 답하기 이전에 우리가 살펴볼 구절은 바로 “보증(earnest)” 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지상에서 그들의 삶이 끝난 후에 충만히 받게 될 상속 유업의 일부를 이미 받았습니니다.

만일 우리의 상속 유업이 새로운 육신이라면 현재 육신의 어떤 부분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의 상속 유업이 이 지상에서의 통치라면 여러분이 그 일부를 이미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만일 우리의 상속 유업이 대저택이라면 이 대저택의 일부를 여러분은 현재 소유하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상속 유업의 보증을 소유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변화되는 미래에 받게 될 상속 유업의 어떤 일부를 현재 소유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1:13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봅시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holy Spirit)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대충 읽지 말고 그 속에 담긴 진리를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영”이라는 영어 단어는 대문자로 시작하였으나 “거룩한”이라는 단어는 영어 소문자로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하나님의 세 번째 신격인 성령님(Holy Spirit)의 칭호나 타이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룩한 이라는 형용사는 성령님의 특성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 그 자체의 인격(person)이 아닌 그분의 성품(character)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령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의 보증 곧 계약금은 성령님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보증은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성령님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함의

정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하신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하늘에 가서 변화될 모습을 우리가 현재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에서 완벽히 누리게 될 상속 유업의 일부로서 무엇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십니다. 만일 그것이 일종의 계약금이라고 한다면 그 거룩함은 또한 충분한 상속 유업이 되지 않을까요?

“이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기도할 때에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 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을 기억해 봅시다. 이 분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사람의 아들(Son of Man)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대저택에 거하는 아버지나 혹은 새로운 육신과 왕국과 재산들의 아버지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영광의 아버지(the Father of GLORY)로 불린 것입니다. 그분은 정결함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의 의로움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은 죄 없으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 그분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분은 그 어떤 재산이나 저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육신은 때로는 잠을 자기도, 배고프기도 목마르기도 그리고 고통 받고 나무에 못 박히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육신은 죽어서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영광스러우십니다. 그분의 아들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영광스러운 아들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속 유업은 그 아들처럼 되는 것이다.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이번 공부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1장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성경구절은 어떤 기도의 내용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도록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그분의 영광스러운 상속 유업과 그분의 권능에 따라 우리 삶의 현실들을 통해 그분께서 이미 이 영원한 유업을 이루기 위해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성령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한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일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영에 의해서 진행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다음의 역사와 동일합니다.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롬8:29).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음으로부터 일으켜 세우셨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새로운 육신 혹은 변화되거나 고쳐진 육신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인내하여 계속 확인해 봅시다. 우리는 진리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셨던 그 부활하신 몸은 마리아의 자궁 속에서 형성되어진 그 동일한 육신이었으며 또한 그 몸의 손과 옆구리에는 못 자국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24-29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러나 열두 제자 중의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였으나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분의 두 손의 못 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드레가 지나서 그분의 제자들이 다시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때에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또 네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고 믿을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니시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 그분은 여전히 십자가로 상처받은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 미래에 대한 계시를 받았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왕좌와 네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에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양께서 서 계시더라. 그분께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온 땅 안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계5:6).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사람이 그분께 다음과 같이 물어볼 것입니다. “또 사람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두 손에 있는 이 상처들은 무엇이냐?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들은 내가 내 친구들의 집에서 입은 상처들이라, 하리라.”(눅13:6).

예수님은 새로운 몸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몸을 지닌 채로 죄

로부터 벗어나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하신 몸은 그 외모로 인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육신은 여전히 십자가 못 자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몸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셨기에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그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현재에도 그리고 다시 지상에 오실 때에도 그 몸 그대로 오실 것이며 심지어는 미래에도 그러실 것입니다. 그 새로운 몸은 영광스럽기에 죽음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 몸은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필요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롬8:10-11). 우리의 혼은 이미 살아났으나(엡2:1) 우리의 몸은 다가올 생명의 보증금만을 받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타락은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완성될 때, 예수님이 부활해서 향유했던 그 동일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육신이 아닙니다. 로마서 7:17-24에서 우리의 문제는 우리 안에 거하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이 순결치 못함으로부터 정결케 되면, 우리는 이 비참함에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으로서는 하늘에서 사역하시는 아들의 뜻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이제 디도서 3:5-7을 살펴봅시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나요?)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 주셨으니 이것은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두 가지 근거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이 둘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의 긍휼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씻음, 새로운 생명과 새롭게 하심 그리고 성령님과 거룩함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풍성히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근거해 그분께서 우리에게 상속 유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들의 세부적인 의미들을 다 연구하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 본 이 성경구절에 제시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겸손하게 그분을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디도서 3:7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모든 것들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더 많은 일들을 하실 것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목적이 성취되었을 때, 우리는 그분의 권능과 은혜의 무한한 역사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어떤 사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

이지만 그분의 사역이 완성될 모습에 비하면 현재 모습은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입니다.

우리의 시야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소망들도 매우 피상적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며 그리고 그 언젠가 미래에 영원한 삶을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기질과 성품을 그대로 영원한 세계로 가지고 가고 싶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의 저택에 시기와 질투 그리고 갈등과 같은 것들을 가지고 간다면 그곳에서의 삶이 의미가 있을까요? 황금으로 덮인 길에서 살면서 여러분의 친구들과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속이며 싸우며 서로 시기 질투하는 모습을 생각해보면, 그 영원한 본향이 현재 우리 모습과 크게 다른 것이 있을까요?

디도서 3:7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재의 끝없는 연속성은 구원받은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소유한 것입니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완성 사역은 아직까지 충분히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3-5에서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한 보다 명확한 내용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이 구절은 하늘로 올라가신 분에게만 가능한 그런 관계를 아버지와 맺고 계심을 보여주는 신약 성격의 세 번째 구절입니다. 아버지와의 교제를 통해 이 세상에서 거룩하시고 죄 없으신 분으로 묘사한 세 번째 신약성경 부분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한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여기

서 우리는 바울과 베드로에게 주어진 말씀이 성령님에 의해 완벽히 일치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인에 대한 풍성한 공화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두 번째 출생에 이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쓰인 단어는 거듭남(born again)이며 디도서에서는 새롭게 하심(regenerated)으로 베드로전서에서는 다시 낳으사(begotten again)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살리셨다(quickened)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디도사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범 죄로 타락한 상태로 살다가, 죽을 때 하늘로 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산 소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믿는 모든 성도가 기대하는 그 무엇인가가 미래에 있습니다. 바로 그 무엇인가가 하나님께서 우리 혼을 구원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우리는 다시 우리의 상속 유업이 우리의 공로로 인해 얻은 것이 아니며 또한 봉사를 통한 보상의 형태가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상속 유업은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 모든 사람들에게 즉시로 부여된 것입니다. 이 성경구절은 상속 유업이 추호의 의심도 없이 확실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속 유업은 우리를 위해 준비돼 있으며 미래에 사라져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 유업은 질적인 측면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은 순수한 것입니다.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아직 드러나지 않은 구원에 대한 소망을 접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미 소유하게 된 것, 즉 생명에 이르는 칭의는 빼앗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혼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모든 성도의 상속 유업은 구원이며 그 구원의 완전한 구현은 마지막 때에 가서야 실현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소망해야 할 구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의 도시에서 살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만일 그 도시가 절도와 살인 그리고 폭력과 마약과 술 취함과 간음으로 가득하다면 이 세상의 도시보다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장소는 보기에는 매우 매력적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축하신 그 도시는 물론 인간이 만든 것들보다는 월등하게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땅이 여전히 거짓말하며 저주받고 교만한 인간들로 가득하다면 지상에 남겨진 도시만큼 우울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더 나은 무엇인가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하게 될 장소나 환경의 변화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이는 죄의 본성으로 가득 차 있는 인간들이 다른 상태로 바뀌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1-3을 살펴봅시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주님을 찬양할 지어다!)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을 통해 미래에 받게 될 혜택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대저택을 소유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까? 아닙니다.)”

믿는 자의 소망은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 그것은 쉽게 소멸되거나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은 외면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속 유업은 우리 존재(being)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구원의 소망이 완전히 실현될 그 날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될 것입니다(Be like HIM).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 구절은 주님의 외적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본성과 성품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설교와 찬송들과 우리의 대화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의 우리의 외적 모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상당히 멋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나 여전히 정직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며 더러운 생각들로 가득하다면 이 지상보다 하늘이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의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앞에 놓인 진정한 소망을 바라봅시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잠시 동안만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자, 같이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의 아들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육신은 나무에 매달렸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 동일한 육신은 무덤으로부터 나왔고 그분은 그 육신으로 40일 동안 이 지상에서 생활하셨습니다. 그 기간,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을 같이 지낸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에 대해 무려 9장이나 할애하지만 예수님의 머리카락 색깔에 대한 내용은 전해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천막을 어디에 쳐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나 예수님의 키가 컸는지 작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염소를 어떻게 취하는지에 대해 설명하

고 있으나 예수님의 눈이나 피부 색깔에 대한 내용은 전혀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랑이시며 빛이시며 생명수이십니다. 그분은 진리 되시며 생명이시며 자비와 긍휼 그리고 온유함과 동정심을 지닌 분이십니다. 그분을 구세주와 구속자 그리고 친구와 소망 그리고 피난처와 위로자로 만드는 것은 그분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있는 그대로 볼 것입니다. 이 분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사53:2) 그리고 동시에 솔로몬의 아가서 5:16에서는 “그분은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외적으로는 눈으로 보는 피상적인 모습만을 보여주지만 영적인 눈으로는 우리는 그 인간의 정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에 대한 모든 논의는 거룩한 소망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새로운 육신의 키와 몸무게 그리고 색깔과 심지어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은 우리가 얼마나 육신에 관심을 가지며 이와는 반대로 영적인 것들에는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처럼 보인 다거나(look like) 혹은 우리가 새로운 육신을 입을지에 대해서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다 더 좋은 약속을 제공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예수님처럼(like; 내적 성품에 대한 언급) 될 것입니다.

잘생긴 사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합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이웃들에게 사기를 치기도 한 아름다운 겉모습의 소유자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 그들의 외적 모습을 개선시키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지상의 그 어느 곳에서든지 사람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들에게서 아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부심과 자신만의 성향 그리고 독특한 문화와 편견 등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세상의 여자들에게 이브의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해 보라고 한다면 조화, 통일, 기쁨 그리고 만족 같은 미덕은 결코 외모와 상관이 없음을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3을 찾아봅시다.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예수님을 지금 계시는 그대로 보며 그 모습처럼 우리가 변화되는 것)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만일 우리의 상속 유업이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라면 그 일을 지금부터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소망이 그분과 같게(likeness) 되는 것이라면 그 일은 바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에 의해 지불된 거룩함이라는 계약금 즉 보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처럼 순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순결함에 이르는 작업을 지금 시작합시다.

현재 우리는 하늘에 있는 대저택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대저택은 우리의 상속 유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현재 예수님과 같은 외모를 갖출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또한 우리의 상속 유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 행실을 어제보다는 오늘 좀 더 순결함에 이르도록 자신을 내드릴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처럼(Christ-likeness)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사람의 아들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소망은 날마다의 삶 가

운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16을 살펴봅시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중생, 즉 우리를 다시 낳으신 것.

“자녀이면 상속자” 이것은 헛된 반복이 아니라 사실을 확고히 하는 데 필요한 표현입니다. 성경은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상속자임을 강조합니다. 그 상속 유업은 보상이 아니라 구원의 일부입니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대저택이나 새로운 몸 혹은 땅의 상속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따라서 그 약속은 우리가 그분이 소유한 것을 같이 공유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이번 공부를 통해서 일관적으로 제시되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 영광은 그분의 의로움과 거룩함 그리고 흠 없는 성품입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이 끝나는 날 우리는 더 이상의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죄가 들어올 수 없기에 고통과 슬픔이 없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현재 구원받았고 용서 받기는 했으나 여전히 죄가 존재하기에 우리의 삶은 수많은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죄는 우리 지체 안에서 움직이며 우리의 사악하고 이중적인 마음으로 인해 우리는 그 죄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언젠가 예수님 자신처럼 우리도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이 고난들은 피할 수 없음이

명백하나 우리는 이것들을 상속 유업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죽히 비교될 수 없도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수많은 결과들이 우리 삶에 존재할 때, 우리는 미래 소망과 그것들을 비교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고통 가운데 있는 소망을 통해서 현재 우리를 괴롭게 하는 고통들을 훨씬 능가하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기쁨으로 가득한 미래로 인도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이것은 매우 확실한 구절입니다. 우리 안에 영광이 마침내 계시되었습니다. 아담이 소유했으나 잃어버렸던 것이(히2:6-8) 회복될 것입니다(히2:9-10). 인간이신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셨던 것을(요1:14) 우리는 미래에 완전히 소유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바램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롬3:23) 우리에게 그 영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날 우리 안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처럼 될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그것은 일종의 상(prize)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입니다.

첫 번째 아담을 관찰해 봅시다. 그는 흠이 없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창조 세계는 매우 좋았습니다. 그 어떤 눈물이나 고통 그리고 죽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피 흘림과 증오, 배반과 질병 그리고 고통과 절망, 전쟁과 기근 등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은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셔서 이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위대한 한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신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모든 결과가 영원히 제거되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구원은 실로 경이롭습니다. 구원에 따라오는 상속 유업은 구

원을 완전하게 합니다.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처럼 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요3:1-3). 우리의 보증은 다른 사람들의 보증이 됩니다. 언젠가 동물들은 평화로운 가운데 살 것입니다(사11장). 어느 날 나무들은 기뻐할 것입니다(사55:12). 이 모든 것들은 구속된 모든 생명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완성될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8:23로 가 보겠습니다.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여기서 우리는 우리 상속 유업의 보증 대신 성령의 첫 열매들이라고 바뀌어 표현된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할부금을 지불했으나 앞으로 다가올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은 구속 받았으나 우리의 몸은 그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혼은 이미 죄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죄가 여전히 우리 지체 안에서 활동하기에 죽을 것입니다(롬7:23). 언젠가 우리 혼의 구속자가 나의 육신을 구속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구원이 장성한 분량에 이를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보장된 그 어떤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성령님이 주신 선물임

니다. 우리는 인내를 갖고 우리의 구속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공부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다음 구절을 살펴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소망은 어느 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주님의 목적과 일치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하나님 목적에 부합되는 구속의 시간을 끈기 있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은 그분의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사는 그 시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은혜와 권능의 첫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목적에 좀 더 부합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위해 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은 그분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목적지에 이르도록 하는 데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 목적은 더 매력적이며 더 오래가고 혹은 오래 지속되는 육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이로운 대저택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 목적은 천년왕국에서 통치하는 권력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성령님을 소유한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거룩하신 분에 의해 정해진 최종 목적지는 그분의 거룩한 아들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진

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위대한 상속 유업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제 우리의 시작점, 즉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운 채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영광 속으려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항상 죄와 흠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신 인간이십니다. 그분의 생각과 말 그리고 모든 행동들은 거룩하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님의 약속과 목적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그분이 소유한 영광의 충만함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물질주의에서 건져내사 그 위대한 상속 유업을 바라보고 갈망하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타락으로 발생한 모든 아픈 결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롬8:21).

우리는 이 위대한 약속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히브리서 7:22-26에서 발견합니다.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서는 더 나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신약은 구약보다 더 좋다.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예수님입니다. 이 분은 보다 더 좋은 소망의 확실함을 보여주십니다.

“이 사람은(아들하나님의 인성에 근거한 소망입니다.) 항상 계시므로 변

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소유하시느니라.” 따라서 이 지상에 사셨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을 우리는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에 죽지 않으셨고 그분의 성품과 사역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이 성경구절은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 구원의 영속성을 보여주는 데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나를 구원하실 것이기에 나의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누군가 외칠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구절은 그것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지냄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듯하게 보이는 내용에 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구원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중보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곧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그분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가 거룩할 때까지 우리 안에서 계속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분께서는 그분이 해가 없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때까지 일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늘에 계신 제사장이시며 그분이 더러움이 없으신 것처럼 우리가 더러움이 없게 될 때까지 계속 일하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는 죄의 목록을 주의 깊게 살펴봅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찔림을 받

고 설교를 통해 권면 받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깨어 있도록 경고하시고 겸손하도록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믿는 자들로 이루어진 한 몸을 주셔서 우리를 격려하며 겸손하도록 훈계를 주며 우리가 강건하도록 기도하십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에 이르지 아니하고는 그 어떤 하나님의 모든 자녀도 단 하루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롬1:29-31).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하나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고전3:3-4).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나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라.”(고전 5:11).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전적으로 허물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서로를 고소하기 때문이라. 어찌하여 너희가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차라리 빼앗기지 아니하느냐?”(고전6:7).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댐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

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갈5:19-21).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 사람... 거짓말을 버리고... 화를 내도... 진노하지 말고... 도둑질을 한 자는... 부패한 대화...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엡4:22-32).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에 주의를 기울이라 하시는데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딤후4:1-2).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이러한 부류 중에 슬그머니 집으로 들어가 미련한 여자들을 포로로 사로잡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여자들은 죄들로 놀려 있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딤후3:2-6).

이것은 피로 씻김 받고 성령님이 거주하는 교회에 보낸 서신서에서 구원 받은 성도들에게 경고를 주는 죄의 목록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충분치 않고 우리가 구원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타락한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들을 하면서 하늘에 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최종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세주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신 그분처럼 우리도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삶 속에서 육신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매일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모든 죄들로부터 완벽히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사람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히 변할 것입니다.

이제 믿는 자들의 상속 유업에 대한 이번 공부의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8-13절을 다시 살펴봅시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끄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부활하고 영광스러운 상태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따라서 성도들은 완전하게 되어야하며, 사람의 아들이 하늘에 올라가신 목적은 그분의 권능을 통해 믿는 자들이 하늘에 가기 전에 그들이 완전하게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안에서 서로를 위해 역사하시는 그분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의 완전함입니다. 그분의 사역은 우리가 최종 종착역에 이를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것이 하늘이나 천년왕국이 아닌, 마침내 우리가 도달할 때까지 협력하여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침내(TILL WE ALL COME)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UNTO A PERFECT MAN) 그리스도의 총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모든 신자의 최종적인 목적지를 경이로움을 가지고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한 인간

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모든 시험과 유혹 가운데에서도 그분은 흠 없는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온 세상 죄로 인한 죽음 가운데에서도 그분은 여전히 거룩하신 인간이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시고 현재 완전한 인간으로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님의 권능 그리고 아들의 사랑이 의롭다 칭함 받은 모든 성도 안에서 일하시는 그 위대한 사역의 완성이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들 그분의 아들처럼 완전하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실 것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영원에서 우리는 그 수준에 도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번 공부에서 살펴볼 마지막 성경구절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이전 성경 66권과 요한계시록 20장까지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대한 설명을 거의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상당한 지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으며, 그것은 모든 사람들과 사물들에 어떠한 해를 끼쳤으며 그리고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하늘이라 불리는 그 장소보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은 명백하다.

성경의 맨 마지막 장에 이르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도시, 즉 벽과 문들, 나무들과 강들 그리고 거주자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가 가장 먼저 보도록 하는 것은 그 위대한 땅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그 도시로부터 나온 음성은 황금 길이나 크리스털로 된 강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나그네로서의 인생의 여정이 끝나는 시점에서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힘든 여정이 끝나는 그때에 에덴동산에서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을 부르셨던(창3:8)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목소리는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살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화해가 성취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눈물을 야기했던 모든 것들은 사라졌습니다. 슬픔과 고통은 끝이 났습니다. 사망은 불 호수에 던져졌습니다. 우리 안의 죄는 사라졌습니다. 우리를 감싸던 죄도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셨고 죄인들을 끝까지(완성될 때까지) 구원하셨기에 하나님과 인간은 같이 살 것입니다.

찰스 가브리엘(Charles Gabriel)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찬양 가운데 이 진리를 말합니다.⁹⁾

9 역자주: 복음찬송가 692장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에 의역된 가사가 게재되어 있음을 밝힌다.

모든 나의 수고와 시련이 끝난 후에
나는 아름다운 해변에 안전하게 있게 되네
내가 흠모하던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모든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누릴 영광일세

그분의 무한한 은혜의 선물로 인해
나는 하늘의 한 처소에 있게 되네
그곳에서 주님의 얼굴을 뵈오며
모든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누릴 영광일세

내가 오래 동안 소망하던 친구들이 거기 있네
내 안에 강물 같은 기쁨이 흐르네
구세주의 미소를 나는 알게 되었네
모든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누릴 영광일세

오, 위대한 그 영광
나를 향한 그 영광
그분의 은혜로 나는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되네
그것이 내게 영광이 되겠네.

우리가 이번 장에서 향유한 성경 내용을 요약해 봅시다.

“그들의 눈을 열어 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
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
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총만

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예정되어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기록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값 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될 수 없도다.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사람은 항상 계시므로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소유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이러한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곧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 모든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히브리서 2:6-10의 또 다른 문맥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어떤 곳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아담)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아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 위에 세우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아래 두어 복종

하게 하셨나이다, 하였으니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의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은즉 그의 아래 두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의 아래 놓인 것을 보지 못하고” 무엇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것이 한때 인간의 지배 아래 있었으나 현재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고 이로 인해 영광이 떠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광이 사라진 것입니다. 존귀도 없어졌습니다.

이 세상의 창건으로부터 주님께서서는 한 가지 해결책을 계획해 두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그분은 마지막 아담이 되셨습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그분은 아담이 잃어버렸던 죄 없는 성품을 소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일부 선택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예수 그리스도)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예수 그리스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이로써 우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합니다.)” 이 진리를 잘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 죄로 인해 그 대가를 지불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분의 최종목적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영광으로 데려가시고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되었고 그분은 우리의 죄로 인해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이는 잃어버렸던 그 영광을 우리 안에서 회복시키고자 함입니다.

우리는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칭의(justification)로 인해 죄의 형벌로부터 즉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현재 성령님에 의해 봉인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다시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빌1:6). 따라서 우리는 현재 구원받았으나 은혜와 진리로 아직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생명은 회복되었으나 영광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죄 없으신 인간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잃어버렸던 그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과 인간을 섬기고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히10:10, 14).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부록 A

새로운 육신 혹은 변화된 육신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고자 하는 것은 하늘이라 불리는 장소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죄와 구원에 대한 진리를 말하고자 하심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지옥과 반대되는 하늘이라는 장소와 연관시켜 생각하곤 합니다. 실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원이라는 시간의 대부분을 하늘에서 보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시 이 지상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할 것입니다. 사실 불신자들은 지옥에서 영원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흰왕좌 심판 이후에 그들은 불 호수로 던져질 것이며 그 장소에서 영원을 보낼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 장소는 변하기에 영원한 삶은 장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삶은 사람(person)에 대한 것이며 누구와 같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3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에 대해 우리는 찬송과 설교를 통해 하늘나라를 자주 언급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과 함께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사람이 아닌 장소에 대한 것입니다.

불신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곤 합니다. “당신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가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에 대한 이유는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에, 신실한 성도들은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한 목적지에 이르는 수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작 그분은 목적이라는 사실은 간과합니다(계22:13).

상급이나 혹은 더 큰 도시를 통치하는 권세를 얻고자 하는, 즉 눈에 보이는 것들에 관심을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에 관심이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죄인인 여러분이 주님을 부르시면 은혜로 구원받고 언젠가 하늘에 있는 대저택에 살 것이며 영원히 행복할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주일날 그 불신자는 교회에 가서 아름다운 찬송을 듣게 됩니다. 성가대의 찬송은 황금으로 덮인 길에 대한 것입니다. 진주로 이루어진 문에 대한 특별한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설교자는 휴거가 오늘 일어날 수도 있으며 우리는 결코 병들지 않는 최고의 육체를 얻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만일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물질과 세상적인 것에만 몰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적다면, 세상의 남은 모든 것들이 어두운 장소라는 것이 이상할 이유가 있을까요? “또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모습을 나타내겠느냐?”(벧전4:18).

그리스도인들의 미래에 대해서 성경이 기술하는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딤후2:13-14). 우리의 복된 소망은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드는 그 사역이 완성되어 죄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분과 같이 오는 것입니다.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냐”(빌1:23). 죽음이 다가오면서 바울이 소망하던 더 좋은 것은 하늘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있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서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로부터 떨어져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는 믿음으로 견고 보는 것으로 견지 아니하노라.)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고후5:6-8). 성경은 우리가 하늘에 살도록 우리 육신을 떠나 이 세상을 떠나는 것에 대한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넘치는 구세주와 우리가 같이 있게 되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구원받은 성도들의 변화에 대해 잘 알려진 성경구절은 데살로니가전서 4:13-17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성경구절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할지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이 장소보다 더 중요함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새로운 육신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활하거나 혹은 휴거가 된다는 사실을 믿더라도, 성경 그 어느 곳에도 우리가 새로운 육신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았던 동일한 육신을 입고 일어날 것이며 죽었던 그 육신의 모습으로 다시 살게 될 것임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유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빌3:20-21). 여기서 새로운 몸이나 다른 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육신은 변화되어 그분의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빌2:8), 그분의 육신은 그 안에 죄의 어떤 모습이나 흔적도 없었기에 영광스러우셨습니다. 죽음에서 그분이 부활하신 이후 그 육신은 영광스러웠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그 시점에, 단순한 육신의 변화가 아닌 죄가 더 이상 거하지 않는 육체로 바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우리가 일어났을 때 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두 번이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

록된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그 육신은 죄의 모든 흔적과 영향으로부터 정결케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죽음은 모든 권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 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전15:51-57). 그것은 새로운 육신이나 새로운 모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외적인 모습의 관점들, 즉 젊어진 다거나 혹은 키가 커진다거나 다른 인종이나 피부색깔 그리고 나이나 성이 바뀐다는 것들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 우리 육신 안에 거하던 죄와 사망에 대해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1-3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수없이 그들이 대저택을 가지게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이미 우리가 거할 저택은 그곳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는 왜 그 처소와 대저택을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일까요? 사람과 동물 그리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상과 질병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고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늘로 갈 때에는 피난의 장소를 소유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할 장소가 맨션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구절에 기초해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 구원받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항

상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우리의 미래가 기쁨으로 넘치게 될 그 기초로 설명합니다.

우리들은 아마 한 번쯤은 박물관을 방문했거나 상당한 수준의 부와 아름다움이 진열되어 있는 전시회에 갔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에 의해 우리는 상당히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아무리 좋더라도 이처럼 차갑고 생명이 없는 환경 속에서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22장에서 설명하는 하늘의 위대함이 대단하더라도, 만일 그 도시에 생명이 없거나 혹은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 그 장소가 황폐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과 혼을 만족시킬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이 아닌 그분 자체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이 물질적인 것을 존중하는 데서 벗어나 영적인 것을 존중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골로새서 3:1-4은 이런 관점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위에 있는 것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신 그분께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나타나시면 우리는 그분과 같이 그리고 그분처럼 변할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서 말입니다!

부록 B

예수님이 되신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배우셨는가’라는 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간 가운데서 인간으로 살면서 배우신 어떤 것이 인격(person)에 무엇인가를 더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결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몇 가지 변화가 있었음을 다음의 히브리서 성경구절은 말씀합니다.

최소한의 설명을 덧붙여 이 성경구절을 살펴봅시다.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신 것은 상속을 통해 그들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이라.”(히1:4).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열등한 위치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예수님이라 불렀다는 것입니다(마1:21). 그리고 그분에게 주어진 그 이름은 이 지상과 하늘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빌2:9). 미가엘, 가브리엘, 천사의 이름 혹은 이 모든 것들도 예수님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출생 시 그 이름이 주어졌을 뿐 아니라 그분이 사셨던 삶과 그분이 겪었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을 크게 높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에서 매우 독특한 점입니다.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히2:9).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들의 창조주였으나 약함과 의존과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바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즉 스스로 천사보다 낮

은 지위를 택하신 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함께 될(made)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might)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히2:17).

그리고 그분은 ‘인간 같으셨다(like unto men)’ 기보다는 ‘인간들처럼 되었음(made)’ 이 분명하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씨가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바(히2:16) 많은 인간 가운데 한 인간으로 선택되었으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고 그분은 또한 이스라엘 왕(마22:43)인 다윗의 씨(롬1:3, 딤후2:8)에서 나셨습니다.

이 성경구절에서 우리는 그분은 “되였다(made)” 그리고 “되려고(might)” 라는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통해서 그분이 인간의 형태를 취하시기까지는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될 수 없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대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그분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분께서 그리되게 하셨느니라.”(히5:5).

다시 한 번 우리는 그분께서 과거부터 영원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분의 승천 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히5:9).

우리는 이 성경구절을 이미 자세하게 다루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항상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완전하게 되셨습니다. 이는 그분이 육

신으로 오시기 전에는 타락한 인간과 그 인간을 구속하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과 사역의 일부가 완전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은 또한 그분이 항상 죄인들의 구세주이셨으나 그분은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의 죄는 용서 받았으나 깨끗케 된 것은 아닙니다(출34:7). 그들은 믿음 가운데 죽었으나 더 좋은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히11:40). 이것이 그들이 죽어서 아브라함 품(눅16:22) 혹은 낙원(눅23:43)에서 기다리며 아직 열려있지 않은(히9:8)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도들은 그 육신을 떠나는 순간 곧바로 주님과 같이 있게 됩니다(고후5:8).¹⁰⁾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거기로 들어가셨느니라.”(히6:20).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 번 그분께서 자신의 인성과 관련한 새로운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고 인간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히7:22).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새로운 언약은 분명히 없었습니다. 물론 신약

10 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자의 저서 “세대주의 재고찰”을 참고하기 바란다.

은 주님이 수락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셨을 때의 예수님과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의 예수님은 다른 측면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곧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히7:26).

대제사장이 되신 그분께서는 그분의 모든 창조세계와 그 어떤 인간보다도 높이 되셨습니다.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주에서 가장 지위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성경구절을 통해 그분의 높은 지위는 구속받은 자들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히9:11).

다시 한 번 우리는 가장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책무가 인간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록 C

진리를 왜곡시키는 현대 성경들

올바른 성경에 대한 다양한 논쟁이 있지만, 현대 성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과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된 중요한 교리들을 어떻게 왜곡하는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16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개역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없앴습니다.

개역성경: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누가 육신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창세기 3:15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IT)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현대 성서들은 예수님의 육신에 대한 내용을 없애고 그분의 영원하신 존재에 대한 교리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개역성경: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¹¹⁾

이사야 7: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개역성경: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¹²⁾

누가복음 1:35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네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네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THAT HOLY THING)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개역성경: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¹³⁾

11) 역자주: 대부분의 영미권 현대 성서들 (NIV, RSV, NASV)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의 “IT”을 “He”로 대체하였다.

12) 역자주: 개역성경에는 ‘처녀’로 올바르게 번역되어있으나 영미권 현대 성경들, 예를 들어 RSV에서는 그 단어가 “젊은 여인(a young woman)”으로 표시되어 있다. 히브리어 10:6에서 이것은 몸이므로 ‘자(one)’가 아니라 ‘것(thing)’이 되어야 한다.

13) 역자주: 개역성경에 발견되는 ‘거룩한 자’는 영어로는 “holy one”으로 해석될 수 있음. 영미권 현대 성서들의 경우, 예를 들어 NASV에서는 “holy Child” NIV에서는 “holy one” 그리고 RSV에서는 “child”로 표기되어 있다.

진리를 감추는 것은 진리를 없애거나 부정하는 것만큼이나 악한 것입니다.

부록 D

사람의 아들(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son of man)이라는 단어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인간이 아님을 보여주는데 구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민 23:19).

사람의 아들은 가장 낮은 창조물보다도 더 낮은 위치에 있으며 따라서 다른 타락한 존재에 도움이나 해를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높으신 곳에 계신 분에게는 해를 끼치거나 유익하게 할 수 없다.

“하물며 벌레인 사람이야 어떠하겠느냐? 벌레인 사람의 아들이야 어떠하겠느냐? 하니라.”(욥25:6). “그대의 사악함은 그대 같은 사람이나 해칠 것이요, 그대의 의는 사람의 아들이나 유익하게 하리라.”(욥35:8).

사람의 아들은 하나님의 다른 창조물보다 매우 낮은 지위에 있기에 주님께서 그를 생각하신다는 것 자체가 경이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시8:4). “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려주시나이까! 혹은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중히 여기시나이까!”(시144:3).

가장 최선의 상태에 있는 인간조차도 믿을 수 없으며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시146:3). “나 곧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자이거늘 너는 누구이기에 죽을 사람을 무서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무서워하느냐?”(사51:12).

주님은 인간이 성취한 모든 것을 일순간에 파괴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가 말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이웃 도시들이 멸망한 것 같이 아무도 거기에 머무르지 못하고 사람의 아들이 거기에 거하지 아니하리라.”(렘49:18; 49:33; 50-40; 51:43).

창세기로부터 예레미야 애가에 이르는 성경에서 사람의 아들(son of man)을 부정적이지 않는 관점에서 기술한 구절은 단 한군데뿐이다. 이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기로 합시다. 에스겔서를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겔서에서는 흥미롭게도 그 예언자에게 사람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무려 93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에 대한 생각을 바꾸신 것일까요? 아니면 에스겔이 앞으로 오실 그분(One)의 모형이신 것일까요? 에스겔서에서 사용된 사람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우리의 마음속에 경이로운 모습을 순서대로 보여줄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로서 에스겔은 일어서서(겔2:1) 반역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라는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됩니다(겔2:3).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말을 거부하고 반역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겔2:6-8).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겔3:1, 3, 4, 10)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를(겔3:17) 주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를 결박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겔3:25).

그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증거하였고(겔4:1, 16; 5:1), 그들을 대적하여 대언하였으며(겔6:2), 짐승의 형상(겔8장)과 성전에서의 가증한 행위로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것임을 선포하였습니다(겔11장).

그는 반역하는 집 가운데 거할 것이며(겔12:2), 죄인들 가운데 먹고 마시는 고통을 받게 되며(겔12:8) 그리고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대적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겔12:27; 13:2; 13:17). 그는 그들에게 불법의 걸림돌에 넘어질 것이라(겔14:3) 말하였으며 하나님의 율법(겔14:13)과 포도나무가 더럽혀질 것이라 경고하였습니다(겔15:2).

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비유로 말하였으며(겔17:2), 그들의 기도는 헛되며(겔20:3) 그리고 그가 그들의 재판관이 될 것이라 말하였습니다(겔20:4). 그 이유는 그들이 조상의 죄들을 의의 길보다 더 좋아했기 때문입니다(겔20:27).

에스겔이 거룩한 처소들의 상태를 바라보고 있을 때(겔21:2), 그는 매우 비통해했습니다

(겔12:6). 그 이유는 바벨론 왕으로부터 칼(겔21:9)과 고통과 죽음(겔21:12, 14, 19, 28)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집이 황폐하게(겔22:18)되며, 그들의 땅은 더럽게(겔22:24)되며, 그들의 동맹들은 가증한 일을(겔23:36)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고통의 대가를 받을 것이라 경고 받았습니다(겔24장).

이러한 경고들은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은 불의한 이방인들에 대해 대적하는 대언도 하였습니다(겔24-32장).

어리석은 자들의 혼에 대해 파수꾼 역할을(겔33:7) 한 사람의 아들의 이런 명확한 설교(겔33:2)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찔림 받고 구원을 찾게 되었습니다(겔33:10). 그들이 많은 죄로부터 돌이키고(겔33:12)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안전하리라는 상상을 멈춘다면(겔33:24), 그들의 죄가 용서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동시에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온 많은 사람들은 적들이었고, 그들은 그

의 등 뒤에서 헐뜯는 말을 하였습니다(겔33:30). 이것은 하나님의 양떼를 치는 목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동되었습니다(겔34:2). 에스겔은 그들이 주님의 길이 아닌 자신들의 길로 걸었으므로 더럽혀졌다고 말했습니다(겔36:17).

그때 사람의 아들이 나와서 그 민족이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회복될 것이라 선포하였고 또한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서(겔37장) 회복된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시 통합될 것이라(겔37:16)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때 곡과 마곡 땅이 파괴되어(겔38장) 그 민족이 자신들의 땅에 안전하게 거할 것입니다(겔39장).

이 대언자는 자신에게 보여준 것들을 행하며 진리를 선포하기에 하나님께는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겔40:4).

에스겔 대언자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과 영원히 거하며 모든 불의가 끝날 것이라(겔43:7)며 말을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악함은 끝날 것이라고 말합니다(겔43:10-12).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은 지켜질 것이며(겔43:18-27),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는 모습을 지켜볼 것입니다(겔44:5).

마지막 구절은 사람의 아들이 거하는 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깨끗한 강 줄기에 대한 언급입니다(겔47:6).

하나님의 신성한 말씀이 전개되는 과정이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경이롭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코 우연이나 혹은 인간이 만든 소설일 수가 없습니다. 수세기 동안 ‘사람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부정적이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그 칭호를 가지고 등장하였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 사역에 대한 말씀과 삶 그리고 예언에 대한 내용이 전개되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다시 보십시오. 경이롭지 않습니까?

신약성경에 와서는 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선 28번 언급하지만, 주님은 자기 자신을 무려 81번이나 사람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마태복음에서 13번, 마가복음에서 14번, 누가복음에서 26번, 요한복음에서 11번).

첫 번째로(연대기적 순서라기보다는 문맥상) 예수님은 자신의 이 칭호를 인간의 고통과 친숙해지기 위해 자발적으로 선택한 가난과 관련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니라.”(마8:20).

이 칭호는 그분이 인간과 같은 형상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충분히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먹고 마시며(마11:19), 비난 받으며 (마12:32), 복음을 선포하며(마13:37)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가 되셨음을 보게 됩니다(눅7:34). 우리는 그분이 고통 받았으며(마17:12), 배반당하며(마17:22; 26:2), 입맞춤으로 배신당하시며(눅22:48),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셨음을 봅니다(눅9:22). 그분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지셨으며(막10:33) 그리고 죽음으로 정죄당하셨습니다(마20:18). 그분은 죽으셨습니다(마12:40). 이 모든 것은 구약의 예언과 일치되도록 이루어진 것입니다(눅18:31).

우리는 또한 사람의 아들이 신성(Divine)을 지니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신성에 근거해 그분은 병자를 치유하시고(마9:6) 그리고 안식일의 주가 되셨습니다(마12:8). 그분은 많은 사람들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고(마20:28), 그분이 의도했던 바와 같이(마17:9, 막9:31)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고(마12:38-40) 잃어버린 혼을 구원하셨습니다(마18:11). 그분은 하늘에 이르는 길이며(요1:51, 창세기 28:12을 찾아 보십시오), 단순한 믿음으로(요3:14-15) 그분을 영접한(요6:53) 사람들에게 영

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요6:27).

사람의 아들은 아버지 오른편으로 올라가셨고(마26:64, 요6:62, 행7:56) 그분은 인간으로 오시기(요3:13) 전부터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거기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계1:13-20). 교회가 완성되었을 때, 그분은 둘째 하늘로 내려오셔서 정사와 권능들로부터 그 통치권을 취하십니다(단7:13-14). 그리고 천사들의 주로서 그분의 왕국을 깨끗케 하실 것입니다(마13:41). 그분이 영광 가운데(마16:27) 그리고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눅9:26)으로 지상에 다시 오실 때(마10:23; 24:27), 자신의 적들을 벌하시고 영광의 관을 쓴 모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계14:14). 그분은 사악한 자들을 파멸시키려 다시 오시며(마19:28) 그리고 아버지가 주신 권위로(요5:27)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마25:31).

아들하나님은 약속된 왕국을 이 지상에서 통치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다시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이런 시각은 에스겔서 이전 구약에서 사람의 아들을 바라보는 유일한 긍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시편 80:1-19를 살펴보겠습니다. “오 요셉을 양 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주는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이여, 주는 빛을 비추소서.” 하늘에 왕좌로 계시며 지상 양떼의 목자이신 분이십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일으키시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분은 자신이 거주하는 처소를 떠나 인간이 거주하는 곳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셨습니다. “오 하나님이며,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소서.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며, 주께서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분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눈물의 빵으로 먹이시며 그들에게 많은 눈물을 주사 마시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이웃들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의 원수들이 자

기들끼리 웃나이다.” 그분의 민족은 그분의 진노 아래서 고통 받고 있으며 그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그들은 반드시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오 만군의 하나님여,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소서. 주께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이집트에서 가져다가 이교도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것 앞에 터를 준비하시고 그것이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니 그것이 땅을 채웠으며 작은 산들이 그것의 그늘에 덮이고 그것의 가지들은 좋은 백향목같이 되었나이다. 그녀가 자기 줄기들을 바다까지 내보내었고 자기 가지들을 강까지 내보내었거늘” 이분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속박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풍요로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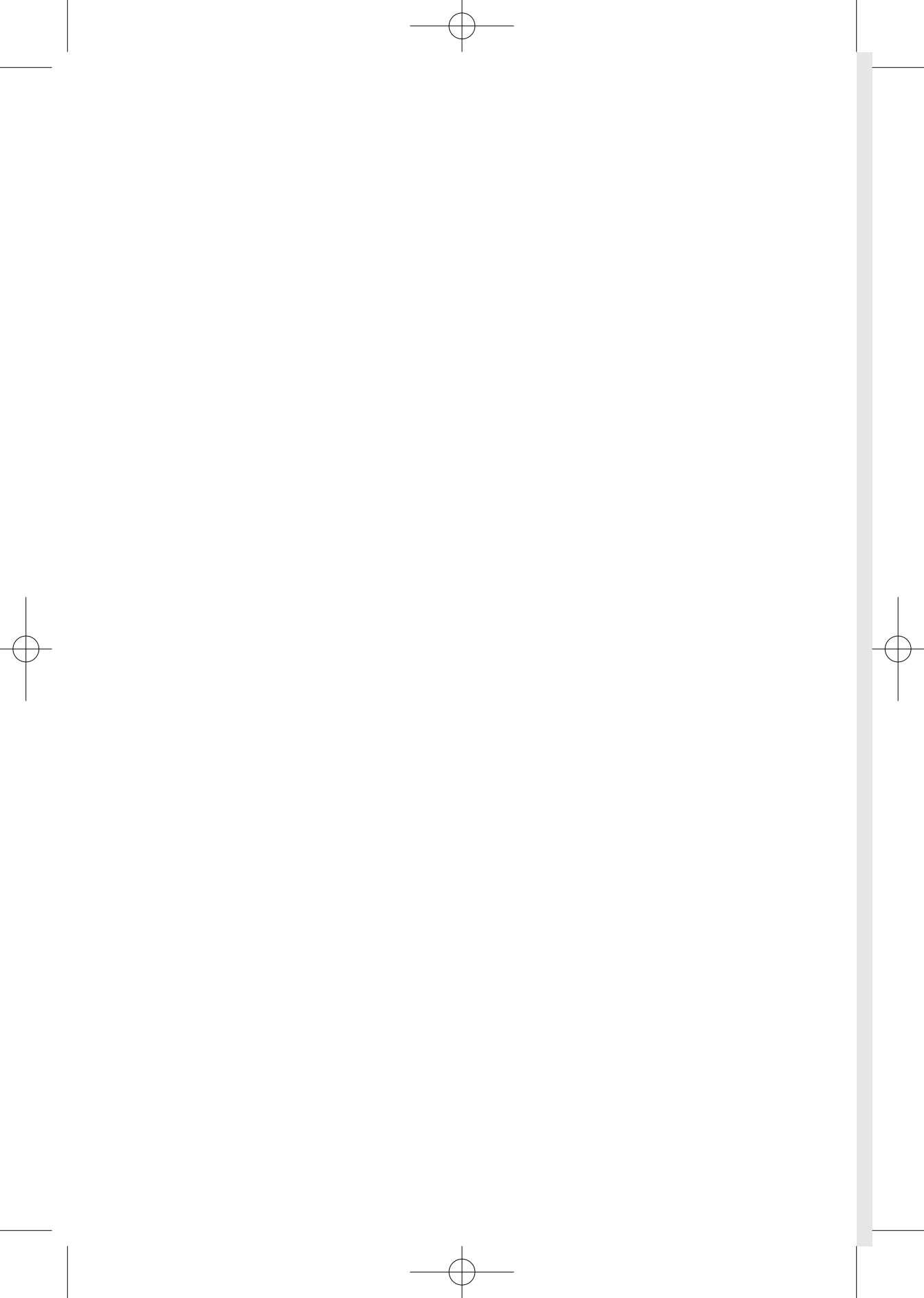
“주께서 어찌하여 그녀의 울타리를 허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자들이 그녀를 따게 하셨나이까? 숲에서 나온 멧돼지가 그것을 피폐하게 하고 들의 들짐승이 그것을 먹어치우나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보호자 되시기를 그치시고 그들을 피폐하게 하셨습니다. “오 만군의 하나님여, 우리가 주께 간청하오니 돌아오소서. 하늘로부터 내려다보시고 살피사 이 포도나무를 돌아보소서. 그것은 주의 오른손이 심으신 포도원이요, 주께서 주를 위하여 강하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에 타고 베이며 그들이 주의 얼굴의 꾸짖으심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나이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자신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했으며 이를 통해 지나간 시절의 기쁨을 알고자 했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곧 주께서 주를 위하여 강하게 하신 사람의 아들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이것은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율법 이전과 이후 견지해 온 여호와와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오히려 현재 아버지의 오른쪽에 앉아계신 그 사람을 통해서만 그들이 하나님

과 화해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아들이 세상에 오실 것이고 이스라엘이 이분을 신뢰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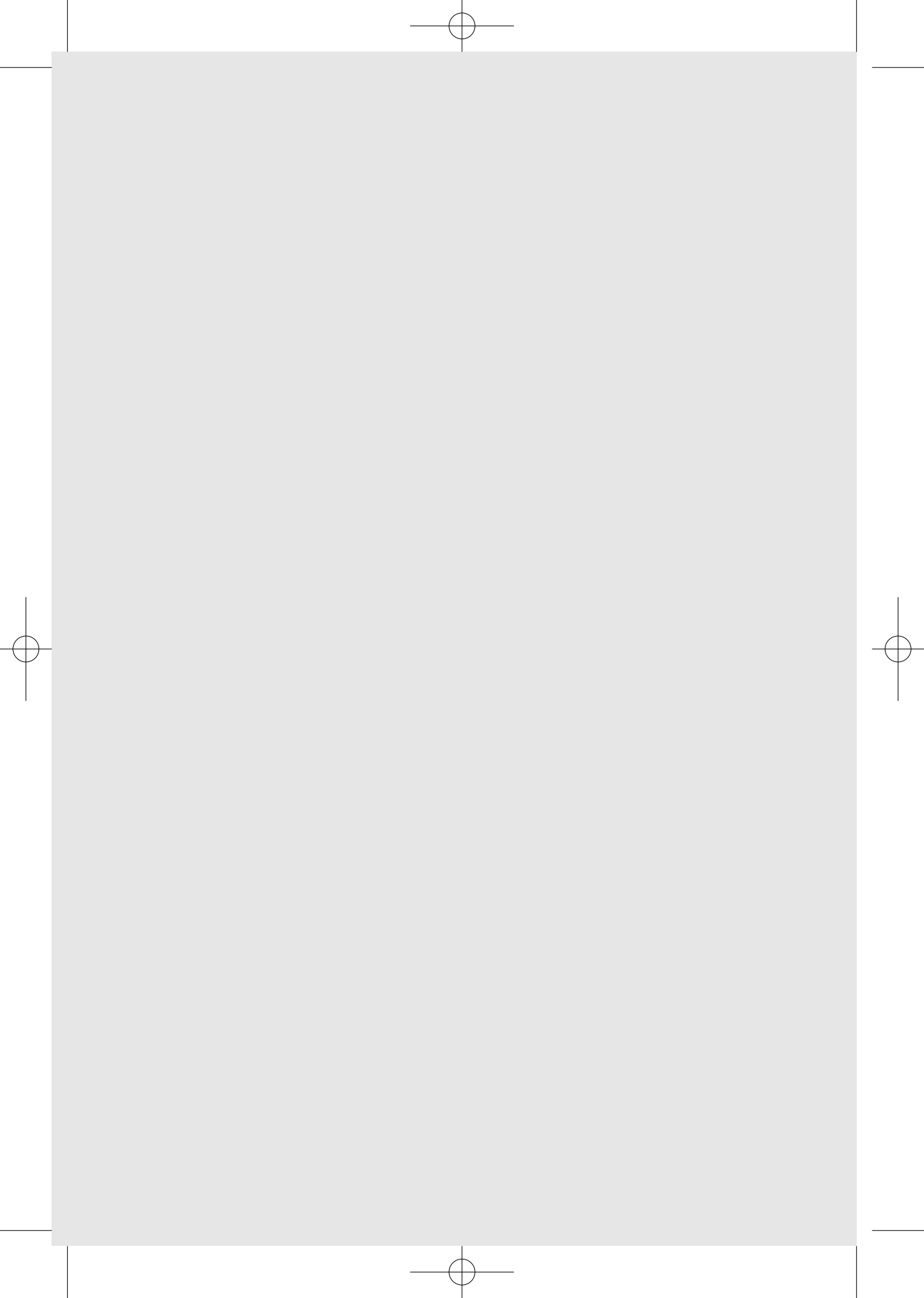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로부터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살리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며,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의 권능을 우리 모두 송축할지어다!



도서출판 킹제임스

도서 목록



도서출판 킹제임스 도서 목록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1	고통과 함께 하는 삶	Samuel C. Gipp	104	3500
2	성령의 열매	James W. Knox	368	12000
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L.E. 맥스웰	240	8000
4	성장을 위한 첫 걸음	Linton M. Smith	480	15000
5	일곱 교회	James W. Knox	44	1000
6	확실한 기초	James W. Knox	280	8000
7	성령 침례	James W. Knox	28	1000
8	성경적 종말론(별책부록 124면)	James W. Knox	220	8000
9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	James W. Knox	40	1000
10	신유와 적그리스도	James W. Knox	40	1000
11	성경 연구 방법	James W. Knox	224	8000
12	교회의 휴거	Linton M. Smith	48	1000
13	창세기 3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4	히브리서 11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5	우리는 왜 킹제임스성경을 믿는가	James W. Knox	28	1000
16	큰 흰 왕좌 심판	James W. Knox	28	1000
17	기독교의 본질	James W. Knox	96	1000
18	설교의 준비와 전달	James W. Knox	88	4000
19	청지기	James W. Knox	40	1000
20	하늘나라와 지옥	James W. Knox	224	8000
21	하나님의 뜻	James W. Knox	40	1000
22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James W. Knox	28	1000
23	킹제임스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아는가	James L. Melton	28	1000
24	성경과 술	James W. Knox	28	1000
25	쉬운 복음 쉬운 전도	James W. Knox	144	5000
26	그리스도인의 옷차림	James W. Knox	64	1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27	거룩한 여인	James W. Knox	60	1000
28	다시 태어났습니까?	H.E.M.	32	1000
29	교회에 관한 교리	James W. Knox	448	15000
30	창세기 1:1-3강해(간극이론)	Jeffery Tibbetts	96	4000
31	하나님께서서는 무엇을 받기 원하시는가	이우진	40	1000
32	교회와 대환난	James W. Knox	108	4000
33	그리스도의 몸과 지역교회	James W. Knox	36	1000
34	세대주의 재고찰	James W. Knox	324	12000
35	구원의 영원한 보장	James W. Knox	128	5000
36	이교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James W. Knox	56	1000
37	하나님의 말씀	James W. Knox	50	1000
38	가장 큰 명령	James W. Knox	42	1000
39	올라가는 기도 내려오는 응답	James W. Knox	180	7000
40	예수님의 죽음부터 부활까지의 활동들	James W. Knox	40	1000
41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Keith Piper	32	1000
42	신약 생활 원리	Norman Harrison	96	4000
43	합당한 헌신	James W. Knox	32	1000
44	The Essence of Christianity	James W. Knox	28	1000
45	예수님 나의 예수님	이우진	48	1000
46	영원을 준비하는 삶	이우진	28	1000
47	성경의 기초들	Brent Logan	100	4000
48	하나님인가 맘몬인가?	James W. Knox	28	1000
49	성경이 말씀하시는 보상	Keith Piper	28	1000
50	셋째 출생	James W. Knox	32	1000
51	성경에 기록된 과학적 사실들	Keith Piper	32	1000
52	결혼과 가정	James W. Knox	288	10000
53	구원의 조건	George Parson	110	4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54	예수님과 성경	James W. Knox	140	5000
55	두 본성	George Zeller	60	1000
56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Terry Watkins	60	1000
57	거리 설교의 유익	James W. Knox	52	1000
58	레위기 개요	James W. Knox	48	1000
59	히브리서 연구	M. R. De Haan	336	12000
60	천년왕국	Keith Piper	36	1000
61	창세기 주석	James W. Knox	536	18000
62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Samuel C. Gipp	168	6000
63	두 홍수(간극이론)	James W. Knox	32	1000
64	예수 및 여호와인가 아니면 '야훼'와 '야호' 커백션인가?	Gail A. Riplinger	48	1000
65	하나님의 모든계획	김 영 균	272	8000
66	Dino 박사의 창세기 간극이론의 비판에 대한 전면 반박	Gaines Johnson	56	1000
67	간극이나 아니냐에 대한 창세기 1:1~2의 연구	David F. Reagan	48	1000
68	영원히 살려면	John Phillips	112	4000
69	그리스도인이여,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Timothy P. Rose	208	8000

도서출판 킹제임스 문서사역 후원회 안내

진리침례교회는 구원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1999년에 부설출판사로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행본 22종과 소책자 40종 등 62종의 도서를 총 13만 3천부 이상 제작하여 보급했습니다. 이미 기독교 서점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도 우리가 문서사역을 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킹제임스성경에 기반하고 킹제임스성경을 비평하지 않는 건전한 책을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내용의 책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경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지은 책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출간된 책들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전제 아래 지은 책들을 보급하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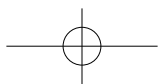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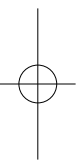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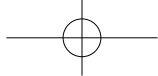
둘째, 건전한 책을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용 소책자의 경우 시중에서 구매하려면 평균적으로 2000원~5000원 가량합니다. 우리가 제작하는 소책자의 평균 단가는 200원(소책자)~2000원(단행본) 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책자의 경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상으로 보급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무상으로 보급할 것입니다. 단행본의 경우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작은 교회들에는 필요한 만큼 무료로 지원했으며, 성경 공부를 원하지만 도서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개인들에게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한 달에 만원을 후원하시면 50명에게 무료로 소책자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출간한 도서의 절반 이상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우리는 사업(business)이 아닌 사역(ministry)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혼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아무런 수확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늘에 올라가면 주님께 드릴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일에 동의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문서사역 후원회 회원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롬 10:17)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딤후 2:9)

2015년 5월
진리침례교회 담임목사
도서출판 킹제임스 대표
김 영 균 목사



문서사역 후원 방법

- ① 국민은행 812-21-0796-159 김영균(도서출판 킹제임스)
- ① 위 계좌로 매월 25일 자동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거래하시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영업점에 방문하여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www.ilovekjb.com)를 참고하시고 홈페이지에 있는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발행하는 신간 도서를 한 권씩 신청서에 있는 주소로 보내드립니다.

지은이 James W. Knox



제임스 낙스 형제는 1958년 2월 26일 루이지애나 배턴 루지에서 태어나 줄곧 플로리다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으며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영어와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낙스 형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인 1976년 12월 17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영접하였고 이듬해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낙스 형제는 1987년 미국 플로리다의 딜랜드에 성경침례교회를 세운 목회자입니다. 그는 109개 나라에 성경공부 자료와 설교 테이프 자료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전세계의 형제 자매들에게 보급하고 있으며 1988년부터 지금까지 백 30만 개의 자료들을 보급해 왔습니다.

낙스 형제는 테이프 사역과 문서사역을 통해 세계 곳곳의 지체들에게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자료들을 보냄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이 가능하도록 올바른 지침을 마련하고 지금도 그들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http://www.jameswknox.org>

옮긴이 조동훈

*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 前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現 한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